
**2012년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안내서(가이드라인)
제작 사업 최종 결과 최종보고**

2012. 12.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필요성	3
3. 연구의 고려 사항	4
4. 연구의 주요 내용	6
5. 연구방법	7

II. 이론 배경과 개념연구

1. 문화다양성협약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9
2. 다문화주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2
3.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선행 연구 분석	18

III.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 재현 모니터링 사례

1. 다문화관련 제작 가이드라인 준거 설정의 필요성	20
2. 분석 방법	22
3.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례 분석	24
(1) 대중음악 모니터링 분석	24
(2) 영화 모니터링 분석	37
(3) TV 드라마 모니터링 분석	63
(4) TV 교양프로그램 모니터링 분석	85
(5) TV 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분석	119
(6) 광고 모니터링 분석	130

IV.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가이드라인 조건

1. 대중매체에서 표현의 자유와 가이드라인 지침의 공존	150
2.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 시에 고려되는 심의 제도, 법령 현황: 국내외 방송 미디어 가이드라인 사례	152

V.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가이드라인 제시

1. 가이드북 구성 내용	159
---------------------	-----

2. 가이드북 안내서 구성목차 개요	160
---------------------------	-----

VI. 결론: 활용방안과 연구과제

부록

1. 다문화와 미디어 재현에 대한 다문화 구성원 심층인터뷰	167
2. 다문화 관련 영화 목록	176
3. 다문화 관련 광고 목록	186
참고문헌	190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발효('10.7월) 및 국내 이주민 증가 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주민 지원 중심의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장기작·포괄적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언론,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자의 삶에 대해 피상적이고 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하면서 텔레비전, 영화, 광고 등 미디어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다문화 관련 미디어제작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절한 안내서(가이드라인)가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다문화를 소재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기회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작자들이 다문화 재현과 제작 시에 참고해야 할 안내서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중음악, 텔레비전, 영화, 광고 등 매체에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특정한 내용을 재현할 때, 참고해야 할 안내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1)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이해, 2) 방송, 대중음악, 영화, 광고 등 영상매체에서 다문화를 다룬 내용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 3)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주체들과 그들의 문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안내서 제시, 4) 다문화 안내서에 기반 하여 미디어 제작현장에서 필요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2012년 1월 21일자 설 명절 특집방송에서 <세바퀴>의 고정 출연자 이경실, 김지선씨가 인기 만화영화 <둘리>에 등장하는 '마이콜'로 분장하고 '신토불이' 노래를 불렀다. 이 장면이 담긴 <세바퀴> 138회분이 유튜브와의 계약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본 한 흑인 여성이 "MBC-Black Face!!"란 제목으로 이 영상을 본 자신의 입장을 유튜브에 올려 논쟁이 되었다. 이 흑인 여성은 자신

이 올린 동영상에서 흑인의 얼굴을 희화화한 장면이 하나도 안 웃기고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하고 역겹다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며 "K팝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데, 한국인들도 다른 인종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보였다.

MBC 〈세바퀴〉 제작진은 이 논란에 대해 "분장을 했던 것은 국내 만화 영화 주인공을 패러디 한 것으로 국내 시청자분들께서는 만화 주인공 패러디임을 아셨겠지만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 없이 방송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다"며 "일부 해외에서 방송을 보신 분들 중 불편을 느끼셨던 분이 계셔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해명을 했다.

〈세바퀴〉의 인종차별 논란은 미디어에서 다문화, 소수문화, 인종문화를 재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는데, 만일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에서 일정한 안내서가 제작진에게 제공되었더라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방송을 포함해 미디어에서 표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 미디어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 비준 이후 사회 영역 전반에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미디어 재현에 대한 안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내서 제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 제작진들이 제작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해질 수 있다는 필요성 이외에 안내서의 내용 자체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안내서 제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연구의 고려 사항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대한 안내서가 제작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해도, 안내서가 미디어 제작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내서가 미디어 제작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서를 만들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된다. 또한 다문화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고 심지어는 모순적인 내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내서의 기준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만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재현된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그것이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단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안내서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내서와 표현의 자유의 공존

다문화 미디어 재현에 대한 안내서는 문화콘텐츠 제작에 있어 강제적인 지침 사항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다. 안내서의 정보는 '강제'가 아닌 '참고'이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러나 제작의 표현의 자유의 존중하더라도 다문화의 올바른 재현을 위한 안내서의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중요한 제작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안내서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안내서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표현의 자유가 다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항목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다문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차이'와 '보편성'

안내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다문화의 차이와 보편성에 대한 동시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국가 안에 여러 나라의 문화들이 섞여 있을 때, 그것들은 하나로 수렴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미디어에서 다문화를 재현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가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역사, 문화, 종족의 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제3세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에 인종적, 지리적, 종교적,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이질성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가 마치 모두 동일한 것으로 오해한다. 또한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이해 역시 이들이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체제 하에서 살아온 문화적 관습과 한국 혈통을 가진 종족적인 동일성에 대한 동시적인 이해 없이는 중국 조선족에 대한 재현을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안내서는 다문화의 문화적 차이와 인권의 보편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각국의 문화적 관습을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 충돌한다. 예를 들면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차별은 그 문화권의 고유한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여성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면서 그 특수성을 모두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행하는 유아 할례의식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년의식도 문화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권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재고할 수 있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또한 각 국의 고유한 음식문화, 주거문화, 언어사용, 도덕과 규범의 특수성을 최대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충돌하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3) 다문화 재현의 의미에 대한 심층 분석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은 어떤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재현된 장면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

석이 없이는 재현된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긍정적인 재현인지 부정적인 재현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주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당하게 되는 인종 차별을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면 표면적인 층위에서는 다문화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그렸지만, 심층적으로는 다문화의 실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재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의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는 맥락주의(contextualism) 관점으로 미디어에서 재현된 특정한 장면에 대한 가치판단에 앞서 그 장면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 것인지, 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맥락주의는 미디어에 재현된 표층적인 내용만을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미디어의 심층적인 의미를 간파하는 관점이다. 그것은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놓인 환경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재현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의 재현은 그 안에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재현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미디어 수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의 재현에 대해 느끼는 관점이 다양하다. 이른바 미디어 '구성주의'(constructualism)는 미디어에 재현의 장면이 하나의 관점에서만 해석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들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복합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재현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미디어 구성주의의 중요한 관점이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시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안내서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의 범위는 문화다양성의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자와 관련된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국한한다. 그리고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뉴스와 인터넷 기사들과 정보는 다룰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다루어야 하고, 나아가 방송 언론 저널리즘과 인터넷에서 일반 네티즌들의 다문화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지를 연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연구 과제는 후속 연구과제로 넘기도록 하겠다.

4. 연구의 주요 내용

(1) 선행연구

본 연구는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대한 안내서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할 것이다.

1)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국내 중심의 선행연구, 2)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국내 중심의 선행연구, 3)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을 주제로 한 논문 분석, 4)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

(2) 가이드라인 국내외 사례 검토

다문화와 관련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해외 사례들(일본, 독일, 미국 등)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핵심적인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3) 모니터링 분석

다문화 관련 미디어 재현 모니터링은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광고로 6개 영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뉴스의 경우는 필요한 영역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표면 추출을 하기가 어려워 이번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모니터링 관련 대상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I-1] 다문화 미디어 재현 분야별 모니터링 개요

분야		프로그램 예시	주 모니터링 내용
대중음악		연영석, 스타크래크다운, 뮤지컬 〈빨레〉, 〈아리랑 판타지〉	다문화를 다룬 가사에서 다문화에 대한 표현의 상태, 다문화 소속 멤버들의 활동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영화		〈파이란〉, 〈방가방가〉, 〈완득이〉, 〈파파〉, 〈무산일기〉 등	영화의 주제, 영화 속 대사, 영화 속 의상 및 문화적 재현 분석
TV	드라마	〈하노이신부〉, 〈깜근이 엄마〉, 〈황금물고기〉, 〈미우나고우나〉, 〈오작교 형제들〉, 〈산넘어 남촌에는〉 등	드라마의 주제, 드라마 다문화 인물의 재현 유형, 드라마 다문화 관련 대사 및 재현 내용 분석
	교양	〈러브 인 아시아〉 등	프로그램 취지와 방송 내용의 상관성, 다문화 국가를 다루는 취재방식과 표현 방식 분석
	오락	〈미수다〉, 〈세 바퀴〉 등	프로그램 출연진, 다문화출연자의 역할, 대화의 맥락에 대한 분석

광고	〈하나금융 당신처럼〉, 〈LG 사랑해요 LG〉, 〈NH농협〉 등	제품광고와 다문화와 상관관계, 다문화 인물과 문화를 다루는 방식 분석
----	-------------------------------------	--

모니터링의 분석 방향은 1) 드라마와 TV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회 수가 많아 전수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부분 모니터링을 하되, 대중음악, 영화, 광고는 다문화를 다룬 모든 작품을 전수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고, 2) 연구원별로 특정한 장르를 선정해서 분석하되, 분석의 표준 모델 안을 작성하여 공통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도록 단순하게 구성하며, 2) 정량적 통계보다는 분석 대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방송 재현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하고, 3)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의미 분석과 해석을 병행하여 부정적인 사례만 모니터링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례를 포함해 객관적인 사례들을 분석하며, 5) 모니터링의 분석방향은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표현을 결론으로 삼지 말고, 특정한 장면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어떤 시각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맥락주의적, 구성주의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4) 안내서 자문 및 인터뷰

본 연구진이 분석한 모니터링 자료와 유형 모델양식과 안내서에 대해 미디어, 다문화 관련 학계연구 전문가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초점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5) 안내서 작성

모니터링 자료와 자문회의 초점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중매체 제작 시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한다. 안내서에 들어갈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제작 가이드라인〉 구성 내용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무엇인가?

다문화란 무엇인가?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 재현 현황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재현의 사례제시

다문화 재현 시 항목별 고려사항(국가, 인종, 언어, 문화, 역사, 종교, 인간관계, 신체, 노동, 성, 인권, 라이프스타일 등)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시대 대중매체의 역할과 가치

다문화 제작과 재현의 유형 사례 제시

(6) 안내서(가이드 북) 제작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현 및 표현을 위해 대중매체 제작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데 있다. 가이드북은 연구결과 내용을 담되 이해하기 쉽게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이다.

5.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들을 정리 및 분석. 본 연구에 적합한 이론을 재구성

모니터링 분석: 대중매체에 재현된 다문화 관련 재현과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단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용 중심의 분석 위주로 진행.

사례 유형별 모델화: 대중매체의 다문화 관련 재현에 대한 사례들을 유형 별로 분류

자문회의: 모니터링 방법과 유형 모델화 완료 전에 전문가 그룹에 모니터링과 모델화의 타당성에 관해 자문회의 개최

초점그룹인터뷰(FGI): 유형별로 분류해서 모니터링 자료를 놓고 다문화 대상자들(국가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을 초청해서 그룹초점 인터뷰 개최

심포지엄개최: 연구결과물을 보완하기 위한 공개포럼 개최

가이드북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최종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가이드북 제작.

II. 이론 배경과 개념연구

1. 문화다양성협약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문화다양성과 문화세계화

세계화는 크게 보아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세계화, 문화적 세계화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세계화는 1994년 WTO 출범으로 각국의 무역 간 장벽을 없애는 자유경제주의를 지향하며, 특히 금융자본이 중심이 된 경제를 의미한다. 정치적 세계화는 탈냉전 이후에 지역별, 권역별 정치적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체제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세계화는 미디어, 정보, 라이프스타일, 여행, 음식 등 문화의 영역에서 인종, 종족, 국경, 권역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혼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세계화의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존재하는데, 하나가 전 세계의 문화가 미국문화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말하는 '문화 미국화'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중심의 문화체계모니가 쇠퇴하고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경합하는 '문화다양성'이다.

① 문화 미국화(Cultural Americanization): 문화 미국화는 문화의 세계화가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문화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대중들이 미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거나 내재화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 빌보드 팝, 미국 드라마, 패스트푸드체인, 패션, 미국 프로스포츠 등 미국이 대중문화 전체가 전 세계 문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문화 미국화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영어교육과 미국 유학의 열풍은 여전히 강하고 일상생활 속에 전 세계 시민들이 미국의 문화콘텐츠와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을 소비하는 현상들이 여전히 많이 때문에 각국의 문화 소비력이 높아져도 미국 대중문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문화다양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들이 서로 섞이고, 그 차이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다양성은 미국 중심의 문화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대륙의 권역문화와 특정한 국가의 국지적 문화들이 전 세계에서 특별한 흐름을 만들거나, 인기를 얻는 현상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월드뮤직, 라틴문화 열풍, 인도, 티벳 등 특정 문화 선호현상,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 '소프트파워'가 일으킨 한류와 케이 팝 열풍들을 문화다양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유네스코가 2005년에 제정한 '문화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이다.

2.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 과정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다문화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의 제정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문화다양성 협약을 제정한 곳은 전 세계 국가들의 교육, 과학, 문화를 다루는 '유네스코'(UNESCO)이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은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제논리로부터 각국의 고유한 문화주권, 문화 권리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담론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문화가 자유무역의 중요한 거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논리로 개발된 것이다. 문화다양성이 한국에서는 2010년에 국회에서 비준되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의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70년대 말 세계 인권 담론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CR)로 구분되었는데, 이 두 구분이 문화권의 정의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지시해준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기반한 국가들이 주도한 조직이었고, 후자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도한 협약이었다. 1980년대 국제 인권 정책이 발전하면서 문화적 권리는 주로 '국민-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권리와 국민-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논의되었다. 이후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의 및 이론적 연구, 영역의 개발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유네스코가 주도한 문화권 연구와 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인권 선언이 나온 1948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제출된 1976년까지인데, 제 1기에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제2기는 1976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경제질서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4년까지로 주로 제3세계국가들의 언어와 문화유산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제3기는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로 세계화의 과정에서 문화의 일국 독점을 막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국제 문화단체들이 연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유네스코에서 작성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지켜내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03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협회”(CCD: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총회에서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며, 자유주의 협정에서 문화 부분을 빼기 위한 국제 문화기구들의 연대”를 천명했다. 문화다양성의 원칙은 2005년 6월 “세계문화연대기구” 제4차 스페인 총회에서 재천명되었고, 2005년 10월 프랑스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3.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분석

문화다양성 협약의 공식 명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장의 구성은 1장, 문화다양성 목적과 원칙(Objectives and guiding Principles), 2장, 문화다양성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3장 문화다양성 정의(Definition), 4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5장 문화다양성이 다른 수단들과 맺는 관계(Relationship to other instruments), 6장, 문화다양성의 협약 기관들(Organs of the Convention), 7장 결어(Final clauses)와 부칙-조정절차(Annex- Conciliation Procedures)로 되어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다문화와 관련된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배경과 취지

1.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중요한 특성.
2.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
3.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 그러므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
4.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협약의 배경과 취지를 보면 문화다양성이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고,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라는 점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문화 사회는 민주주의와 관용,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이며,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전통의 계승과 보존

7.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
8. 무형 및 물질적인 풍요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
9. 소멸과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 받는 곳에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전통의 계승과 보존의 관점에서 다문화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질적인 문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장

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한국 문화형성에 구성요소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다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에 저해요소가 아니라 다양성의 요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가 보존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다문화적인 요소들은 한국 문화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문화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3) 표현의 다양성과 자유

10. 일반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여성의 지위와 역할)
11.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강화되고 문화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육성
12.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
13.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남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14.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
15. 발전을 위하여 전통적 문화 표현을 자유롭게 창조, 보급,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갖는 힘의 중요성을 고려**.

표현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다문화는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위해 중요한 고려지점이다. 다문화는 미디어 다양성의 관점에서 자주 재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창작의 자유의 보장과 함께, 다문화의 재현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 책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에 있어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갖는 힘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다문화의 미디어의 표현과 재현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

(4) 창의성, 문화서비스, 지적재산권의 보호

17. 문화적 창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
18.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함을 확인.
19.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

문화다양성 협약이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디지털 시대에 문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 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다문화의 경우 한국 내 문화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주체들의 국적을 국가 간 차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2.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의 현황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395,077명¹⁾으로 전체인구의 3% 가까이에 달한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전이되고 있는 현실은 국내에서만 생성되는 특수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이미 20여 년 간 전지구적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단군신화를 국민 단결의 정신적 근원이라고 자랑하고 단일민족국가라 자칭하던 우리나라가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변화한 원인은 다양하다. 해외이민, 광부, 간호사, 아랍노동자, 군인파병 등 주로 노동 송출국이었던 한국에서 IMF사태는 3D 업종을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촉발시켰고, 농촌을 기피하는 사회에서 농촌 총각들이 아시아권 여성을 신부로 불러들인 것이 다문화다인종사회를 촉발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권금상, 2010).

IMF를 지나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결과로 인종이 다양화되고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종과 민족주의 문제까지 뒤섞인 중첩적인 다문화사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정부가 시행해온 다문화정책은 이주여성에게는 온정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배제의 대상으로 이원적인 외국인 정책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수평적 다문화사회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온전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국민에게 다문화수용성을 심어주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농촌현실과 저임금 고된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산업현장에 배치된 외국인노동자들은 경제적 빈곤층이 되는 사회적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확산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 통계청, 2011년 12월 국내거주 외국인 수 이중 불법체류자는 167,780 명.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수용성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은 통상적으로 인종주의, 인종혐오증 및 편견, 인종 또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자민족 중심주의 등이 꼽힌다(윤상우, 2010).

집단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이민자 · 인종에 의한 문화접촉이 위협으로 인식될 때, 다수집단이 직업, 지위, 권력 등에서 자원스트레스(resource stress)를 받는 상황에 그들과 구별되는 이민자 소수집단이 존재할 경우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부정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Coenders et al., 2003; 윤상우, 2010).

최근 조선족 오원춘 살해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국내거주 중국교포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대중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이자스민의 비례대표 당선 관련한 부정적인 논란은 한국의 폐쇄적인 다문화인식의 폭을 다시 한 번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이주민의 접촉이 위협으로 느껴지게 하고 후자는 권력에 의한 자원스트레스에 기인한다.

2011년 개발된 한국인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의 지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혈통을 중시하는 다문화사회의 인식지형이 몇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우리의 다문화 수용성 평균은 51.17점으로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남성이 문화개방성에 낮게 나타지만 여성의 경우 외국인으로 인한 안전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유형별로 단순 노동직이나 서비스업, 기능직등의 직업군에서 낮게 나타나 외국인노동자들과 노동시장이 중첩되는 노동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를 드러낸다는 점, 마지막으로 친인척 중 이주민, 외국인이 있는 경우 수용성이 외국인 친구를 가진 집단보다 낮으며 특히 ‘고정관념 및 차별요소와 일방적 동화기대’ 요소의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은 다문화교육과 행사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국민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한 국민’과 ‘자주 접하지 못한 국민으로 구분하여 다문화수용성을 비교한 결과, 자주 접한 집단은 53.49점으로 ‘자주 접하지 못한 국민’의 48.78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안상수, 2012).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은 이주민을 가족으로 맞거나 동일 직종에서 일하며 빈번한 교류를 한다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경향을 띠는 것, 이주민 관련 정보습득은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점,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미디어의 다문화 사회가치 준거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화와 함께 한국사회의 요구로 외국인 구성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로 가기위해서 인종과 타문화에 대한 혐오 등 갈등이 야기되지 않고 사회적 반감, 반대 여론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연구(황정미, 2007; 윤인진,

2010)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전이에서 다문화사회현상과 논의에 대한 인식전달, 가치판단을 제공하는 미디어 제작의 역할은 다문화수용성에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 할 수 있도록 미디어제작 단계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미디어 제작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주의 개념

① 개념과 유형

다문화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한나라 안에서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테일러(Taylor)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인정하는 ‘승인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 정의한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집단으로 하여금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속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윤인진, 2007).

이주민 유입국이 이주민을 수용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유형은 이주민 수용의 방법, 국적부여의 원칙,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토대로 분류 할 수 있다(Castles & Miller, 2003).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독일, 벨기에 중동, 일본, 한국, 대만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형태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노동시장의 일부영역에만 개방하는 정책이다.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용광로(melting pot)정책, 공화주의 모형이 해당되며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1960년대 이전의 미국 등이다. 동화를 기반으로 국적취득을 허용하거나 국민 자격을 얻게 되는 유형으로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이주한 지역의 주류문화에 합류되는 것을 의미한다(최충옥, 2009).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샐러드 보울(salad bowl), 민족 모자이크(ethnic mosaic)에 비유되며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이 속한다. 이주민 집단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하고,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공존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거나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정책이다(조혜영 외, 2007).

문화다원주의(culture pluralism)는 다문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온전한 다문화주의가 아닌 단지 다

문화주의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따로 분류하고 유형화한다. 이민사회 내 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와 주류문화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주류문화와 소수집단, 이민 집단의 문화를 모두 동등하게 중요시한다. 미국은 소수집단 문화의 지원과 장려가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와 구분되기도 한다(최충욱, 2009).

한국은 단일민족을 강조해 온 국가로서 특정 경제 영역에만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고 정치·문화·사회·복지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차별배제모형에 들어간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주인은 다른 전통적 이민국과 차별되는 세계 유일의 특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이민 국가들이 경험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와 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이주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세한 출신국가로부터 유입된 결혼이주 여성을 주축으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권금상, 2010)

[그림 II-1] 국적부여 및 이민자 통합 모형



출처: 최충욱(2009), 112.

② 다문화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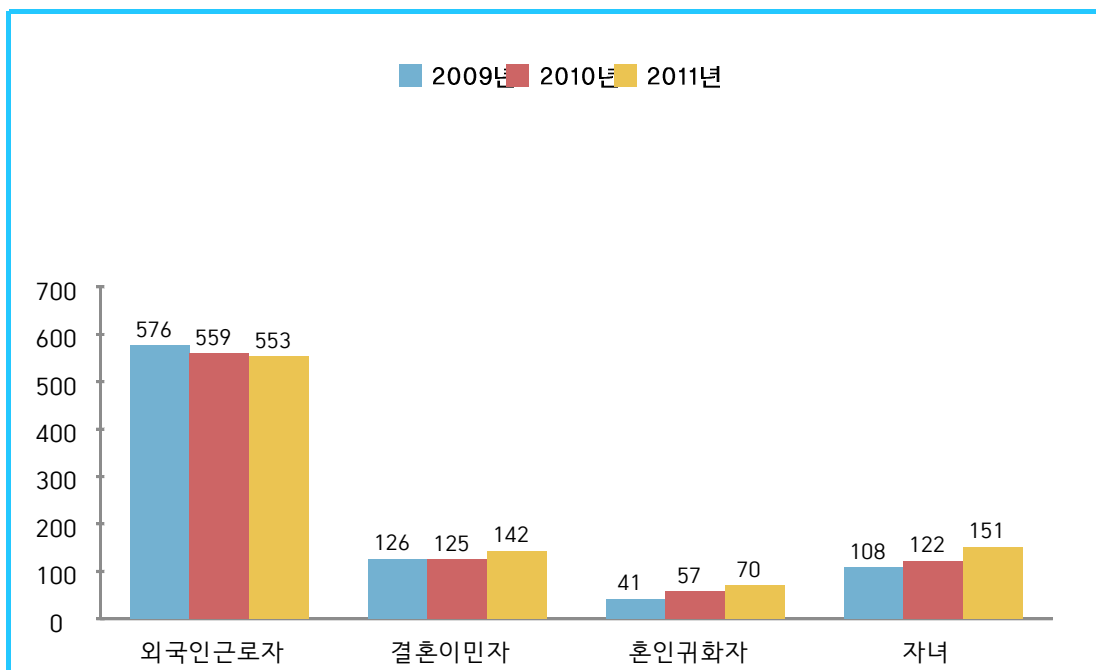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의 수²⁾는 1,395,077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미래인구추계의 2.8%를 차지한다. 이중 외국인근로자는 595,098명³⁾(42.7%), 결혼이민자는 144,681명

2) 11년 12월 기준, 이는 '11년 1월 대비 약 9.3% 증가

(10.4%), 유학생은 88,468명(6.3%)을 차지한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간다면 국내 외국인의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011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표Ⅱ-1〉 '09 ~ '11년 유형별 증가추이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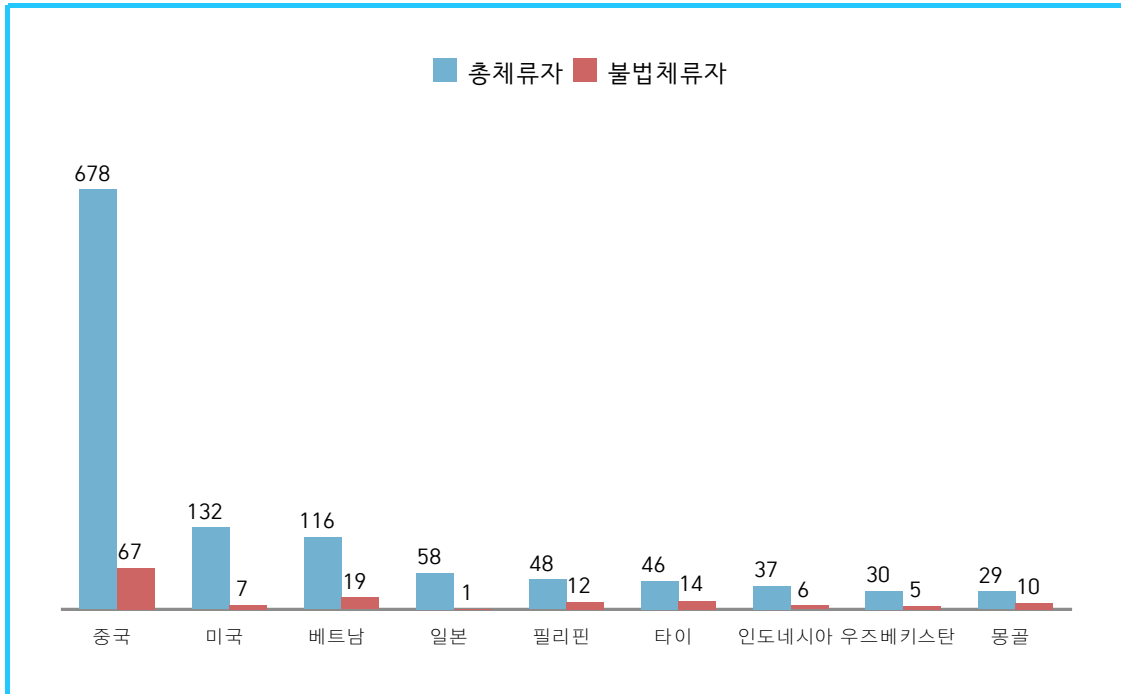
출처: 행안부, 2011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국적별 현황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이 55.1%(696,861명)으로 가장 많고 동남아 22%, 미국 5.2%, 남부아시아 4%, 일본 2.8% 순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는 141,65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2%로 2010년(125,087명) 대비 16,567명 증가(13.3%)하였고 외국인주민 자녀⁴⁾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11.9%인 151,154명이다.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국적별 분포 비율은 중국 57.3%, 동남아 29.5%, 일본 5.1% 순으로 집계되었다.

3) 전체 외국인주민의 42.6%으로 '10년(558,538명) 대비 36,560명 감소하였다.

4) 미취학아동(만6세 이하)은 93,537명(61.9%), 초등학생(만7세 이상 ~ 12세 이하)은 37,590명(24.9%)으로, 초등학생 이하가 86.8%를 차지하며 10년 대비 23.9% 증가세를 보인다.

〈표 II-2〉 2011년 체류자 국적별 현황



출처: 행안부, 2011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여성과의 결혼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1998년 개정국적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계 중국인이 대세를 이루던 국제결혼 대상자가 점차 중국(비-한국계), 필리핀, 베트남, 태국출신으로 전환 되었다. 최근에는 방문취업제의 실시(2007년 이후)로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일부국가의 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대상 국가의 비중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8).

〈표 II-3〉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비율

'10년	중국(60.9%)	동남아(28.5%)	일본(2.9%)	미국(0.9%)	러시아(0.6%)
'11년	중국(57.3%)	동남아(29.5%)	일본(5.1%)	미국(1.1%)	러시아(0.7%)

출처: 법무부, 2011

나. 다문화정책

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2004년에 국적법개정⁵⁾, 2005년 출입국관리법개정⁶⁾ 및 국

5) 2004년 이전의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했음.

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⁷⁾과 2006년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⁸⁾을 세웠다. 2007년 이후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⁹⁾과 「다문화가족지원법」등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국제 결혼이주여성, 북한이주민 등 우리사회에 새롭게 이주한 가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의미를 가졌으나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결혼이주자 가족을 다문화가족¹⁰⁾으로 정하고 있다.

NGO와 시민사회에서 사용된 다문화가족이란 말이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의 가족뿐 아니라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자들 간의 사실혼을 통해 만들어낸 가족과 새터민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였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합법적’ 결혼이주자로 그 지원의 범위를 한정한다. 이 법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 교육’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김현미, 2008).

정부는 2006년 다문화다민족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정책변화를 모색하여 단기적인 방문노동제를 이민 문제로, 노동력 관리의 문제를 사회통합의 문제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

- 2004년 개정 법률 이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혼인에 기한 간이 귀화요건을 완화함(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 6) 기존법에 의하면 국민의 배우자 비자(F-2비자)소지자가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했음에 반해서 개정 법률에서는 전면적으로 취업활동이 자유로워짐. 국민의 배우자 비자(F-2비자)소지자가 영주비자(F-5)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도록 했던 것이 2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면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완화함.
 - 7) 귀화 신청 시 경제적 능력 입증 요건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도 가능하도록 추가한 점, 이혼소송 진행시에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F-2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8)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실현’을 비전으로 제시, 이주자를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정주자로서 인정한 이주자 관련정책.
 - 9) 2007년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며 이주민의 문화부적응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응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추진.
 - 10)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 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나.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권과 시민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인 입장인 반면, 문화적 권리만 적극적으로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오경석, 2007).

2012년 문화부의 외국인·다문화(문화다양성)정책 기본방향에 의하면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펴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고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 관점에 기반 한 문화기반 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존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방송, 미디어, 국민소통(홍보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정책 기능을 활용한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 제고 및 홍보사업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체사회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여 창의성을 고양하고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여 이문화(異文化)간 공존·상생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는 한국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소 왜곡된 정책으로 변형되어, 시민사회가 제시해 온 다문화사회에 대한 변질과 다문화주의에서 어긋난 정부주도형 정책이라는 비판을 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받고 있다.

3.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 분석

전통적인 국내 미디어 연구가 정치·사회와 대중적 현상을 다루었다면 다문화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인종 갈등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사회에서 이주민의 적응 패러다임과 미디어재현체계, 재현된 이주민을 파악하는 시청효과 연구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관련 여론이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부나 미디어가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내 외국인 유입 20여년의 짧은 역사와 이주자의 규모가 인구의 2% 미만 이므로, 일반 대중은 아직까지 이민의 문제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윤인진, 2008).

미디어에서 이주민들을 그리는 모습은 시대별로 달라져왔다. 90년대 후반에서 2천년까지 미디어 재현된 외국인의 모습은 범죄자 혹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존재이거나, 세금 한 톨 안내는 외환 유출범으로 그려졌다.

미디어의 재현방식에 의해 낙인집단이 되는 연구로는 외국노동자들이 범죄자 혹은 범죄의 가능성을 지닌 위험한 모습으로 강조되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스테레오 타입화 된다는 연구(김세은, 김수아, 2008: 한건수, 2003)와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담론이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미디어의 '구

별짓기’ , 백인에 대한 동경이 작동하고 유색인종은 연민의 대상으로 그리는 언론의 인종 편견적 보도행태에 관한 연구(백선기, 2002)가 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배타적인 태도와는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인권유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것은 대중매체로 밝혀졌다(박수마·정기산·김혜숙·박건, 2008).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다문화를 접합하는 방식은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동화전략이 아닌 차이 전략을 통해 욕망의 정치학이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지향성임을 강조한다(이상갈·안지현, 2007).

혼혈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 혼혈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하인즈 워드의 미디어 보도 분석에 관한 연구(이남미·이근모, 2007)에선 그가 한국 내 혼혈인의 문제제기를 통해 인식재고와 재평가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한국사회에서 희석되어 가고 있는 민족 젠더 가족주의의 지배적 양식들을 유지시키고 재각인 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며 공고히 내려오던 단일 문화론과 인종주의적 불평등과 차별행위에 대해 민족적 정체성의 의미를 동요시키고 변화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내었다.

미디어에서 이주인과 관련한 재현방식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다루는 프로그램¹¹⁾을 통해 가부장제를 승인하는 동화의 가치를 제시하고, 젊은 외국인 여성들을 다루는 프로그램¹²⁾을 통해서도 인종적 선망의 대상이나 권력집단으로 배치하여 ‘인종주의’ 나 또 다른 차원의 ‘구별짓기’의 양상을 나타낸다.

다문화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적응과 통합에 관한 젠더적 접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한국 사회는 이민자 집단인 결혼이주여성을 평등하게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대중매체나 미디어가 제시하는 여성 틀에 이주여성들이 일방적으로 끼워 맞춰지고 있어 불평등한 통합이라는 시야를 제기한다(김현미, 2008). 한국사회가 가진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의식 결여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데 경직성을 드러내 문화수용에서 이분법적인 관점이 작용하여 이주여성의 타자화가 공고히 된다(이수자, 2004). 한국이 다인종 다민족사회로 이행함에 있어 순혈주의와 민족주의가 다문화사회에 직면한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국가 주도형의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 없는 다 문화주의로 협소하게 전이되어 간다(윤인진, 2007). 텔레비전에 나타난 이주여성은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드러내기보다 시집살이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하여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한국 여성되기’의 틀을

11) KBS TV. 결혼이민자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러브인아시아>.

12) KBS TV. 젊은 계층의 외국인 여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

제시한다(권금상, 2008). 이주한 여성들은 한국 미디어 내에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질서 하에 놓여져, 강도 높은 노동이 한국 며느리의 임무로 정당화되고 호명되며 타자화 되는 정형화 된 틀로 조명된다(김수정·김은이, 2008).

다문화적인 방식으로 재현된 TV광고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다문화는 기존의 인종주의를 강화하거나 한국인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의 정서를 강화하여 여전히 전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밝혔고(이희은·유경한·안지현, 2007), 미디어 다문화연구를 통해 국내연구 동행의 검토와 전망을 모색한 연구(이상길·안지현, 2007)와 <미녀들의 수다>에 나타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을 파악한 연구(백선기·황우섭, 2009),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현상에서 나타나는 국제성별 분업·문화 혼종성·타자화를 미디어에 재현된 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밝힌 연구(이수자, 2004)에서는 온전히 다문화 현상만을 다루지 않고 인종이나 여성성을 소구하는 전략임을 밝힌다.

이렇듯 미디어는 대중적 다문화 담론 속에서 이주민들을 패터화된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과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인종주의의 다른 얼굴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문화현상을 반영하는 미디어에서 동일한 시야의 틀로 제시하는 관행을 지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종주의를 소구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외국인의 유입 중 국내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외국인¹³⁾근로자를 사건·사고의 대상으로만 소구하는 점과,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과 중국거주 조선족여성¹⁴⁾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식별 가능한 인종을 소구하려는 인종주의적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3) 이주노동자 현황, 2008년 12월 법무부, 548,553명으로 집계됨.

14) 다문화가족통계 현황, 보건복지부, 2009년 5월. 중국인 33,667명, 중국조선족 55,789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59.9%를 차지함.

III.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 재현

모니터링 사례

1. 다문화관련 제작 안내서 준거 설정의 필요성

20세기에 들어 전 지구적 근대화가 심화되면서 우리사회에서도 인종에 대한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대중매체가 담당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다양한 효과를 갖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커다란 효과는 바로 파급력이며 여기에는 미디어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수렴하는 시청효과를 수반한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되는 다문화사회의 편견과 인종적 차별 문제는 시청자들에게 관찰학습을 제공하여 일정한 학습효과를 갖게 된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거나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배우는 과정에는 관찰학습이 개입되는데(Bandura, 1974), 관찰학습이란 본인의 직접적 경험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이 습득됨을 의미한다(권금상, 2010).

거브너(Gerver)에 의하면 TV는 시청자들의 현실 판단에 있어 물리적 환경과 또 다른 상징적 환경(symbolic environments)을 제공하여 정형화 된 TV시청이나 정보의 습득경험에 의해 일정한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고정관념이라 말한다. 특히 텔레비전은 가장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서 현실세계에 대한 상징적 환경을 조성 해 주는 기능을 통해 현실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관념을 계발시켜 준다. 매스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구체적으로 텔레비전에 나타난 현실)과 관객이 인식하는 현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Berger, 1995). 즉, TV와 영화와 같은 친숙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이미지와 서사구조로 개인들의 믿음이 강화되며 가치, 신념이나 행위방식이 미디어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미디어의 이러한 파급효과로 인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미디어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설치하여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올바른 도덕성, 가치관등 인식판단에 대한 정립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인식하게 되는 학습효과의 문제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s)의 형성인데 이는 성별, 연령, 인종, 직업과 같은 사회적 집단과 사회적 카테고리에 대해 그 성원이 가지는 과장된 신념을 의미한다. 리프만(Lippmann, 1922)은 스테레오 타입을 ‘마음속에 자리하는 상(picture in mind)’인 집단의 이미지로 파악하였다. 스테레오 타입이 형성 되는 데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나라와 인종들에 대한 상이 존재하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 가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도발적인 이미지나 문화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프리카와 동남아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명지체의 이미지, 유럽에 대한 선망의 이미지, 가난, 무지와 관련한 흑인과 동남아인들의 이미지, 신사적인 영국인이나 자부심 강한 프랑스인, 폐쇄적인 무슬림에 관한 이미지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권금상, 2010).

1960년대에 비백인은 비가시적인 인간으로 존재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 양적으로 증가한 흑인, 인디언, 멕시칸, 동양인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백인과 구분되는 그들, 주인을 섬기거나 반역을 시도한 노예, 정상과 대비되는 비정상,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웃음, 혹은 분노의 감정, 정신이 아닌 육체로 그려졌다(Tulloch, 1990; 전규찬 2001재인용). 홀(Hall)에 의하면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유색인종을 ‘타자’로 위치 지워 권력과 지식의 불균형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Hall, 1997).

미디어는 문화적 상징인 낯선 지역, 민족, 인물 등을 재현함으로써 새롭게 편입된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 방식은 기존 지식체계나 지배이데올로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문화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과 지식을 재생산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이야기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준은 수용자들이 특정지역, 특정 문화권에 대해 예상하고 기대하는 정형화된 시선임이 드러난다(이경숙, 2006).

백선기(2007)는 소수자 약자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소수자 약자를 그리는 재현에 의한 미디어의 보도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현재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다문화적 요소는 우리사회의 변동과 미디어의 제작방식이 어우러져 단순 소비되는 영상이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이끌고 가치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의 여성과는 다르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돌봄노동에 헌신하는 이주여성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라진 효부상을 재정립하고 가족으로서의 여성의 덕목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와 미디어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이주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재현방식으로서 미디어는 인종을 그리는 데 있어 주류의 시야의 관점으로 소수자를 규정하는 일정한 틀을 사용한다. 이러한, 특정집단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방식은 집단을 규정하고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불러온다는 우려를 낳는다.

백인사회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와 한국사회에서 이주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그리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고, 백인문화의 흡수를 통해 내면화된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백인위주의 제작 환경에서 시작한 유색인종에 대한 재현방식은 한국사회에서 인종을 그리는 데도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작동하여 고정적인 틀로 재생산되고 있다. 미디어의 제작 관행에 의

해 외국인 인식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제공원이 라는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미디어가 생산하는 다문화사회의 올바른 관점은 대중매체의 기능 중 사회 교육적인 지향점과 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의 이유들로 이주여성을 다루는 미디어의 제작 준거가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갈 방안을 모색해야 국가의 시너지가 되므로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이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청자들로 하여금 실질적 교류가 빈번하지 않은 외국인, 다른 민족이나 문화를 주제로 제작 생산하는 대중매체의 제작 관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중요성에 있다.

셋째, 미디어의 대표적 기능 중 대중매체가 갖는 사회교육의 역할에 따르며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할 다문화감수성이 제작단계에서부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는 다문화사회의 이주민에 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기재를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여 이미지를 제시하는 재현체계를 분석하여 스테레오 타입화 되지 않도록 제작현장에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방법

(1) 분석틀

각 프로그램에 나타난 영상과 내용을 통해 다문화 제작에서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문화, 다양성 국제 이해적 관점의 긍정적 유형에서는 이해, 소통 평등, 갈등 해소, 공존의 하위영역을 살피고 부정적 유형에서는 차별, 왜곡, 편견, 비하 등의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의 상관성과 문화와 국가를 다루는 취재방식과 표현 방식을 분석한다.

영상은 이야기구조와 담론구조로 이루어진 서사구조물이므로 영상에 재현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생산하는 자의 의도와 수용하는 자의 느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재현 시에 영상의 표층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미디어 재현에 대한 분석에 있어 분석방법론이 중요한데, 다문화 미디어 재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영상자체가 표출하는 텍스트 해석을 중시하는 존 피스크(John Fiske)의 영상기호분석과 그 영상 텍스트가 사회적 의미로 전이되는 것을 중시하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신화분석을 참고하

였다. 존 피스트의 영상기호분석은 영상매체의 서사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 구조와 담론 구조를 동시에 분석한다. 이야기 구조는 영상 매체에 재현된 주요 이야기가 어떤 구조로 전개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주요 사건의 대화의 핵심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담론구조는 영상의 이미지와 자막이 갖는 의미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은 대중문화 매체의 기호, 이미지가 재현될 때, 그 안에 어떤 숨은 의미가 들어 있는 지를 분석하는 데 적절한 이론이다. 바르트는 대중문화 자체가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중문화의 텍스트는 자명하지 않은 것을 자명하게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텍스트의 표층에 드러나는 기호들은 그 안에 숨은 의도를 갖는데, 그것을 함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함축적인 것은 텍스트가 겉으로 제시하는 1차적 전언 안에 감추어진 2차적 전언으로 재현된 텍스트의 '의미화과정'(signification) 말한다. 즉 의미화과정이란 우리가 드라마나 광고에서 볼 때 느끼는 당연한 느낌, "이 드라마는 아름답고", "저 광고는 감동적이다"라는 느낌 안에 어떤 다른 의미가 스며들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호학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모니터링은 다문화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2) 분석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재현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개의 분석 틀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제작구조를 파악하는 서사구조 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제작방식으로 인해 사회적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신화분석이다. 분석대상인 <러브 인 아시아>이주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서사구조를 갖는데, 이야기구조의 파악을 위해서 통합체, 계열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담론구조의 파악을 위해 존 피스크의 '영상텍스트 약호' 분석을 사용한다. 이를 토대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사회적 의미로 도출하는가를 롤랑 바르트의 신화분석으로 파악하여 다문화사회에서 제작에 관련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본 연구의 방법론적 구성

분석틀	분석차원	분석내용	연구결과	논의
서사 구조	이야기 / 통합체 · 계열체 분석	주요사건 대화	주요내용	이야기 구조
	담론/ 영상 약호 분석	영상, 자막	제작방식	담론 구조
신화 구조	신화 및 이데올로기적 의미 분석	관계성, 차별, 비하	의미생성	사회적 의미

(3)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모델양식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유형을 모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분석 모델 양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개요	제목	
	제작사	
	출연진	
	발표일자	
작품 요약		
장면 제시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해석	장면 1	
	장면 2	
	장면 3	
종합 의견		

3.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례 분석

(1) 대중음악 모니터링 분석

① 분석개요

대중음악에서 다문화의 재현은 다른 대중매체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문화와 관련 주제를 다루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중음악은 다문화를 다룬 사례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국내 뮤지션 중에서 이주노동자나 이주 결혼 여성자,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다룬 경우는 거의 없다. 국내 뮤지션들 중에서 이주노동자를 다룬 노래를 부른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아마도 대중음악이 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최신의 유행을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노래로 담을 수 있는 대중가수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의 영역에서 다문화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무래도 록과 힙합 장르이지만, 이 분야의 가사를 조사해보았지만, 뚜렷하게 다룬 노래들은 없다. 다만 민중가요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를 다룬 노래는 연영석의 3집 〈숨〉에서 수록된 '코리안 드림'이 거의 유일하다.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노래하는 '코리안 드림'은 청운의 꿈을 품고 돈을 벌고자 한국에 왔지만, 결국 돈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몰려 병들어 가는 어느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노래하고 있다.

대중음악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노래 속에서 재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다문화 안에서 대중음악의 역할과 위치는 중요하다. 다문화의 일상에서 대중음악이 차지하는 역할은 재현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나 결혼 이주 여성자들이 일상에서 한국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대중음악은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다문화 주체들이 내국인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일터나 가정에서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가장 쉬운 매개체가 대중음악이다. 따라서 대중음악 영역에서 다문화는 재현의 문제보다는 수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주체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대중음악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사실 대중음악에서 다문화 재현은 국내 뮤지션들보다는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결성한 밴드나 노래그룹들의 활동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중음악은 재현보다는 직접적인 수용이나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공연한 뮤지컬 "빨래"와 "아리랑 판타지"는 다문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뮤지컬 "빨래"의 OST에 수록된 곡들 중 상당한 트랙들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대중음악에서 다문화 재현에 대한 분석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을 다루고자 한다. 하나는 국내의 대중음악 뮤지션들이 다문화에 대해 다룬 노래 분석, 둘째 다문화 주체들이 스스

로 결성한 밴드들의 노래에서 재현된 다문화 주제들의 분석, 세 번째 뮤지컬에서 다문화를 다룬 작품 분석, 네 번째는 노래가 아닌 국내 뮤지션들 중에서 다문화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② 분석대상

가. 분석목록

대중음악 분야에서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과 관련된 모니터링 분석은 아래와 같은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에 재현 사례들은 모니터링 양식으로 분석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Ⅲ-2〉 다문화 대중음악 재현 분석 목록

번호	노래 제목	가수/작품	발표 년 월
1	코리안드림	연영석(3집 〈숨〉)	2006. 3.
2	베트남 아가씨	스탑크랙다운 (2집, 〈Freedom〉)	2010. 02
3	와	스탑크랙다운 (2집, 〈Freedom〉)	2010. 02
4	월급날	스탑크랙다운 (2집, 〈Freedom〉)	2010. 02
5	나 한국말 다 알아	뮤지컬 〈빨래〉	2006. 06.
6	내 이름은 솔롱고입니다	뮤지컬 〈빨래〉	2006. 06.
7	참 예뻐요	뮤지컬 〈빨래〉	2006. 06.
8	초원의 신기루	아시안뮤직앙상블(AME)	2010. 09

나. 구성형식

분석 목록표에 있는 다문화 관련 대중음악 곡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한국 국적의 가수가 다문화에 대해 노래한 곡으로 한국인의 시각에서 특히 이주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노래라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다문화에 대한 대중음악의 재현에 있어 국내 가수의 곡들은 많지가 않다. 특히 주류 대중가수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곡을 발표한 것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유형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곡을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다. 영화, 드라마, 광고처럼 다문화 주체들은 제작과 재현의 대상이지 주체가 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중음악에서는 다문화 주체들이 직접 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른다. 세 번째 유형은 뮤지컬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뮤지컬 자체가 다문화 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 공연에서 불려지는 곡 중에서 다문화의 이야기를 잘 담은 노래들을 선별했다.

③ 분석내용

가. 연영석의 〈코리안 드림〉

앞서 설명했듯이 국내 뮤지션 중에서 다문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노래들은 거의 드물다. 그 중에서 민중가요 출신 연영석의 〈코리안 드림〉은 다문화를 다룬 대표적인 노래이다. 연영석은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아픔을 오래 동안 노래에 담은 민중 가수이다. 〈코리안 드림〉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노래했다. 이 곡은 국내 가수가 이주노동자의 아픈 현실을 담은 거의 유일한 노래이다.

개요	곡명	코리안드림
	음악 장르	록
	뮤지션	연영석
	발표연도	2006년
작품 요약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 정작 현실은 최악의 노동착취와 임금연체, 폭언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록음악으로 표현
장면 제시	장면 1	가난이 싫어 고향을 등지고 나 홀로 돈 벌러 나왔어/돈 많이 벌어서 가족을 돌보고 내 꿈도 돌보고 싶었지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내 돈을 돌려주세요

	장면 2	내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여기서 도망치고 파/차가운 시선 난 그냥 일하지 난 그냥 일하고 싶을 뿐/백인도 아냐 흑인도 아냐 난 그냥 일하는 사람/나온 지 십년 내 몸이 아파 병들이 버린 몸동이/
	장면 3	그래도 또 다시 더럽고 힘든 일 내 이름 불법체류자/코리아 코리안 드림 코리아 코리안 드림
장면 해석	장면 1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게 된 보편적인 이유를 현실적으로 표현. 코리안 드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직설적으로 노래.
	장면 2	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인종 차별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표현
	장면 3	코리안 드림과 불법체류자라는 이상과 현실의 대비를 잘 표현함. 이주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노래
종합 의견	〈코리안드림〉은 이주노동자의 가장 일반적인 현실을 직설적인 가사와 풍자적인 언어로 노래하여 이주노동자와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있는 그대로 표현 노래의 메시지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영화와 드라마에 비해 대중 파급력이 미흡	

나. 다문화 이주 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은 2003년 겨울 서울 태평로 성공회교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반대 농성에 참여하게 된 게 계기가 되어 결성. 노래를 통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려 나가는 것이 밴드의 목표. “위 러브 코리아”, “친구여 잘 가시오”, “희망” 등 8곡을 담은 록 사운드 1집을 발표(2004), 2004년 말에는 박노해 시인 헌정 음반과 공연에 ‘손무덤’으로 참여. 4인조로 출발했으나 현재 라인업은 미누(보컬·네팔) 소모뚜(기타·버마) 소피하(베이스·) 꼬네이(드럼·) 해리(키보드·인도네시아) 등 5인조로 활동. 1집 〈친구여 잘 가시오〉, 2집 〈프리덤〉을 발표.

“베트남 아가씨” (2집 〈프리덤〉 수록곡)

개요	곡명	베트남 아가씨
	음악 장르	록

	뮤지션	스탑크랙다운(Stop Crackdown)
	발표연도	2010
작품 요약		베트남에서 온 여성 이주 노동자의 힘들지만 밝은 웃음을 노래하지만 결국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의 문제들을 고발.
장면 제시	장면 1	매일 시작되는 정신없는 하루하루/바쁜 출근길에 웃으면서 밝은 인사하는 그녀/희망찬 내일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장면 2	힘겨운 노동 속에 외롭고 힘든데도/미소를 잃지 않는 아가씨/휴일엔 찾아온 고향 친구들과/입에 맞는 음식에 소주잔을 부딪치며/마음을 달래는 수다/들려오는 한바탕 웃음소리/우리 옆집 아가씨
	장면 3	또 다시 찾아온 휴일 유독 조용하게 다가오네/두려워하는 말소리 박스 테이프 포장 소리/한바탕 웃음소리는 온데 간 데없이 사라지고/작업복 입은 채로 잡혀 갔다네
장면 해석	장면 1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문제보다는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표현
	장면 2	이주노동자로 온 베트남 아가씨가 일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지는 전달
	장면 3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여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는 현실에 대한 고발과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
종합 의견	실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노래로 담은 듯한, 통상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과 부조리한 노동현실을 직설적으로 노래한 것과는 달리 힘들어도 웃고 희망을 키우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럼에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부조리의 현실을 고발	

“와” (2집 〈프리덤〉 수록곡)

개요	곡명	와
	음악 장르	록
	뮤지션	스탑크랙다운(Stop Crackdown)

	발표연도	2010
작품 요약		이주노동자의 연대와 단결 희망을 긍정적으로 노래
장면 제시	장면 1	와 푸른 하늘 저 넓은 바다/너무도 자유로워 우리 모두 다/차별 없는 자유로운 멋진 세상 향해 달리자/수많은 시련 속에도 지쳐 쓰러진데 도/힘을 내어 일어나 용기 내서 일어나/아무리 이 세상이 우릴 힘들 게 하여도/힘차게 더 강하게 가는 거야/
	장면 2	와 푸른 하늘 저 넓은 바다/너무도 자유로워 우리 모두 다/차별 없는 자유로운 멋진 세상 향해 달리자/혼자 가는 것 보다 함께 가면 좋은 걸/함께 사는 이 세상 우리 삶을 위하여/아무리 이 세상이 우릴 힘들 게 하여도/힘차게 더 강하게 가는 거야/
	장면 3	와 푸른 하늘 저 넓은 바다/너무도 자유로워 우리 모두 다/차별 없는 자유로운 멋진 세상 향해 달리자 라~라~라~라~라
장면 해석	장면 1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자는 이주노동자들의 희망과 연대를 표현 자유와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장면 2	이주노동자들의 희망과 연대를 자연과 비유하여 낭만적, 긍정적으로 표현
	장면 3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다문화 현실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 제들을 밝은 사운드로 표현
종합 의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음악재현은 대체로 어둡고 침울한 사운드가 많지만, 이 곡은 밝고 경쾌한 사운드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나가자는 이주노동자들의 연대와 희망을 긍정적으로 표현.	

“월급날” (2집 프리덤 수록곡)

개요	곡명	월급날
	음악장르	록
	뮤지션	스탑크랙다운(Stop Crackdown)
	발표연도	2010
작품 요약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문제를 차분한 멜로디로 표현
장면 제시	장면 1	오늘은 나의 월급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한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돌려 준데요/나의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이제는 나의 손으로 행복하게 해 줄게요
	장면 2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사모님 내 월급을 주세요/나의 꿈과 희망이 담긴 조그맣고 소중한 내 월급/얼마 전 하얀 봉투 들고 퇴근했던 동료들/내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 말라고 말하지/자정 시간이 넘어야 나의 일이 끝나네/봉투 없는 내 월급 오늘도 보이지 않네.
	장면 3	(나에겐 좋은 날이 언제 올는지..)/오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그 동안 밀린 내 월급을 주세요/날 욕 한건 참을 수 있어요. 내 월급만은 돌려주세요.
장면 해석	장면 1	밀린 월급을 지급받는 날에 기대로 가득 찬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 걱정하고 신뢰를 보내는 것을 표현
	장면 2	열심히 일하지만 밀리는 임금 때문에 절망하는 현실에 대해 표현
	장면 3	임금체불 뿐 아니라 그것에 항의하면 욕설을 퍼붓는 고용주에게 월급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을 노래
종합 의견	임금체불이 만연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담담하게 표현.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잘 노래했지만, 임금체불, 불법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의 내면에 있는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음	

다. 뮤지컬 〈빨래〉

2005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1000회 이상 20만 명의 관객 흥행을 몰고 온 창작뮤지컬, 강원도에서 달동네로 이사 온 나영과 이웃에 살고 있는 몽고출신 이주노동자 솔롱고와의 사랑이야기. 달동네 이웃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속에 한국의 여성과 몽골의 남성이 펼치는 사랑이야기. 작품은 아기자기하고, 서민들의 일상의 풋풋함을 담고 있지만, 곡 중간 중간에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담은 노래들이 담겨 있다.

"나 한국말 다 알아"(뮤지컬 〈빨래〉 중에서)

개요	곡명	나 한국말 다 알아
	음악장르	뮤지컬
	뮤지션	김여진, 차미연, 최호중 외
	공연일자	2005년 초연-현재 공연 중
작품 요약		뮤지컬 〈빨래〉의 초반에 나오는 노래로, 필리핀 노동자 낫심이 이주 노동자를 무시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억울스러운 연기와 랩으로 노래 부르는 장면.
장면 제시	장면 1	나 한국말 다 알아/ 아파요, 돈 줘요, 때리지 마세요/ 내 이름은 낫심 인데/ 나더러 불법사람이라고
	장면 2	나 한국말 다 알아/아파요/돈 줘요/때리지 마세요
	장면 3	빨리 빨리/이 자식/저 자식/개새끼
장면 해석	장면 1	이주노동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 실제로 한국말을 잘 모르지만, 몇 마디만 하면 자신의 실제 상황을 다 이야기 할 수 있다는 풍자적인 노랫말
	장면 2	아파요, 돈 줘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세 마디 한국어가 이주노동자의 현실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안 좋은 건강상태, 임금체불, 폭행의 현실을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래
	장면 3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 중에서 악덕 업주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랩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노래.

종합 의견	통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에서 일상적인 것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을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 그들이 있는 앞에서 차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노래는 이주 노동자의 차별 혹은 비하의 현실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주노동자가 주로 사용하는 말과 고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말을 대비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

"내 이름은 솔롱고입니다"(뮤지컬 <빨래> 중에서)

개요	곡명	나 한국말 다 알아
	음악장르	뮤지컬
	뮤지션	김여진, 차미연, 최호중 외
	공연일자	2005년 초연-현재 공연 중
작품 요약		강원에서 이사 온 나영과 이웃 주민 몽고 출신 이주노동자 솔롱고가 옥상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
장면 제시	장면 1	"내 이름은 솔롱고스/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르죠/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나라/ 무지개처럼 꿈을 쫓아 여기 왔어요"
	장면 2	내 이름은 솔롱고스 /사람들은 나를 솔롱고라 부르죠/한국 사람들처럼 세 글자로/내 이름은 솔롱고
	장면 3	한국사람 만났어도/젊은 사람 만나서/이야기할 기회 별로 없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면 해석	장면 1	한국에 돈을 벌어 고국의 가정을 일으키려는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사연을 편한 감정으로 잘 표현. 무지개라는 희망의 언어와 코리아 드림이라는 목표가 잘 비교되고 있음.
	장면 2	원래 몽골이름은 네 글자이지만, 한국인들의 이름이 세 글자가 보통

		이어서 자신의 이름을 솔롱고로 줄여서 소개하는 장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을 표현.
	장면 3	이주 노동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제한되어 많은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과 모습을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젊은 한국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경우가 없는 상황을 나영과의 만남을 통해서 편하게 표현.
종합 의견	이주노동자 남성과 가난한 한국 여성사이의 사랑이야기를 통해서 다문화의 어두운 이면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음. 이 뮤지컬은 다문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뮤지컬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의 상황들이 중심 현실이 되지 않고 소재로 사용될 여지가 있음	

"참 예뻐요"(뮤지컬 〈빨래〉 중에서)

개요	곡명	나 한국말 다 알아
	음악장르	뮤지컬
	뮤지션	김여진, 차미연, 최호중 외
	공연일자	2005년 초연-현재 공연 중
작품 요약		몽골 총각 솔롱고가 한국인 처녀 나영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장면 제시	장면 1	참 예뻐요/내 맘 가져간 사람/가을 밤 잠 못 드는 사랑 가져간 사람/ 짧게 웃고 길게 우는 사랑 준 사람
	장면 2	꼭 한번만 내가 말을 걸어준다면/꼭 한번 만 웃는 얼굴 보여준다면/ 꼭 한번만 내민 손을 잡아 준다면
	장면 3	들리나요 내 마음 외치는 소리/보이나요 내 두 눈에 흐르는 눈물/느끼나요 타 버릴 것 같은 내 심장
장면	장면 1	이주노동자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젊은 청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해석		감정을 잘 표현한 구절로 나영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함에 대해 공감하는 장면
	장면 2	사랑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
	장면 3	솔롱고의 진실 된 사랑의 감정을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잘 표현한 부분으로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지만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사랑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음.
종합 의견	이주노동자 남성과 가난한 한국 여성사이의 사랑이야기를 통해서 다문화의 어두운 이면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음. 이 뮤지컬은 다문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뮤지컬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의 상황들이 중심 현실이 되지 않고 소재로 사용될 여지가 있음	

라. 다문화의 문제를 다룬 그 밖의 음악 재현 사례들

다문화와 관련된 대중음악은 다른 매체에 비해 재현이 부족하지만, 음악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결성한 두 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팀은 개별 노래와 연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보다는 음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먼저 다국적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노래그룹 <몽땅>이다. 2011년 4월 사회적 기업 노리단과 사단법인 씨즈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후원을 받아 만든 ‘몽땅’ (montant)은 한국인과 미얀마, 필리핀, 티벳, 중국, 미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으로 결성되었다. ‘스탑 크랙다운’의 리더 소모뚜가 참여하여 다국적 음악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가수 인순이가 예술 감독으로 함께하며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 인천국제공항청사 공연장에서 첫 공연을 한 뒤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그룹이다.



다문화 노래단 〈몽땅〉

다음으로 다국적 전통음악 앙상블 그룹인 “아시아 뮤직 앙상블” (AME)이다. 한국에 유학 온 아시아 전통음악 전공자들이 2010년에 결성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아마장학생(AMA),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 유학 온 학생 등이 모여서 결성했고,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 ‘천차만별’ 콘서트에 참가하였다. 악기구성은 담보우(베트남), 마두금(몽골), 여칭(몽골), 대금(한국), 타악(한국)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연주곡으로는 〈초원의 신기루〉, 〈아리랑〉, 〈이몽공감〉 등이 있다.



아시아뮤직앙상블(AME)

다음으로 결혼 이주여성을 주인공으로 만든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이다. 〈아리랑 판타지〉는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한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뮤지컬 스타 역에 최정원, 노래강사

역에 가수 배기성이 출연한다. 극중 여주인공 이자벨(치리쉬 마닝얏)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한국에 시집 온 필리핀 며느리로, 보수적인 시어머니(김말순)의 갖은 구박과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9살 난 딸 보리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여성으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를 대변하여 어려움과 고민을 보여준다. 2011년 6월~9월 전국 28개 지역 56회 공연을 통해서 총 관객 42,830명이 관람했고, "2011년, 2012년 2년 연속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문화제작공연 선정", "2012년 제 6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막작 선정" 되기도 했다.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

마. 대중음악에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최근 이슈 분석

케이팝이 전 세계에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케이팝 가수들의 일상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해외 언론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케이팝을 온라인을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해외 팬들은 노래 뿐 아니라 케이팝 가수들의 사생활과 이들이 미디어에 출현해서 행한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많은 팬들은 각자 고유한 인종과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케이팝 스타들이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2009년 1월 미국의 한 연예뉴스 전문 매체("Jezebel": 제제벨)는 "K팝과 흑인분장,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남성 아이돌 그룹인 '비스트'와 여성 소울 그룹 '버블 시스터즈'가 한 흑인 분장 사진을 싣었다. 이 매체는 "K팝이 세계의 시선을 끌면서, 사람들은 이들 그룹의 모든 것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인종차별(racism)에 대한 불쾌한 형상화, 성대모사, 흉내 내기 등을 발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매체는 '소녀시대'의 리더인 태연이 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흑인 가수 엘리샤 키스(Alicia Keys)에 대해 "흑인치고는 예쁘다"고 발언한 것과, 또 다른 멤버 유리가 흑인을 흉내 낸다며 과장된 몸짓과 함께 "Yo, You Die(넌 죽었어)"라고 말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도 함께 소개했다.

이 기사를 접한 외국인 흑인 네티즌들은 케이팝 가수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케이팝 가수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비판적인 댓글을 실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2년 2월 말에 MBC의 오락프로그램인 세 바퀴에서 여성코미디언 김지선, 이정실씨가 설 특집 행사에 만화영화 <둘리>에 등장하는 마이콜과 같은 흑인분장을 하고 '신토불이'를 부른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일부 흑인 케이팝 팬들이 전형적인 인종차별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불만을 터뜨려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반대로 미국 뮤지션이 한국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랍퍼인 아이스 큐브(Ice Cube)는 1991년 발표한 <죽음의 보증수표>(Death Certificate)라는 앨범에 '블랙코리아'(Black Korea)라는 노래를 실었는데, 이 노래는 같은 해 4월에 있었던 LA 흑인폭동에 큰 피해를 입은 한인을 인종차별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 노래는 도입부에 스파이크 리(Spike Lee) 감독의 영화 "do the right thing"에 나오는 LA 폭동 장면이 나온다. LA폭동에서 죽은 한 어린아이가 라디오를 들고 나니다 밧데리가 떨어져 한인 가게에 들러 밧데리를 사로 갈 때 흑인 어린아이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스 큐브의 랍 가사는 이후에 등장하는데, 가사 대부분이 LA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 대한 욕설과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가사 일부이다.

Everytime I wanna go get a fuckin brew/I gotta go down to the store with
the two/ Oriental one-penny countin motherfuckers/That make a nigga
made enough to cause a little ruckus/Thinkin every brother in the world's
out to take/So they watch every damn move that I make/They hope I don't
pull out a gat and try to rob/They funky little store, but bitch, I got a
job/

내가 맥주 한 캔 마시고 싶을 때/나는 동양인 두 명이 운영하는 그 가게로 가야
돼...X새끼들/개네는 흑인들이 작은 소동을 일으킬 만큼 열 받게 만들지/그들은
우리 흑인들이 모두 물건이나 훔치는 놈들이라 생각하고/내 빌어먹을 움직임 하나
하나를 관찰하지/내가 총을 꺼내서 자기들의 냄새나는 조그만 가게를/털지 않기를
바라면서/근데 미친년아, 나도 직업이 있다구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국의 흑인 랍퍼들의 인종차별적인 가사들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케이팝 가수들의 발언은 그에 비하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적인 관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케이팝 가수들이나 한국 연예인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국내 미디어 재현 환경에서는 그동안 큰 문제를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케이

팝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고, 국내에서 다문화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음악에서의 인종차별적인 가사나 뮤지션들이나 연예인들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연예제작사나 방송, 언론,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다문화 시대에서 대중연예인들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정보전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방송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사례가 높아진 만큼 국제적 환경에 걸 맞는 방송 제작 관련 안내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해 졌다.

④ 총평

대중음악에서 다문화 재현은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매체와 다르게 다문화 주체들이 직접 재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노래들은 다문화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직시하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다문화 주체들이 직접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의 문제를 다문화 주체들이 직접 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도 미디어 재현에 있어서 다문화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시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다문화의 문제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뮤지션들의 관심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중음악의 동시대의 가장 전위적인 문화유행을 담고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인식이 부족하다. 드라마, TV 오락 교양프로그램, 영화, 광고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재현하려는 반면에 대중음악은 주로 비주류 인디뮤지션이나, 이주노동자 밴드들이 다문화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다문화와 관련된 대중음악의 노래와 가사들은 다문화의 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노래들은 특정한 이주노동자들을 비하하거나 왜곡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직설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노래는 자신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돋보인다. 따라서 모니터링 분석의 방향도 다문화 주체의 시각에서 노래의 재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뮤지컬의 경우에는 노래만을 분석하기보다는 노래와 연기 장면을 함께 고려해서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와 관련된 뮤지컬이 소재주의를 넘어 다문화의 문제를 내밀하게 담기 위해서는 제작진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태도와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중음악 분야도 앞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담은 노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의식의

공유와 음악적 재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2) 영화 모니터링 분석

① 분석개요

영화 장르로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국내에서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탈북자, 조선족을 다룬 극영화의 장르로 삼고 극전개 내 논의의 중심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부터 보인다. 불과 10여년이 좀 넘는 셈이고, 전체 편수로 따져보니 2012년 3월 현재 한 40여편이 좀 넘는 숫자다. 탈북자의 삶을 그린 영화를 빼고, 이주여성의 문제를 처음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영화는 <파이란>(2001)이다. 이를 시작으로 다문화 소수자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서서히 등장해 최근에는 다문화 자체를 극의 메인 주제로 하여 제작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다문화가 한국영화의 중심 테마로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는 영화제작자나 영화감독의 콘텐츠 생산자적 입장에서 이전보다 더욱 더 책임감있는 문화상품 생산의 덕목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후 소개되는 다문화 영화의 몇 가지 표본들과 그에 따른 분석들은, 2000년대 이후 영화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다문화의 모습들을 살핀다. 초점은 제작에서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긍정적 유형으로는 공감, 소통 평등, 갈등해소, 공존의 하위 토픽과 영역을 살피고, 부정적 유형에서는 차별, 왜곡, 편견, 비하 등의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② 분석대상

가. 다문화 영화목록 아카이브 (1999~2012. 3.)

본 영화 모니터링 작업은 2012년 3월까지 나온 국내 영화들의 목록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총 40여편의 다문화관련 영화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했고, 부록에 소개된 영화 리스트에서 세부주제 항목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탈북자, 조선족 등의 다문화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들을 확보하였다. 적어도 2012년 초반까지 국내 개봉 혹은 상영된 다문화 영화의 대부분 95%이상을 아래 리스트는 보여주고 있다. 40편 국내 다문화 영화의 소재면에서, 탈북자와 새터민을 다룬 영화는 총 13여편, 이주여성이 16편, 이주노동자가 16편, 조선족 이슈가 10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다문화 소재에서 겹치는 부분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탈북자, 조선족 순으로 2000년대 이후 국내 영화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부록: 다문화 소재 영화목록 참고).

2000년 이전에도 한국영화계에서 그동안 간간히 탈북 가족의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나오곤 했다. 허나 대단히 주변부적인 소재거리로만 다루어졌고, 1999년에 독립영화 〈만수야 그동안 잘 있었느냐〉 류의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분단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2000년대 말에는 탈북자와 조선족의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 분석목록

본 영화 모니터링 작업은, 2012년 3월까지 나온 국내 영화들의 목록 총 40여편 중 7편에 등장하는 장면 들을 분석하였다. 7편 모두 국내영화속 다문화 소재에 해당하는, 조선족, 탈북자, 이주여성과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 국적을 서로 달리하는 선택을 하는 영화들을 선별하려 했다.

〈표Ⅲ-6〉 다문화영화 재현 분석 목록

번호	영화제목	다문화 주요소재	개봉년월
1	파이란	이주여성(조선족)	2001. 4.
2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	이주여성(베트남)	2004. 1.
3	반두비	이주노동자 (방글라데시)	2009. 6.
4	로니를 찾아서	이주노동자 (방글라데시)	2009. 6.
5	세리와 하르	이주노동자/이주 자녀(베트남, 필리핀)	2009. 7.
6	방가방가	이주노동자(동남아)	2010. 9.
7	시선너머	탈북가족/이주여성(몽골)/이주노동자(필리핀)	2011. 4.

다. 구성형식

선별한 7편의 국내 극영화들은 장르적 특성들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형식에 있어서 단편영화(〈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와 옴니버스 스타일의 〈시선너머〉를 제외하고, 대체로 일반 극영화의 러닝타임 1시간 30여분 정도의 스토리 전개 속에 다문화의 이슈들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5-7 장면들을 각각 분석하였다.

극영화는 다른 형태의 미디어 장르, 특히 오락이나 다큐 등과 달리 의도적으로 제작자나 감독이 특정 장면에서 부정적 묘사를 하여 관객의 몰입이나 각성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부정적 요소를 극대화하여 표현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허나 감독들이 구사하는 특정 장면의 다문화적 장치들이 의도성을 갖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모니터링 방식과 동일하게, 표면에 드러나는 긍정적/부정적 묘사가 가진 표상적 재현과 그것의 숨은 의미 즉 함의와 효과를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영화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다른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의 맥락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장면들을 샘플링하여, 그 재현방식과 내포된 함의를 보는 식으로 전개한다.

국내영화 〈파이란〉, 〈반두비〉, 〈로니를 찾아서〉, 〈세리와 하르〉의 분석 경우에는, 내용분석에 더해 다문화 구성원 전문가 인터뷰, 특히 국내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인터뷰 의견이 덧붙여졌다. 주로 국내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특정 다문화 영화 장면에 대한 소감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부록 다문화구성원 전문가 인터뷰 참고.)

③ 분석 내용

가. 영화 〈파이란〉 (2001)

영화 〈파이란〉은 이주여성의 초창기 묘사를 시도했던 대표적 국내 영화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따져 보면 다문화가 이 영화의 전체 소재적인 측면을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야기 구성상 당시 한국 사회에 합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중국내 이주여성들이 어떤 지위로 한국사회에 입국해 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비참한 삶을 유지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당시 다문화 초창기 정서를 경험하는데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국인들과 조선족 당사자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주여성, 파이(장백지 분)의 불운한 최후(각혈과 폐병으로 한국에서 사망, 그리고 사망전 한국에 이주를 위해 자신의 호적상 남편인 강재를 그리워하는 비논리적 장면) 등 대단히 감독의 플롯구성 자체에 대해 비현실적이란 문제제기를 할 정

도로 논란이 일었던 영화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주여성으로 시골구석에서 폐병으로 죽어간 파이란의 모습은 당시 이주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 인권문제 등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Ⅲ-22] 재현방식



출처: 영화 <파이란> 중 캡처 내용

- 장면설명

장면 1	영문도 모른 채 강원도의 한 시골 세탁소에 맡겨진 후 순종적이고 부지런히 일만 하는 '인간세탁기' 파이란
장면 2	세탁소 다림질 중 파이란의 각혈
장면 3	강재에게 보내는 파이란의 죽기 전 병실 편지 낭독내용
*장면 4	파이란의 입국심사 장면

*다문화 구성원 심층인터뷰 수행 (2012. 9. 13.), 부록 참고.

장면 1 (부정적 유형 - 문화 편견):

대체로 <파이란>의 중요 다문화 관련 장면들은 부정적 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 이주여성인 파이란은 한국이란 낯선 곳에 정주하며 어디에서든 항상 노예적이고 저자세를 보여준다.(장면 1) 즉, 태도에서는 노예적 모습, 낯선 곳에서의 긍정적 삶, 일상의 부지런함, 조선시대 여성에서나 볼 수 있는 면식도 없는 남편에 대한 애착, 객지에서 죽을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객의 온정을 끌어내기 위한 코드로 활용한다. 중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장면들이기도 하다. 이는 대체로 조선족, 북한 탈주민들을 대단히 순종적이고 자본주의에 물들지않은 시골처녀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재현하려는 감독들의 본능 때문으로 사료된다.

장면 2 (부정적 유형 - 성 차별):

장면 1과 연관해보면 동정심을 유발하고 전통적인 측은감을 유발하는 최악의 코드로, 파이란의 객지에서 각혈 등 ‘질병’과 사망을 집어넣고 있다. 낯선 이국땅 한 외진 어촌동네에서 법적으로만 남편인 강재를 몰래 사랑하며 기다리고 결국 세탁소에서 일하다 폐렴으로 숨지는 설정은, 이주여성의 성적 온순성 혹은 체념을 극대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장면 3 (부정적 유형 - 국가 편견):

한국인들의 국가 편견이 들어있는 대목이다. 대체로 이주 여성이나 노동자의 글씨체가 마치 초등학교생이 쓴 것처럼 서툴게 묘사. 실제 그들의 의식수준이나 삶의 수준이 이와 같은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성차별과 문화편견의 코드가 동시에 작동한다. 즉 편지 내용 중 단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던 강재를 좋아했다는 고백, 강재의 아내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죄송하다는 편지 내용은 너무 억지스럽고 비약이 크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낯선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순종적으로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면 4 (부정적 유형 - 인종 차별):

중국으로부터 선박항해를 통해 들어온 파이란을 국내 입국심사관이 안경너머로 고압적으로 지켜보는 모습은 전형적인 인종차별의 장면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에 있어 입국심사관의 경우 대단히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파이란의 표정은 마치 죄를 짓고 자백을 받는 취조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중국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을 감독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다문화 구성원 전문가인터뷰에서 대체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영화 보면, 옛날 생각나요. 처음 한국 왔을 때 공항에서 문제 생겼는데 한국어와 영어 다 부족해서 4시간 잡혀있었네요” 김수현 (인도네시아), “제가 입국하는 날이 생각나네요” (마웅저, 미얀마) 등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와 같은 <파이란>의 장면이 본인들이 공항 출입국에서 당했던 고압적이고 ‘탄압적 시선’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진술한다. 부정적 유형으로서 장면4가 의도된 기제로 감독이 쓰고 있다면, 나머지 영화 <파이란>의 플롯을 구성하는 장면들은 여성 성차별, 문화적 편견, 국가 편견이 섞여 있는 억지 설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이란〉 분석표

개요	제목	파이란
	등급 및 장르	[국내] 15세 관람가, 멜로/애정/로맨스, 드라마
	주요 출연진	최민식(강재), 장백지(파이란)
	방영/상영일자	2001-04-28
작품 요약		인천에서 3류 양아치로 전전하던 강재(최민식 분). 불법 테이프를 유통시키다가 걸려 열흘간의 구류를 살다 돌아올 만큼 보잘 것 없는 삼류건달이다. 그래도 고향에 배 한 척 사 가지고 돌아갈 소박하고 부질없는 꿈을 꾸는 강재. 오락실을 방황하며 인형뽑기 오락에만 열중하는 것이 그의 일과. 어느날 보스이자 친구인 용식이 살인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갈 것을 강재에게 화유한다. 자신의 꿈인 배 한 척과 남겨진 인생의 전부를 맞바꿔야 하는 강재. 그런 그에게 파이란(장백지 분)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인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된다. 강재는 중국 이주여성으로 한국에서 자신을 호적상 남편삼아 시골구석에서 폐병으로 죽어간 파이란을 그리워한다.
장면 제시	장면 1	영문도 모른 채 강원도의 한 시골 세탁소에 맡겨진 후 순종적이고 부지런히 일만 하는 '인간세탁기' 파이란
	장면 2	세탁소 다림질 중 파이란의 각혈
	장면 3	강재에게 보내는 파이란의 죽기 전 병실 편지 낭독내용
	장면 4	파이란의 입국심사 장면
장면 해석	장면 1	비현실적이고, 낯선 곳 어디에서든 이주여성의 항상 노예적이고 저자세를 온정을 강조하기 위한 코드로 활용. (태도에서는 노예적 모습, 낯선 곳에서의 긍정적 삶, 일상의 부지런함, 조선시대 여성에서나 볼직한 면식도 없는 남편에 대한 애착, 객지에서의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 등).
	장면 2	장면 1과 연관해보면 동정심 유발, 전통적인 측은감을 유발하는 코드로 '질병' 과 사망, 여주인공의 순종성 강조. 낯선 이국땅 한 외진 여촌동네에서 법적 남편을 몰래 사랑하며 기다리고 결국 세탁소에서 일하다 폐렴으로 숨지는 설정이 대단히 비현실적.
	장면 3	편지 내용 중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던 강재를 좋아했다는 것, 강재의 아내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죄송하다는 편지 내용, 너무 억지스러움, 죽음에 이르러서도 낯선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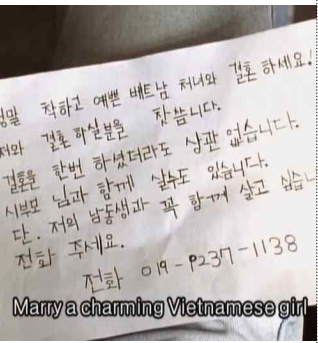
		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순종적으로 이국에서 세상을 떠남.
	장면 4	중국으로부터 선박항해를 통한 국내 입국심사관이 안경너머로 파이란을 고답적으로 지켜 보는 모습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에 있어 그조차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파이란의 표정은 마치 죄를 짓고 자백을 받는 취조실 분위기를 연출. 중국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을 감독이 잘 표현.
종합 의견		- 여주인공인 이주여성, 파이란을 순백의 천사표형 인간으로 설정. 비합리적 상황 설정이 여기저기 보임. - 이주여성의 보편적 인간다움이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일반적 반응을 그리기 보다는 그녀를 극단적 온정과 동정의 대상화하는 경향.

나. 단편영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2004)

베트남 이주여성의 문제를 다룬 다문화 초기작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는 15분 정도의 저예산 단편영화이다. 지하철을 탄 기남이 베트남 결혼 전단지를 통해 베트남 처녀 아미나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려지는, 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을 다룬 이야기이다. 러닝타임이 짧지만 다문화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기남이는 아버지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미나이를 만난다. 하지만 기남이가 아미나이를 좋아하게 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녀와 결혼식을 올린다. 그 와중에 기남이와의 만남은 그나마 젊은 상대와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잠깐 들게 했으나, 결국 아미나이의 기남 아버지와의 결혼으로 그 자신의 희망마저 꺾인다.

다문화 영화의 일반적 상황 전개와 달리 아버지와 아들간 이주여성을 아내 혹은 애인으로 삼기 위해 이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영화의 주요 흐름을 이어간다. 이 속에서 특징적으로 다문화 쟁점을 담은 영상을 선별해 유형분석을 수행해왔다.

[그림 Ⅲ-23] 재현방식

영상 1	영상 2	영상 3
		
편견(국가)	소통(인격)	갈등해소(가족)

출처: 영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중 캡처 내용

- 장면설명

장면 1	아미나이가 직접 쓴 결혼 전단지 장면
장면 2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플래카드를 찢는 기남이 분노 장면
장면 3	기남 아버지와 아미나이가 식을 올리는 장면

장면 1 (부정적 유형 - 국가 편견):

오죽했으면 베트남 처녀가 직접 지하철을 돌며 결혼 전단지를 돌릴까하는 한국적 사회 상황을 전달, 게다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의 글씨체로 적어내려간 '구걸식' 글씨들에 연민이 들게끔 한다. 이 영화의 전단지는 <파이란>에서 봤던 파이란의 죽기 전 필체와 대단히 비슷하다.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한국적 편견을 잘 보여주는 전단지이다. 아미나이는 병든 동생을 위해 국제결혼 전단지를 돌리며 누구에든 팔려가길 원하는 위치에 놓인다. 감독마저 초창기 다문화 이주여성을 바라보던 시각과 설정은 마치 구걸하는 이들과 그들의 국가에 대한 연민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장면 2 (긍정적 유형 - 인격 소통):

아버지를 위해 아미나이를 양보해야 한다는 분노에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 광고 플래카드를 찢고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인해 나이가 많거나 아프거나 한 이와 결혼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랑없이 국제결혼을 올리려는 아버지에 대한 모순된 아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려 한 듯하다. 기남이의 분노가 그녀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자신과의 사랑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면, 아미나이에 대한 다문화 주체로서 평등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는데 대한 좌절로 봐도 좋아 보인다.

장면 3 (긍정적 유형 - 가족 갈등해소):

기남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에게 아미나이를 양보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해소로 보이지만, 감독 스스로도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종의 모순(아버지-아들대 아미나이의 삼각관계)의 봉합적 성격이 강해 보임.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그의 모습에서 부정적 뉘앙스를 느끼지만, 불안정한 봉합의 수준에서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해소는 이뤄진 듯 보인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는 동남아시아 지역 이주여성의 한국내 결혼 패턴을 정형화해 보여주고 있다. 즉 아버지와 기남이의 보이지않는 갈등 상황은 기실 애정없는 결혼의 과정을 기남

이의 갈등이란 요소를 넣어 단순화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삶의 단면을 대단히 불우한 동정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 분석표

개요	제목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감독: 이미랑)
	등급 및 장르	15세 관람가, 드라마
	주요 출연진	김기남(기남 역), 강민선(아미 나이 역, 베트남 이주여성), 신철진(기남 아버지)
	방영/상영일자	2004-01-01
작품 요약		
		15분 정도의 저예산 단편영화. 지하철을 탄 기남이 베트남 결혼 전단지를 통해 베트남 처녀 아미나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려지는, 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을 다룬 이야기. 기남이는 아버지의 여자로 아미나이를 만난다. 하지만 기남이가 아미나이를 좋아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녀와 결혼식을 올린다. 그 와중에 기남이와의 만남은 그나마 젊은 상대와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잠깐 들게 했으나 결국 기남 아버지와와의 결혼으로 그 희망마저 꺾인다.
장면 제시	장면 1	아미나이가 직접 쓴 결혼 전단지 장면
	장면 2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플래카드를 찢는 기남이 분노 장면
	장면 3	기남 아버지와 아미나이가 식을 올리는 장면
장면 해석	장면 1	한국적 현실을 잘 보여주는 전단지. 아미나이는 병든 동생을 위해 국제결혼 전단지를 돌리며 누구에도 팔려가길 원하는 위치에 놓인다. 오죽했으면 베트남 처녀가 직접 지하철을 돌며 결혼 전단지를 돌릴까하는 한국적 사회 상황을 전달, 게다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의 글씨체로 적어내려간 ‘구걸식’ 글씨들에 연민이 들게끔 한다.
	장면 2	아버지를 위해 아미나이를 양보해야 한다는 분노에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 광고 플래카드를 찢고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인해 나이가 많거나 아프거나 한 이와 결혼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랑없이 국제결혼을 올리려는 아버지에 대한 모순된 아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려 한 듯하다.
	장면 3	결국 기남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에게 아미나이를 양보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그의 모습을 보인다.
종합 의견	이주여성의 결혼 패턴을 정형화해 보여주면서, 애정없는 결혼의 과정을 기남이의 갈등이란 요소를 넣어 단순화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삶의 단면을 대단히 불우한 동정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를 지닌다.

다. 영화 〈반두비〉 (2009)

앞서의 두 영화, 〈파이란〉과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와 달리 2000년대 말경이 되면, 다문화를 중심 소재로 한 극영화가 극장 대중화하는 시기가 온다. 당시 〈반두비〉는 다문화 인식에 큰 공을 세운 영화이자 이때부터 붓물처럼 다문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반두비〉를 위시하여 이후에 다룰 〈로니를 찾아서〉 (2009), 〈세리와 하르〉(2009), 〈방가방가〉 (2010) 등이 이후에 등장한 다문화를 전문화해 보여준 영화들이다.

여기서 소개할 〈반두비〉는 소재면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와 국내 한 젊은 소녀와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 이전의 측은감, 동정, 연민 등에 기반한 다문화 접근과는 상당한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문화 소재의 국내 영화 가운데, 긍정적 재현과 함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영화로서 특징적이다. 이후 〈반두비〉의 분석은 긍정적 유형과 부정적 유형의 장면과 해석을 양분하여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Ⅲ-24] 재현방식1 (긍정적 유형)



출처: 영화 〈반두비〉 중 캡처 내용

- 장면설명

* 장면 1	카림의 식사준비와 민서와의 식사 장면
--------	----------------------

장면 2	카림의 종교의식 장면
장면 3	지하철 - 민서가 카림의 때 색깔을 묻는 장면

*다문화 구성원 심층인터뷰 수행 (2012. 9. 13.), 부록 참고.

장면 1 (긍정적 유형 - 문화 공감):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기서는 방글라데시의 고유한 음식 습관에 대한 문화공감을 확인하는 장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카림(오른쪽)이 고유의 방글라데시 음식을 준비해 상을 차려 함께 식사하고 있다. 카림은 손으로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은서(오른쪽)와 고향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다문화 구성원 심층인터뷰에서 김수현(인도네시아 이주여성)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를 이해시키는 남자의 태도가 좋” 다고 말한다. 마웅저(미얀마 출신 활동가) 또한 “가까운 한국인[은서]에게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평가한다. <반두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대해 다문화의 ‘고유 음식’을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에서는 카림이 오른손으로 식사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지역을 소개, 민서도 그와 정서적 공유를 느끼게 된다. 이주 노동자가 카림이 만들어 제공하는 식사자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영위하는 둘 간의 정서적 교감의 핵심적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엔딩 장면에서 은서가 카림을 본국으로 떠나보낸 후 그 스스로 방글라데시 식당에서 손으로 식사하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둘간의 정서적 공감/교감을 전통 음식을 통해 표상화하고 있다.

장면1에도 한계가 있는데, 은서가 음식을 먹으면서 동남아음식의 주식인 ‘난’ 을 장난삼아 카림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그들에게 굉장히 불경한 행동인데, 마치 밥상에서 밥알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 이상의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행위로 방글라데시 문화에서 취급한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감독이 좀 더 깊이 파악해야할 다문화 이해의 지점을 놓치고 만 ‘문화 몰이해’ 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작자의 궁극적 정서는 이 보단 상대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긍정적 유형이 더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장면 2 (긍정적 유형 - 종교 공감):

대체로 이주노동자들의 종교의식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는 경향이 많으나, 영화 <반두비>는 이주노동자 카림의 배경이 되는 나라의 종교, 언어사용 등에 좀 더 세세한 관찰에 신경 쓰고 있다. 어찌 보면 플롯의 전개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야기 전개를 느리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는 종교적 의례행위를 감독은 진지하게 이주노동자 카림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다문화내 국가에 대한 종교적 특성에 대한 나름 이해를 도모한 장면으로, 다른 국내 다문화 영화에서 잘 등장하지않는 상당히 긍정적 유형

에 속한다.

장면 3 (긍정적 유형 - 인종 평등):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민서와 카림을 안보는 척하면서 힐끗 보는 내국민들의 편견과 시선을 재밋게 처리하고 있음. 그러면서 은서가 카림의 몸에서 나오는 때 색깔을 묻자 카림은 “너랑 때 색깔이 같다”고 대답한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피부색 등 인종적 이해와 관련해 중요한 평등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Ⅲ-25] 재현방식2 (부정적 유형)



출처: 영화 〈반두비〉 중 캡처 내용

- 장면설명

장면 4	편의점 점원, 로또 사러 온 술 취한 실업자, 그 둘의 싸움을 말리던 카림
장면 5	미국인 영어교사 하인즈와 카림의 만남 장면
장면 6	카림이 결국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겨 사업주 앞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불공정 노예 계약을 쓰는 장면

장면 4 (부정적 유형 - 인종차별):

시급받는 편의점 직원, 그리고 실직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카림이 경찰서에 잡혀가 되려 다른 이들이 그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황은 어처구니없이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묘사하고 있으나, 감독은 나름대로 사회 약자들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긍정적 코드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사회적 약자로 묘사되는 비정규직, 실업자,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조차, 경찰서에서

자백시 이주노동자 카림을 다들 배신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하층 계급 지형에 조차 끼지 못하는 ‘언더클래스’로서 국내 이주노동자 신세를 함축한다.

장면 5 (부정적 유형 - 인종차별):

대체로 다문화 상황을 다루는 국내 영화들은 한국인과 이주민과의 충돌과 마찰 상황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장면에선 백인-유색인(다문화) 이주노동자들의 한국내 인종적 차이와 한국민을 통해 투영되는 인종차별과 인종주의, 혹은 한국내 그들간 인종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음. 즉, 앵글로색슨 계열의 한국 생활을 즐기는 미국인 영어교사에 비해 이주노동자 카림의 주눅 든 대조적 모습을 통해 한국에서의 인종간 불평등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다.

장면 6 (부정적 유형 - 계급차별):

이주노동자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고용주와 불법노동자의 계약서 작성시 대단히 일반적인 불평등 계약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문화 구성원들이 카림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불공정 노예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조건을 잘 묘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 유형과 마찬가지로 영화 〈반두비〉에는 다문화를 형상화하는 장면들에서 긍정적 유형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감독은 현실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온정주의 보다는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몇 가지 코드들(음식, 종교, 피부색 등)을 잘 배치하고 있다. 비록 난을 던지는 장면 등 다문화 상황에서의 음식 공감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인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반두비〉 분석표

개요	제목	반두비 (감독: 신동일)
	등급 및 장르	[국내] 청소년 관람불가, 드라마, 멜로/애정/로맨스
	주요 출연진	마뽀 알엄 펄럽(카림 역,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청년), 백진희(민서 역, 여고생), 이일화(은주 역), 박혁권(기흥 역)
	방영/상영일자	2009-06-25
작품 요약		전에 일하던 곳에서 못받은 1년치 월급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카림, 엄마가 단란주점에서 몸을 파는 고등학생 민서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 결국은 돈을 받지 못하고 불법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체류, 본국의 부인(트리샤) 이혼 통보. 그러던 사이 민서와 카림은 서로 좋아하게 되나, 카림은 결국 합법 이주노동 기간을 넘기면서 강제추방 당함.

		
장면 제시	장면1	카림의 식사준비와 민서와의 식사 장면
	장면2	카림의 종교의식 장면
	장면3	지하철 - 민서가 카림의 때 색깔을 묻는 장면
	장면4	편의점 점원, 로또 사러 온 술 취한 실업자, 그 둘의 싸움을 말리던 카림
	장면5	미국인 영어교사 하인즈와 카림의 만남 장면
	장면6	카림이 결국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겨 사업주 앞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불공정 노예 계약서를 쓰는 장면
장면 해석	장면1	카림이 고유의 방글라데시 음식을 준비해 상을 차림. 카림이 오른손으로 식사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지역을 소개, 민서도 그와 정서적 공유를 느낌. 타국민이 만들어 제공하는 식사 자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영위하는 둘간의 정서적 교감의 핵심적 코드로 작용. 정서적 공감/교감을 전통 음식을 통해 표상화.
	장면2	대체로 이주노동자들의 종교의식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는 경향이 많으나, 이 영화는 이주노동자 카림의 배경이 되는 나라의 종교, 언어사용 등에 좀 더 세세한 관찰에 신경 쓰는 흔적을 보이고 있다.
	장면3	낮선 이방인에 대한 내국민들의 편견과 시선을 재밋게 처리, 민서가 카림의 때 색깔을 묻자 카림은 너랑 때 색깔이 같다고 대답. 피부색 등 인종적 이해와 관련해 중요한 평등적 의미 전달
	장면4	시급받는 직원, 실업자 싸움 말리다 카림이 경찰서로 가 피해당하는 상황. 상황은 어처구니없이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묘사하고 있으나, 감독은 나름대로 사회 약자들의 공통의 유대 관계를 표현하는 긍정적 코드로 사용. 하지만 다 같은 사회적 약자로 묘사되는 비정규직, 실업자에서 조차, 경찰서에서 자백시 이주노동자를 배신하는 상황 설정이 보여짐
	장면5	대단히 특이한 상황. 대체로 한국인과 이주민과의 충돌과 마찰 상황이 대부분이었으나, 예선 백인/유색인 이주노동자들의 한국내 인종적 차이와 그들간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음. 즉, 한국 생활을 즐기는 미국인 영어교사에 비해 카림의 주눅 든 대조적 모습을 통해 한국에서의 인종간 불평등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음.
	장면6	대단히 일반적인 불평등 계약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임. 카림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불공정 노예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조건을 잘 묘사.
종합 의견	부정적 유형보다는 긍정적 유형이 대다수. 현실의 다문화 상황에 대한 온정주의 보다는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몇가지 코드들(음식, 종교, 피부색 등)을 잘 배치하고 있음	

라. 영화 <로니를 찾아서> (2009)

영화 <로니를 찾아서>가 이전 개봉된 다문화 관점의 국내 영화들과 지니는 차이는, 코미디 장르와 다문화 소재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영화의 성공을 기회로 <방가방가>(2010), <완득이>(2011) <파파>(2012) 등 대중 관객을 대상으로 한 코미디 장르형 다문화 영화들이 계속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

다문화와 코미디의 결합은, 다문화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패러디 형식을 차용해 관객에게는 대단히 긍정적 미디어교육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을 지닌다. 예를 들어, <로니를 찾아서>에서는, 내국민의 가상의 위협 혹은 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설정해 그에 헛발질하는 한국인(토착민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희화화해 잘 그려내고 있다. 재현되는 방식은 부정적이나 대단히 긍정적 다문화 교육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게다가 방글라데시 청년으로 출현하는 극중 투한의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 같은 배역의 소화는 긍정적 미디어 교육효과를 더욱더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분석대상에는 전반적인 코미디적 정서 요소와 달리, 여러 장면들에서 부정적 유형의 재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Ⅲ-26] 재현방식



출처: 영화 <로니를 찾아서> 중 캡처 내용

- 장면설명

* 장면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창단과 인호와 동네주민들의 자율방범 활동. 단속한다고 로니의 액세서리 좌판 뒤집는 장면
장면 2	술 먹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시비 술주정, 싸움장면
장면 3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 후 뚜힌이 빌딩에서 추락해 다리를 다친 장면

*다문화 구성원 심층인터뷰 수행 (2012. 9. 13.), 부록 참고.

장면 1 (부정적 유형 - 계급 차별):

안산시 자율방범대원들의 거리 단속 장면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단속장면인데, 이 장면은 다문화 폭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분류상 부정적 유형 중 다문화 구성원들의 노동과 그들의 계급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고,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인 로니에게 폭거를 행사하는 계급 차별과 폭력에 해당한다. 자율대원들은 로니(방글라데시 청년,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액세서리 좌판을 뒤집고 구타하고 있다. 주위를 지나는 여러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나 그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안산 등 지역민, 경찰 등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가상화된 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희화해 보여줌으로써, 그 편견의 문제를 드러내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줌.

실제 장면1은 일상적으로 다문화 현실에 공권력이 작동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대단히 전형적인 폭력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에 심각하게 반응했던 다문화 구성원 심층인터뷰의 인터뷰 대상자들에 따르면, 문민 (중국,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교사)은 방범대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라티홍 번 (베트남, 학생)은 “실제가 아니라 영화지만, 실제로 근거했다고” 본다는 말을 남긴다. 그 외 참여자들은 구타와 폭압 장면에 대단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다.

장면 2 (부정적 유형 - 인종 차별):

술자리에서 흔히 있는 상황으로 부정적 유형, 인종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술취한 후 객기로 시비를 걸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술주정하는 장면이다. 술자리에서 상대 인종을 차별하는 현실에서 다문화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경솔함을 지적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외관상 부정적 유형이나 감독의 긍정적 의도가 잘 드러나면서 다문화 교육에 효과적인 기제로 쓰이고 있다.

장면 3 (긍정적 유형 - 인격 소통):

이주노동자들의 최대 약점은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이다. 의도치않은 단속으로 뚜힌이 곤경에 처하면서 인호는 뚜힌을 진정으로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인격 소통을 이루고, 상호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게 된다. 사실상 서로 쌓였던 앙금과 상대에 대한 무지를 털고 모든 것이 화해 모드로 돌아선다. 장면의 내용은 이렇다. 단속과정에서 엉뚱하게 인호의 친구인 뚜힌이 크게 다친

다. 인호는 울먹이며 뚜힌을 병원에 옮겼으나, 불법이라 병원 접수 불가 상황이 발생한다. 인호는 울부짖으며 뚜힌을 친구로 받아들인다. 이는 긍정적 설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문화적 갈등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영화 <로니를 찾아서>는 아쉽게도 코미디적 장르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결론의 마무리가 대단히 보수적이고 화해적이다. 즉 있는 현실의 벽이나 문제를 보기 보다는 너무 단순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문화 현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순들을 드러내거나 이에 대한 해결을 찾기보다 주어진 다문화 불평등 현실을 미화하여 봉합하고 덮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로니를 찾아서〉 분석표

개요	제목	로니를 찾아서 (감독: 심상국)
	등급 및 장르	15세 관람가
	주요 출연진	유준상(인호 역), 로빈 쉬역(뚜힌, 방글라데시 청년)
	방영/상영일자	2009-06-04
작품 요약 		태권도장 사범 인호와 로니의 친구인 방글라데시 청년 뚜힌의 이야기. 안산 일대 동네주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확산에 보이지않는 두려움을 느낀다. 지역 정치인들과 합세해 동네주민들이 자율방범 순찰대를 구성하고, 그러던 와중 술을 마시다 이주노동자에게 얼떨결에 얼굴을 맞은 태권도 사범인 인호가 찾김에 순찰대장을 맡게 된다. 그러던 중 인호의 태권도 도장 행사에서 이주노동자인 로니와 대련을 하다 한방에 KO당하고 도장은 문을 닫게 되는 위기에 처한다. 인호는 로니를 찾아나서고 그러던 중 그를 찾아주겠다는 뚜힌을 만난다. 뚜힌과 가까워진 인호는 막연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를 그와 지내면서 풀게 된다.
장면 제시	장면 1	안산시 자율방범대 창단과 인호와 동네주민들의 자율방범 활동. 단속한다고 로니의 액세서리 좌판 뒤집는 장면
	장면 2	술 먹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시비 술주정, 싸움장면
	장면 3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 후 뚜힌이 빌딩에서 추락해 다리를 다친 장면
장면 해석	장면 1	범죄나 위험에 대한 힘없는 가상의 희생양(이주노동자 로니)을 만들고 이에 대해 폭력성으로 대응. 이는 긍정적 유형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사회구성원간 공존과 문화적 차이의 공존이 필요함을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장면 2	태권도 도장 관장인 인호가 방범대원장이 된 계기. 술주정하던 한국인이 이주노동자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인호가 이주노동자로부터 얼굴에 주먹을 맞고 이들을 정리하는 방법 투사가 됨 (마찬가지의 긍정적 유형의 재밌는 설정)
	장면 3	이주노동자들의 최대 약점은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 그 속에서 엉뚱하게 인호의 친구인 뚜힌이 크게 다침. 인호는 울먹이며 뚜힌을 병원에 옮겼으나, 불법이라 병원 접수 불가 상황이 발생. 인호는 뚜힌을 자신의 친구라 울먹이며, 사실상 서로 쌓였던 앙금과 상대에 대한 무지를 털고 모든 것의 화해 모드, 긍정적 설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문화적 갈등 해소.
종합 의견		긍정적 패러디가 대단히 좋음. 가상의 위협 혹은 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설정해 그에 헛발질하는 토착민들의 모습 그려, 대단히 긍정적 효과 발휘. 방글라데시 청년 뚜힌의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 같은 역할과 모습 긍정적 효과 보여줌. 그러나, 있는 현실의 벽이나 문제를 보기 보다는 너무 단순히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묘사. 전반적으로 모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미화하여 덮는 듯한 느낌이 있음.

5. 영화 <세리와 하르> (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 2세대 자녀를 중심으로 다루는 영화 <세리와 하르>는 다문화 이슈를 한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즉, 한국사회의 소수자라 할 수 있는 다문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 문제와 이들 2세대간의 공감과 우정을 그리 무거운 톤 없이 그리고 있는 작품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베트남 엄마(산재로 고생)를 둔 세리와 필리핀 불법체류자 아빠의 딸 하르는 한국사회의 가장 불안정한 세대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극중 그들 세리와 하르 사이에도 자신들의 물질 차이에 의해 갈등이 존재한다. 자신들의 불행이 상대로부터 왔다는 오해들로 벽을 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문화 억압이란 한국사회 외부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폭압적 상황에서 서로의 우정과 존재감을 회복한다.

[그림 Ⅲ-27] 재현방식



출처: 영화 〈세니와 하르〉 중 캡처 내용

- 장면설명

* 장면 1	하르 자신이 만든 ‘소박한’ 가짜 한국 주민증을 바라보는 장면
장면 2	피디가 세리를 한국아이들이 왕따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
장면 3	세리 엄마의 산재(다리마비)로 인한 고통과 공장 향의 장면
장면 4	하르와 이주노동자들(임산부 포함)을 마구잡이로 싣고가는 단속반 차량에 마을사람들 항의 장면

*다문화 구성원 심층인터뷰 수행 (2012. 9. 13.), 부록 참고.

장면 1 (부정적 유형 - 계급 차별):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합법적으로 살 수 없는 현실에서 합법적으로 살고자하는 하르는, 자신의 열망을 담아 주민등록증 비슷한 주민카드를 만들어 항시 몸에 지니고 다닌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하르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속지주의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불법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부정적 유형의 장면으로 보인다. 하르는 중간에 필리핀 불법 노동자의 딸로 한국사회에서 사는 것에 절망하며 자신의 주민카드를 버리지만, 친구인 세리가 이를 도로 주워 다시 하르에게 쥐어준다. 한국사회에서 주민증의 소유여부가 지니는 상징성을 잘 묘사하고 있음.

이 부정적 장면에 대한 질의를 다문화 구성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도했으나, 대부분이 이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 일단은 질문지 자체가 어렵고, 캡처된 이미지(하르의 가짜 주민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면 2 (부정적 유형 - 인종 차별):

이 장면은, 방송국 피디가 또래 아이들간 다문화 자녀들의 알상 속 왕따 모습을 연출해서 이를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려는 피디의 욕망을 포착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왕따와 같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2세들의 인종 차별 사건들의 발생과 관련해 의미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2차적 의미에서는, 왕따를 통해 아이들간 배타적 인종주의와 다문화간 경쟁주의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려는 계도가 지나치면 다문화 정책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다. 한국 사회 다문화의 단순 접근법에 대한 질타로 보임. 이는 결국 다문화의 연민론을 확대하려는 욕심을 가진 피디와 다문화 인권보호를 대변하는 목사간에 다투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장면 3 (부정적 유형 - 계급 차별):

산재 피해의 고통이 다문화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과 파국을 끼치는지에 대한 부정적 유형의 장면이다. 물론 영화 감독의 의도대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미디어 재현 효과를 지닌다. 실제 다문화 가족 성원이 이주노동자로 살면서 이후 산재 피해가 실제 어떻게 그들 가족의 고통을 낳는지에 대해 논의가 크게 없었는데, 장면3은 이를 잘 조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공장주에 의해 무고죄로 세리 아빠가 잡혀가고 나서는, 세리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필사적으로 공장 사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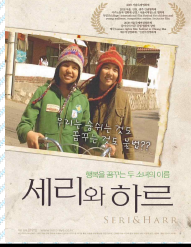
장면 4 (긍정적 유형 - 사회 공존):

〈세리와 하르〉는 유난히 단속반원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이 두드러진 영화다. 마치 일본 순사만큼 비인간적으로 그려지고, 이주노동자들은 토끼몰이식 사냥에 힘없이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속반원들이 승합차에 불법신분인 하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저인망식으로 잡아 추방하려는 찰나에 지역주민들이 이송 차량을 막고 서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식의 대응을 촉구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이미 불법노동자들을 포함해 다문화 구성원들을 자신과 함께 사회적으로 공존하는 공동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장면은 다문화 구성원들과의 지역 공생의 해법을 새롭게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유형으로 비춰진다.

결론적으로, 영화〈세리와 하르〉에서 다문화 접근에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2세 아이들의 관점을 통해 현실 사회를 보는 방식이나 다문화에 대한 공감과 공존에 기반한 접근들은 상당히 높이 salmant 요소들이다. 허나 너무 제도적 효과를 거두려는 대사들이 숨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공장업주들의 다소 도덕적이고 양심에 기댄 동정적 멘트들, 방송 감독의 등장과 그의 대사, 목사님의 이주노동자 인권을 언급하는 대목 등이 그것이다.

〈세리와 하르〉 분석표

개요	제목	세리와 하르 (감독: 장수영)
	등급 및 장르	12세 관람가
	주요 출연진	장미지(세리, 베트남 엄마의 딸), 최세나(하르, 필리핀 불법체류자의 딸)
	상영일자	2009-07-23
작품 요약		베트남 엄마를 둔 세리와 필리핀 불법체류자 아빠의 딸 하르의 이야기. 세리는 학교에서 왕따이지만, 골프에 대한 열정이 많다. 엄마가 베트남계인 아이다. 하르는 필리핀 불법 이주노동자 아빠와 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아이다. 세리의 엄마는 산재로 병원신세에 아빠는 다른 이의 무고죄로 감옥 신세고, 하르의 아빠는 계속해 쫓기는 신세다. 세리와 하르는 서로의 불행이 상대방으로부터 왔다는 오해들로 벽을 쌓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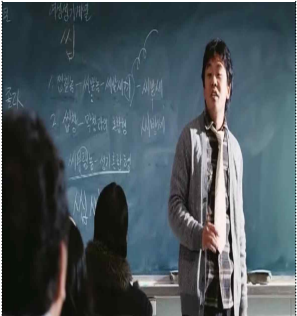
		로의 우정과 존재감을 회복한다.
장면 제시	장면 1	하르 자신이 만든 '소박한' 가짜 한국 주민증을 바라보는 장면
	장면 2	피디가 세리를 한국아이들이 왕따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
	장면 3	세리 엄마의 산재(다리마비)로 인한 고통과 공장 항의 장면
	장면 4	하르와 이주노동자들(임산부 포함)을 마구잡이로 신고가는 단속반 차량에 마을사람들 항의 장면
장면 해석	장면 1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합법적으로 살 수 없는 현실에서 합법적으로 살고자하는 하르의 갈망을 계속해서 보여줌. 하르는 중간에 불법 노동자의 딸로 한국사회에서 사는 것에 절망하며 이를 버리지만 세리가 이를 도로 주어서 다시 하르에게 쥐어준다. 주민증의 소유여부가 지니는 상징성을 잘 묘사하고 있음.
	장면 2	또래 아이들간 다문화 자녀들의 일상 속 왕따 모습을 연출해 방송에서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려는 피디의 욕망이 잘 포착되고 있는 장면. 왕따를 통해 아이들간 배타적 인종주의와 다문화간 경쟁주의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려는 계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잘 지적. 한국 사회 다문화의 단순 접근법에 대한 질타로 보임. 이는 피디와 목사가 다투는 장면으로 마무리.
	장면 3	다문화 가족들의 이주노동자로 살면서 이후 산재 피해가 실제 어떻게 가족의 고통을 낳는지에 대해 논의가 크게 없었는데, 이 영화는 이를 잘 조명하고 있는 듯 보임. 공장주에 의해 무고죄로 세리 아빠가 잡혀가고 나서는, 세리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필사적으로 공장 사장에게 항의한다.
	장면 4	단속반원이 대단히 일본 순사만큼 비인간적으로 그려짐. 지역주민들이 차량을 막고 서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식의 대응을 촉구함. 지역주민들조차 단속반원들과 대치 국면 속에 놓임. 이 장면은 다문화에 대한 공생의 해법을 던지고 있음.
종합 의견	다문화를 다루는 모습, 감성어리고 한국사회의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하는 우정과 그리 무거운 톤 없이 다문화를 묘사하는 힘이 있는 작품. 허나 너무 계도적 효과를 거두려는 대사들이 숨어있음. 공장업주들의 다소 도덕적이고 양심에 기댄 동정적 멘트들, 방송 감독의 등장과 그의 멘트, 목사님의 이주노동자 인권 운운 등.	

바. 영화 <방가방가> (2010)

영화 <로니를 찾아서>에서 시작된 다문화 주제와 코미디 장르의 결합은 영화 <방가방가>에서 절정에 이른다. 앞서 <로니를 찾아서>의 코미디적 요소가 패러디를 통한 긍정적인 미디어 재현의 효과를 지닌 것처럼, <방가방가>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용상으로, 이주민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주인공이 극중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는 참신한 설정이 흥미롭다. 대신에 대중 영화의 코미디적 장르의 결합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다문화를 재현하려는 현실주의적 느낌은 대단히 적어 보인다. 이주 노동자 이슈를 단순히 흥미로운 소재거리로 전락시키고, 말미에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피해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문제가 종결되는데, 이는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온데간데 없고 잘못된 시스템의 영속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보인다.

극중 주인공 방태식은 한국사회의 ‘프리카리아트’ (PRECARIAT), 비정규직을 상징화한다. 그는 여러가지 일을 하다 도저히 안되자 그 스스로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며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겪게 된다. 이주노동자인 척,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된 공장으로 부탄인 방가라는 이름으로 취업하게 된다. 부탄인 역할로 방가는 친구 용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거주하며 가구점에 취업해 살아간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강제추방될 운명에 놓인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구출하면서 방태식은 이주노동자와 연대감을 회복한다.

[그림 Ⅲ-28] 재현방식

영상 1	영상 2	영상 3
		
차별(인종)	편견(문화)	몰이해(문화)

출처: 영화 <방가방가> 중 캡처 내용

- 장면설명

장면 1	버스에서 방태식(방가)을 놀리는 고딩 아이들과 방가가 반응하는 모습
장면 2	방가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욕을 가르치는 장면

장면 3

이주민 출입국관리소 체류조사관-이주노동자 취조 과정 모습

장면 1 (부정적 유형 - 인종 차별):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방태식을 놀리는 고등학생 또래의 아이들 모습. 인종주의적 문제를 다루면서 나름 미디어 재현의 교육적 효과 있으나, 조금은 상투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방태식을 이주노동자로 착각하는 학생들에게 그가 쏟아 붓는 욕지거리와 반전은 코미디적 요소를 가져오지만 다문화 이슈를 쟁점화하는 것을 희석시키는 부정적 효과까지도 보인다.

장면 2 (부정적 유형 - 문화 편견):

감독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깊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다문화 설정 속에서 코미디 요소를 가미하는데 과다하게 장면 구성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면2는 용철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장 관리자를 향해 내뱉는 욕설을 가르치는데, 이는 영화의 말미에 노동분쟁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하나의 노동투쟁의 무기로 쓰인다. 그 코미디적 재미는 이해가 가나, 한국에서 문화습득을 욕으로 설정해보여주거나 악덕 기업주에게 대응한 무기로 욕을 드는 것은 그리 보편적 정서나 유쾌한 대응은 아닌 듯 보인다. 즉 재미나 흥미 요소는 있으나, 욕을 통한 카타르시스적 요소만 존재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잘못된 국내 소통 문화와 공장문화에 대한 문화편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유형에 해당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어설픈 한국어로 욕하는 장면은 헛웃음을 자아내나 그리 긍정적 다문화 교육효과를 내거나 실제적 설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면 3 (부정적 유형 - 문화 물이해):

이 장면은 출입국 직원조차 다문화 구성원의 이름 등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의 부족함을 잘 재현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이주노동자의 긴 이름을 받아쓰지 못하는 출입국 직원, 소통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직원들을 통해 한국적 다문화 이해도가 떨어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가방가>는 다문화 이해도에 대한 고민보다는 소재화하거나 주변화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재미만을 주려는 제작자나 감독의 욕심에 다문화 이슈를 사회문제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 <방가방가>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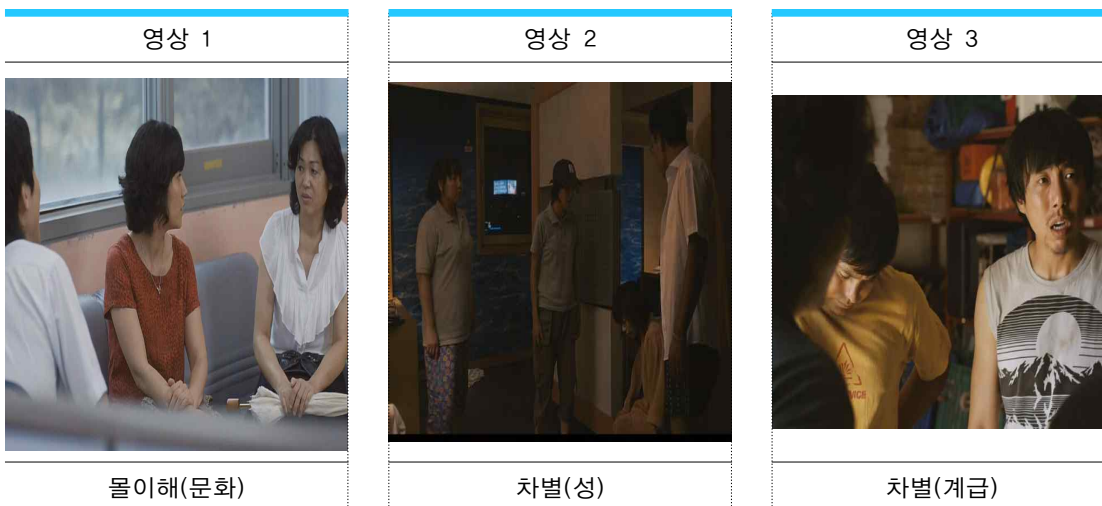
개요	제목	방가방가(감독: 육상호)
	등급 및 장르	12세 관람가, 코미디
	주요 출연진	김인권(방태식 & 방가), 김정태(용철), 신현빈(장미), 방대한(알리), 나자루딘(라자), 홀먼 피터 로널드(찰리)
	방영/상영일자	2010-09-30
작품 요약  여러가지 일을 하다 안돼, 한국인이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며 겪는 코미디같은 이야기. 이주노동자인 척,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한국인 방가. 부탄인 역할로 방가는 친구 용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거주하며 가구점에 취업해 살아간다.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에 들기위해 방가가 노력하다 베트남녀인 장미를 사랑하게 된다. 노래방 주인 용철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밀린 체불임금을 사기쳐 도망쳤으나 참회하고 돌아와 출입국 사무소에서 강제추방될 운명에 놓인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구출하게 된다.		
장면 제시	장면 1	버스에서 방가를 놀리는 고딩 아이들과 방가가 반응하는 모습
	장면 2	방가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욕을 가르치는 장면
	장면 3	이주민 출입국관리소 체류조사관-이주노동자 취조 과정 모습
장면 해석	장면 1	이주노동자를 놀리는 고등학생 또래의 아이들 모습, 인종주의적 문제를 다루면서 나름 교육적 효과 있으나 조금은 상투적인 느낌.
	장면 2	감독이 흥미의 요소로 설정한 듯 보이고 이는 이후에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관리자에게 내뱉는 욕설로 노동분쟁시 하나의 무기로 쓰임, 허나 한국에서 문화습득을 욕으로 설정해보여주거나 악덕 기업주에게 대응한 무기로 욕을 드는 것은 그리 보편적 정서나 유쾌한 대응은 아닌 듯.
	장면 3	이주노동자의 긴 이름을 받아쓰지 못하는 출입국 직원, 소통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직원들을 통해 한국적 다문화 이해도가 떨어짐을 단적으로 보여줌. 출입국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공연을 허락해 이들이 공연하다 탈출하는 장면은 너무도 비현실적임.

종합 의견		이주민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한국인이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는 참신한 설정이 흥미롭긴 하다. 대신에 현실적 느낌은 대단히 적어보임, 이주 노동자를 흥미로운 소재로 다루고, 말미에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피해 비현실적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문제가 종결.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없고 잘못된 시스템의 영속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끝남.

사. 옴니버스 영화 <시선너머> (2011)

옴니버스 형식의 <시선너머>는 다문화 토픽의 중요한 주제들, 탈북가족의 문제,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문화적 몰이해로 빚어지는 탈북가족과 남한의 일반 가족과의 갈등 상황, 사회적 약자로서 국내 여성의 문제와 다문화 여성노동자의 동지적 연대의식,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노동자들간의 동거와 차별 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비록 그 방식에 있어서 각 옴니버스 감독들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유형화를 통해 미디어 재현을 하고 있으나, 효과상 상당히 긍정적인 다문화 교육 효과를 얻고내고 있다고 본다.

[그림 Ⅲ-29] 재현방식



출처: 옴니버스 영화 <시선너머> 중 캡처 내용

- 장면설명

장면 1- 〈이빨두개〉	준영이의 사고로 선생님, 준영엄마, 영옥의 엄마(탈북 가족), 양쪽 학부모가 만나는 장면
장면 2 - 〈니마〉	모텔에서 구타당하고 피신한 여인 장면, 폭력남, 니마와 정은.
장면 3 - 〈바나나쉐이크〉	집주인과 동료들이 알빈을 도둑으로 의심하자 봉주가 알빈 편을 드는 장면.

장면 1 (부정적 유형 - 문화 몰이해): 〈이빨두개〉

우연한 사건으로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 오해를 낳고 문제가 의도치 않게 꼬이는 상황을 준영이의 이가 다치는 상황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간 문화 몰이해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유형에 해당한다. 마치 지금의 남북관계와 탈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시선을 보여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북에서 탈출한 영옥의 엄마는 준영이 엄마가 아들의 이가 부러져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소리에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준영의 엄마는 상대가 북에서 왔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는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만나 문화충격을 겪고 소통의 어려움을 잘 묘사하는 코드로 활용하고 있다.

장면 2 (부정적 유형 - 성 차별): 〈니마〉

한국 사회의 억눌린 소수여성들(매맞는 여성, 이주여성, 비정규여성)의 모습이 한 곳에 우연히 모인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피해 도망쳐 온 매맞는 여성과 이를 저지하던 니마와 정은은 외려 호텔 지배인이 월급을 깎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들의 처한 현실에 대한 파악을 위한 메시지로 활용된다. 지배인과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의 모습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성차별과 계급차별의 부정적 유형으로 대단히 중요한 코드로 활용된다. 무엇보다 몽골에 딸을 둔 엄마, 니마는 체격만큼이나 든든하고 힘있는 이주여성노동자 상으로 등장하면서, 다문화 여성이 지니고 있는 강건한 힘을 상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장면 3 (부정적 유형 - 계급 차별): 〈바나나쉐이크〉

이사 중 화주의 보석이 없어지면서 그 집주인 부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이주노동자인 알빈에게 둔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종편향적인 한국인들의 시선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장면. 함께 일하는 일꾼들조차 알빈을 의심하기 시작함. 반전은 봉주뿐만 아니라 알빈도 이사 중 보석을 훔쳤다는 사실, 그리고 봉주는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 알빈을 팔아 죄를 모면. 그렇지만 결국 가장 극단의 상황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씁쓸한 상황 희화화해 잘 묘사.

코믹하게 절도의 원천을 따지지만, 결국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죄과를 덮는 내국인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 계급 차별의 대표적 부정적 유형이다. 해피엔딩식으로 끝나지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대단히 씁쓸한 인종주의적 판단과 선입견들을 새겨 볼 수 있다.

〈시선너머〉 분석표

	제목	시선너머(옴니버스 영화)
	등급 및 장르	12세 관람가, 드라마/옴니버스
	개봉 일자	2011-04-28
개요	제목 1	강아관 〈이빨두개〉
	출연진	박정욱(준영 역), 서옥별(영옥 역, 탈북 청소년)
	작품 요약	준영이가 친구랑 학교에서 장난치다 영옥이 휘두른 방망이에 이가 두 개가 나가면서 생기는 이야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놓인 가족들이 준영의 이 치료비로 충돌한다.
장면제시		준영이의 사고로 선생님, 준영엄마, 영옥의 엄마(탈북 가족), 양쪽 학부모가 만나는 장면
장면해석		북에서 탈출한 영옥의 엄마는 준영이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소리에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준영의 엄마는 상대가 북에서 왔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는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만나 문화충격을 겪고 소통의 어려움을 잘 묘사하는 코드로 활용하고 있다.
종합 의견		우연한 사건으로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 오해를 낳고 문제가 의도치않게 꼬이는 상황을 준영이의 이가 다치는 상황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다. 마치 지금의 남북관계와 탈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시선을 보여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개요	제목 2	부지영 〈니마〉
	출연진	단잔 다비안 임(니마 역, 몽골 이주여성 노동자), 이정은(정은 역)
	작품 요약	니마는 모텔에서 방을 청소하는 몽골 이주여성 노동자이다. 그녀와 새롭게 정은이와 방 청소를 같이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둘은 다 돈 벌기 위해 딸들을 떼어놓고 사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다 둘은 공유의 감성을 갖게 된다.
장면제시		모텔에서 구타당하고 피신한 여인 장면, 폭력남, 니마와 정은.
장면해석		한국 사회의 억눌린 소수여성들(매맞는 여성, 이주여성, 비정규여성)의 모습이 한 곳에 우연히 모인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피해 도망쳐 온 매맞는 여성과 이를 저지하던 니마와 정은은 외려 호텔 지배인이 월급을 깎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들의 처한 현실에 대한 파악을 위한 메시지로 활용된다.
종합 의견		끊임없이 손님들이 묵고 나가는 방들을 청소하며 밖을 보지 못하고 사는 니마. 그에게 정은이 새로운 동지이자 친구가 서서히 되는 그런 설정이 긍정적. 구타에 다친 여성이 찾아오고, 임신한 여중생이 그들에게 다가올 정도로 그들은 힘없는 이주여성이긴 하나 희망의 거처다. 몽골에 딸을 둔 엄마 니마는 체격만큼이나 든든하고 힘있는 이주여성노동자 상으로 등장. 여러 가지 긍정적 유형의 코드들을 감독이 잘 결합해 쓰고있음
개요	제목 3	윤성현 <바나나셰이크>
	출연진	정재웅(봉주 역), 감비히르 만 슈레스타(알빈 역, 필리핀 이주노동자)
	작품 요약	이삿집센터에서 일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알빈이 주인집 부부에게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되고, 동료인 봉주가 알빈을 두둔하나, 사실 알빈과 봉주 둘 다 도둑이었음. 봉주는 알빈을 핑계삼아 집주인에게 자신의 도둑질을 면죄부 받는다.
장면제시		집주인과 동료들이 알빈을 도둑으로 의심하자 봉주가 알빈 편을 드는 장면.
장면해석		이사 중 보석이 없어지면서 집주인 부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이주노동자인 알빈에게 둔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종편향적인 한국인들의 시선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장면. 함께 일하는 일꾼들조차 알빈을 의심하기 시작함. 반전은 봉주뿐만 아니라 알빈도 이사 중 보석을 훔쳤다는 사실, 그리고 봉주는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 알빈을 팔아 죄를 모면.
종합 의견		코믹하게 절도의 원전을 따진다. 결국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죄과를 덮는 내국인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 해피엔딩식으로 끝나지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대단히 씁쓸한 인종주의적 판단과 선입견들을 살필 수 있어.

④ 총평

다문화 재현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가 따르고 있는 긍·부정 유형화에 따라 7편의 영화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는 각 영화들의 장면들이 담고 있는 대체적 재현들과 그것이 지니는 유형들이 어떤 범주들에 속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는 각 분석에서 수행한 것처럼, 감독이나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적 유형들을 선택해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잘못

된 다문화 이해라 해석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

부정적 유형의 범주에는 대체로 차별(성, 인종, 계급)이 보편적 기제로 감독들이 의도하건 그렇지 않건 폭넓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견(국가, 문화)과 몰이해(문화)도 부정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의외로 부정적 유형 중 왜곡이나 비하는 차별, 편견, 몰이해에 비해 거의 발견되는 경우가 적었는데, 왜곡이나 비하가 적다기 보다는 후자를 통해 왜곡이나 비하가 중심논리는 아니나 부정적인 정서를 뒷받침하곤 있으나 크게 돌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다문화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긍정적 유형의 경우에는, 드라마, 오락 등 다른 매체의 장르에 비해서 영화에서 재현되거나 형상화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화 〈반두비〉의 경우에 대단히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것은 다문화 구성원들간 평등적 소통(인격), 공감(문화, 종교), 평등(인종), 공존(사회), 갈등해소(가족) 등이 각각 포착되었다. 갈등의 경우는 문화나 인종갈등의 거시적 문제들이 거의 드물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소재 영화들을 일부 모니터링 결과, 다문화 이슈의 긍정적, 부정적 유형을 구성하는 방식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파이란〉의 경우 대표적) 제작자와 감독의 의도하에 대체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감독들이 부정적 유형들의 배치들을 통해 다문화 인식의 긍정적이고 교육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식이 존재하나, 그들 스스로도 긍정적 유형들을 잘 혼합 배치해(〈반두비〉의 경우 대표적) 미학적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표 Ⅲ-7〉 다문화영화 재현과 긍·부정 유형 분석

번호	영화제목	부정적 유형	긍정적 유형
1	파이란	국가·문화 편견, 성·인종 차별	-
2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	국가 편견	인격 소통, 가족갈등 해소
3	반두비	인종·계급 차별	문화·종교 공감, 인종 평등
4	로니를 찾아서	인종·계급 차별	인격 소통
5	세리와 하르	인종·계급 차별	사회 공존
6	방가방가	인종 차별, 문화 편견, 문화 몰이해	-
7	시선너머	성·계급 차별, 문화 몰이해	-

(3) TV 드라마 모니터링 분석

① 분석개요

텔레비전과 대중매체 연구 영역에서 다문화 재현에 대한 분석과 비평들은 서구 사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역 등의 인종과 민족, 국가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자연화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미국의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가 타자를 적극적인 소비의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타 문화에 대한 부정적 침범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중문화가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했던 남아시아 상징에 대한 분석이 있다. 60년대부터 미국의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산업은 과거의 패션 트렌드 정도를 소개하던 차원과 달리 남아시아 여성성을 미국 여성들의 뷰티 전략의 일부로 차용하기 시작한다. 서구 소비문화에서 이국화된 “오리엔탈” 여성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양 여성은 서구 미디어에 의해 성적 욕망과 기이한 즐거움의 장으로 구현되기 시작했고, 동양여성을 피지배의 욕구를 지니고 명칭함과 섹시함을 소유한 이국적인 존재로 재현한다. 서구의 텍스트에 재현된 동양의 여성성은 동양 문화를 지배하는 서구 사회의 헤게모니를 보여준다 (M.G. Durham, 2010, pp.501-503). 또 극동의 여성은 서구 미디어 문화에서 이국적 성적 대상으로 유혹적이며 위험하게 그려진다. 심지어 동양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아랍 여성의 veiling은 서구권 국가들이 베일 뒤에 무엇이 있는지 꿰뚫어보고 싶은 욕망과 식민지를 정복하는 식민주의의 과정과 연계되기도 한다 (M.G. Durham, 2010, p.504).

미국에서 인도인으로 살아온 만다바(Bhargavi Mandava)은 인도 사람들에게 종교적 신성함을 상징하던 보투(bottu)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읽혀온 점에 주목한다.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빈디(Bindi)는 힌두 여성성의 상징이었다. 비록 현대 인도에서도 미용의 용도로 많이 쓰이지만, 이는 여전히 힌두의 믿음을 따르는 여성과 다산을 표상하는 지표가 된다. 힌두 문화에서 여성이 사별하게 되면, 빈디를 지우는 의식을 행한다. 이와 비슷하게 멘디(mehndi)는 힌두 결혼식 혹은 다른 성스러운 축제에 그려지는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다. 하지만 빈디는 마돈나의 착용으로 매체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마돈나 이후로 다른 유명인사들도 똑같은 패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언론 또한 이를 다루면서 인도 장식에 대한 열기가 미국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남아시아 여성성의 종교적 문화적 상징이 서구 미디어에서 패션의 최첨단으로 탈바꿈했던 것이다. 보투가 서구에서 인도 여성을 공격하기 위한 상징으로 표상되다가 오늘날에는 세련된 여성의 패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현상은 예로부터 전해져 온 식민주의, 지배화, 이국화의 문제와 오늘날 대두되는 국제

신자유주의, 문화적 혼종의 문제 모두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만다바에 따르면, 코걸이, 멘디, 보투 혹은 빈디는 현대 서구권 패션계에서 서구의 즐거움을 위한 아시아 문화의 요소로 표상된다. 남아시아의 상징들은 이제 미국 대중사회에 만연하며, 패션계와 연예오락계에서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한 성찰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 버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남아시아 여성성의 상징은 남아시아 여성의 몸이 아니라 미국 미디어에 의해 비취진 백인 여성의 몸에 표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현상은 인종, 젠더, 그리고 재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M.G. Durham, 2010, pp.504-506).

인도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미국 매스미디어에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인도 여성의 실제적 신체, 혹은 문화적 역사와 연결될 수 없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디어 재현 속의 남아시아 상징들은 매우 성적인 장식이 되었다. 대중문화 스타들이나 유명인사들은 종교적 문화적 맥락을 탈락시킨 채 인도의 장식을 차용했다. 또한 Seventeen과 Cosmopolitan과 같은 잡지에서는 인도의 패션과 상징물의 성적인 전유를 자극했다. 백인 여성에게 이러한 외래적 표식과 장신구는 이국적인 면과 함께 성적인 매력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성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동양적 이국성의 상징물로 포장된 섹시한 동양 여성이 날씬하고 금발인 백인 여성과 함께 놓여 병치된다.

현대 미디어 재현에서 인도의 신체 장식은 전통적인 상징의 의미가 배제된 채 백인 여성의 성적 매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쓰여진다. 따라서 이는 욕망의 신식민주의적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중적인 타자성을 보여준다. 성적 대상으로서의 백인 여성, 그리고 백인 여성의 성적 요소를 받쳐주는 신성하고 비육체적인 패티쉬로서의 인도 여성성이 그것이다. 유색인 여성은 “백인 여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매스 미디어에 놓여지고, 미디어의 타자 재현은 백인을 위해 이루어진다. 백인이 아닌 “이국적”인 표식은 이상적인 백인성의 요소를 확인시켜주는, 부자연스러운 배경에 불과하며 백인과 타자 간의 차이를 드러내줄 뿐이다.

이렇게 현재 ‘다름’의 상품화는 소비의 패러다임을 촉진시킨다. 타자 안의 다름은 제거되고, 교환을 통해 타자를 대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탈맥락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타자의 역사의 중요성까지도 부정하는 소비 식민주의가 이뤄진다. 이 과정을 통해, 문화 상품은 소비 사회에서 무심하게 순환되며, 그 의미는 탈락되고 정치적 통합성은 텅 빈 소비 가능한 장식으로 탈바꿈한다. 인도 여성성에 대한 미국 매스미디어의 재현은 백인의 여성성을 위한 하부구조로 기능하며, 아시아 문화를 압도하는 서구의 우월성에 대한 헤게모니적 구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또 달리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과 유대인 여성에 대한 미국 미디어의 재현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게 인용할 수 있다. 한트(Myrna A. Hant)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는 미국 미디어가 유대인 아내나 어머니가 가족의 삶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 역사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흑인 여성을 “게으르고 감정적인 교육받지 못한 열등 계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텔레비전이 유대인이나 흑인 아

내/어머니의 재현을 통해 인종적, 민족적 전형을 만들어가는 것에 주목한 연구이다.

한트의 연구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한때 <The Goldbergs>와 같은 드라마에서 유대인 어머니로 등장하는 Molly Goldberg를 자력이 풍부하고(resourceful), 양육을 담당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있는 여성으로 그려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Molly가 미국 내 주류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미국화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리드먼(Friedman)에 의하면 “유대인은 그들을 ‘착한 유대인’으로 지각하는데 이러한 과장된 매너리즘과 이상한 관습이 미국 내 유대인에 대한 태도를 고수하도록 조장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대인 어머니의 온화한 상정은 1970년대 텔레비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텔레비전은 이제 유대인 가정의 가정 내 부조화와 부모와 자식 간 해체에 주목한다. 유대인 어머니는 “쪼들리고 비위를 맞추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대표된다. 유대인 어머니의 실패한 노력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Rhoda>, <South Park> 등의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진다. 텔레비전에서 유대인 아내/어머니는 남성에 복종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남편은 끝없는 요구와 불만에 시달리게 된다. 유대인 아내/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의 남성다움을 없애고(demasculate) 어린아이 취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대인 아내/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풍자화된 모습으로 표출된다(M.A. Hant, 2010).

한편, 텔레비전에서 흑인 어머니는 노예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충실한 여자 하인 모습의 어머니가 아닌 중산층 흑인 여성으로 부활되고 현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흑인 여성의 현대 어머니로의 전환은 백인 및 남성 권위에 대한 고유한 종속과 중산층 직업 달성에 필요한 열망 간의 균형에 기초한다. 이에 대해 콜린스(Collins)는 “노동시장은 패스트푸드 업체, 요양소, 탁아소, 세탁소의 저임금 직무의 하위 영역, 비서 및 사무직의 상위 하단 영역, 교사, 사회 사업가, 간호사, 관리자의 상위 상단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흑인 여성은 여전히 육아와 청소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근본적 거세를 통해 흑인 여성을 강인하게 함으로써 텔레비전은 흑인 여성을 “문화적 유인장치”로 사용한다고 본다(M.A.Hant, 2010). 대중매체는 유대인과 흑인 여성의 정형화된 모습을 고수하면서도 변화시켜 왔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 대다수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그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중매체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매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역시 이주자와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재현이 가지는 정치, 사회, 문화적 의미들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적 사회로의 변화의 상황 속에서 이주자와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역할은 다른 어떤 문화적 통로보다 크고 강력하다.

이 보고서에서 보고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다문화 재현 분석은 최근 다문화 캐릭터이나 이들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들여다 봄으로써 향후 텔레비전 드라마 더 나아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다문화 재현에 있어 어떠한 차원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모든 장면이나 대사, 인물설정과 이야기구조를 분석할 수 없었지만 텔레비전의 다문화 재현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논의들을 매개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부상하고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은 2000년대 들어서 부터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 출신 출연자들이 증가하고, 이주자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자주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며느리와 같은 소재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KBS 수요드라마 〈산너머 남촌에는〉에서는 농촌으로 시집 온 베트남 며느리 이야기가 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국경을 초월한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자 했던 〈하노이 신부〉와 인종적 차이를 가진 새 엄마와 혼혈 아동의 ‘가족 만들기’라는 특수한 주제를 다룬 〈깜근이 엄마〉와 같은 드라마는 일종의 다문화 드라마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드라마는 농촌 노총각의 결혼 문제나 베트남의 신라이파이한의 문제, 국제결혼과 외국인인과의 사랑을 둘러싼 편견에 도전하거나, 한국인 핏줄주의와 한국인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 두 드라마를 한국 사회에 다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이를 다루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노이 신부〉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로 분류된다. 사랑하는 연인이 온갖 장애를 딛고 사랑을 쟁취하는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의 공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국제적 사랑을 다루고 있고, 결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멜로드라마와 차이가 있다(류찬열, 2009, 15쪽). 한국인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주인공 티브의 언니가 갖는 한국 남자에 대한 불신감이나 의사 아들을 베트남 여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는 남주인공 은우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한다. 하지만 〈하노이 신부〉는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낭만적 사랑과 신성한 결혼을 극화함으로써 한국인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문제 삼는데 성공했다. 반면, 이 드라마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결혼을 둘러싼 어려움과 문제점을 돌파하기 보다는 낭만적 사랑과 신성한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우회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류찬열, 같은 글, 15-18쪽).

또 다른 드라마 〈깜근이 엄마〉는 가족 드라마로 분류된다. 이 드라마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의 주 갈등 인물은 새 엄마 도순과 전초소생의 혼혈 아들 명근이다. 가족 내부의 갈등은 두 개의 가족 외부의 갈등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받는다. 〈깜근이 엄마〉는 혼혈에 대한 한국사회의 오해와 편견의 구조와 모순을 성공적으로 극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성공은 다문화 가정이 처한 다양한 현실적 난제를 ‘가족주의’를 통해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잘못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명근은 도순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비로소 가족의 일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선별적 동화주의의 모델을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류찬열, 같은 글, 21-22쪽).

이와 유사하게 농촌을 이상적인 공동체의 전형으로 재현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시선을 배제한 채 기존 공동체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게 만드는 〈산너머 남촌에는〉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실제 한국의 농촌의 현실이 매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의 아름다움과 도시적이고 소비적인 화려한 모습을 배경으로 농촌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어나가는(cf. 이명현, 2010, 163-164쪽)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소망의 투사이기도 하다. 〈산너머 남촌에는〉에 재현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은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택한 것에 대해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결혼 시작부터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한국말과 풍습에 서툰 것이 아이로 취급당하는 계기가 되고, 생활 전반에 걸쳐 관리와 통제를 받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을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타자화 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또 결혼이주여성을 타자화 하는 시각은 그녀를 동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사회의 가치규범과 가부장적 질서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명현, 같은 글, 170-171쪽). 더 나아가 〈산너머 남촌에는〉는 한국인의 시선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재현한다.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은폐되고, 결혼이주여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양보해야 한다. 이같은 동화주의의 관점에는 공고한 가족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가족의 한 구성원인 결혼 이주여성은 동화의 대상이고, 우리는 우리 내부의 타자들을 가족이라는 형식을 기준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재생산할 때 그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다(이명현, 같은 글, 174-175쪽)

② 분석대상

가. 분석목록

〈표 Ⅲ-5〉 다문화 대중음악 재현 분석 목록

번호	드라마 제목	방영채널	방영일자
1	오작교 형제들	KBS	2011.08.06
2	하노이신부	SBS	2005.9.19
3	깜근이 엄마	SBS	2006.10.07
4	산 너머 남촌에는	KBS	2012.05.20
5	미우나 고우나	KBS	2007.09.03

③ 분석내용

이번 연구에 포함된 텔레비전 드라마는 KBS 2TV의 〈오작교 형제들〉, SBS의 〈하노이 신부〉와 〈깜근이 엄마〉, KBS 1TV의 〈산 너머 남촌에는(시즌1)〉과 〈미우나 고우나〉 등 5편이다. 이 드라마들은 이주자와 혼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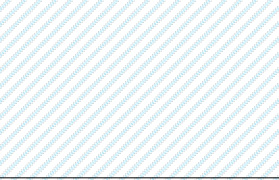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사건과 이야기의 중심부에 위치시켰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에 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다룬 〈오작교 형제들〉, 베트남 의료봉사를 하던 남자 주인공과 베트남 여인과의 이야기를 다룬 〈하노이 신부〉, 혼혈 아들을 둔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깎근이 엄마〉,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산 너머 남촌에는〉, 그리고 카자흐스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미우나 고우나〉는 다문화 캐릭터와 사건 및 이야기가 드라마의 중심에 놓임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문화 재현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분석은 드라마를 1회에 걸쳐 전체적으로 시청한 후, 다문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주요 장면들에 집중해 이루어졌다. 전체 이야기의 전개를 파악한 후, 어떠한 장면에서 어떤 다문화 캐릭터와 대사 및 사건들이 발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대표적인 장면들은 분석 장면들 중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것들을 모아 제시하는 것들이다.

〈하노이 신부〉 분석표

개요	제목	하노이 신부
	방송채널	SBS
	등급 및 장르	12세 이상, 추석특집드라마
	주요 출연진 (다문화 관련 인물)	김옥빈 (리티브, 베트남 처녀) 이동욱 (박은우, 베트남 의료봉사를 온 수련의) 이원종 (박석우, 은우의 형, 농촌총각) 유혜정 (송일란, 석우의 오랜 친구)
	방영일자	2005년 9월 19일
		작품 요약 베트남 하노이대학에 재학 중인 티브는 통역아르바이트를 하다 베트남 의료봉사를 온 은우(이동욱)를 만난다. 티브와 은우는 서로 사랑하지만, 티브는 결국 은우를 한국으로 떠나보낸다. 은우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티브는 한국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악소문과 주변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한다. 1년 뒤 베트남 신부를 찾으러온 은우의 형인 농촌총각 석우(이원종)를 만나 은우와 재회하기 위해 석우의 예비 신부감으로 한국에 온다. 티브와 은우는 다시 만나 서로 힘들어하지만, 결국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
모	장면	한국인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에게 엄마(티브언니)가 화를 내는 장면

니 터 링 분 석	 	제시	- 한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에게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고 '나쁜 인간'이라며 화를 낸다. - 은우를 사랑하지만 계속해서 은우를 밀어내던 티브의 행동의 이유가 밝혀지는 장면이다.
		장면 해석	베트남 여성을 버리고 떠난 나쁜 한국인 남자들, 그리고 남은 베트남 여성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
		장면 제시	동생 티브가 한국 남자인 은우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티브언니가 은우에게 화를 내는 장면 - 남편에게서 배운 어설픈 한국말로 내 동생과 결혼할 것이냐며 은우에게 화를 낸다. -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은우에게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한국가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지?” 라고 소리친다.
		장면 해석	한국 외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남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임. 다문화의 재현이 한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자나 다문화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외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임. 즉,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일반화된 이미지와 의미들도 다문화에 관련된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음.
		장면 제시	석우의 신부감으로 석우의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기 위해 티브가 큰절을 배우는 장면 - 티브가 석우와 함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자, 일란은 티브에게 큰절을 가르쳐준다. - 석우의 어머니를 처음 뵈는 자리에서 티브가 큰절을 하자 석우의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흡족해하며 티브를 칭찬한다.
		장면 해석	한국의 전통과 관습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모습과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폭력적인 '문화적 동질화'가 아닌 서로 서로의 문화적 전통의 수용과 이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임.

	
	장면 제시 티브를 힘들게 했던 한국 남자가 은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석우가 은우를 때리며 화내는 장면 - “너 그렇게 사라지고 저 여자 어떻게 살았는지 알거나 해? 처음엔 도망간 날라리 의사 애 가졌다고 수근 대더니 시간이 지나도 배가 안 불러오니까 애까지 지운 지독한 여자도 낙인찍혔다더라. 그 언니 망가지는 동생 잡아보겠다고 약까지 먹었다고 하고, 친구들은 손가락 질 해대고 이웃들은 등 돌리고!”
	장면 해석 한국 남자에게 버림받은 베트남 처녀들의 주홍글씨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임. 외국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장면임.
	장면 제시 은우와 티브의 사이를 알게 된 은우의 어머니가 화를 내는 장면 - “누가 니 짝으로 좋대! 니 형 짝으로! 사십 넘어도 제 짝 못 찾은 니 형 짝으로 좋다는 거지 누가 니 짝으로 좋대! 저 딸 애랑 결혼하려면 차라리 혼자 늙어!” - 곧이어 등장한 일란의 부모는 석우가 나이 많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일란과 석우 사이를 반대하며, 석우의 어머니에게 화내는 장면이 등장한다. 어머니 본인이 좀 전에 티브에게 했던 말들을 일란의 어머니가 석우에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티브에게 한 말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장면 해석 농촌총각인 석우의 짝으로 티브를 예뻐하던 석우의 어머니는 은우가 티브와 만난다고 하자 ‘감히 누굴 넘보냐며’ 티브를 무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외국인 신부는 기껏해야 농촌 노총각이나 나이 들어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한국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대상이라는 가장 문제시되는 의식이 표출되는 장면임.
	장면 필리핀으로 다시 티브를 찾으러 간 은우가 드디어 티브를 만나 재회한

	제시	다. -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은우는 티브에게 청혼한다. 둘의 사랑의 해피 엔딩을 보여준다.
	장면 해석	서로의 차이, 편견과 차별의식을 넘어 사랑을 매개로 두 사람의 결합을 보여줌으로써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차이가 사실은 매우 취약한 편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이 언제든지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임.

〈오작교 형제들〉 분석표

개요	제목	오작교 형제들	
	방송채널	KBS 2TV	
	등급 및 장르	15세 이상, 주말가족드라마	
	주요 출연진 (다문화 관련 인물)	박희건 (황국수, 황태식과 필리핀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웅인 (황태식, 황국수의 아빠)	
	방영일자	2011년 8월 6일 ~ 2012년 2월 19일	
		작품 요약	
		오작교 농장을 배경으로 황씨 부부와 네 명의 아들, 그리고 백자은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는 가족 드라마이다. 황국수는 오작교 농장의 장남인 황태식의 아들로, 황태식이 필리핀에서 살던 당시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다. 그러나 국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던 태식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옛 필리핀 애인의 연락과 함께 아들 국수가 보내진다. 결혼하려던 애인과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 태식은 국수를 못마땅해 하며 존재를 숨기고 부정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과 국수는 점차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다.	
모 니 터 링 분 석		장면 제시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혼혈아인 국수를 보며 수군거리는 장면
		장면 해석	얼굴이 까만 혼혈이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는 국수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편견을 보여줌. 우리보다 ‘까만 것’에 대한 집단적 편견과 기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임.
		장면 제시	국수가 옆집 아이인 하나를 처음 만나는 장면 - 하나는 국수의 까만 얼굴을 보며 아프리카 사람이라며 웃는다. - ‘국수’라는 이름을 들은 하나는 국수가 혼혈아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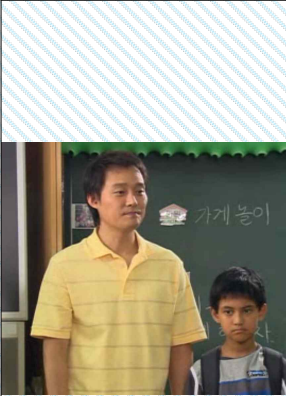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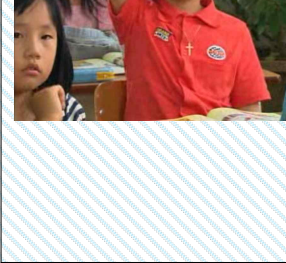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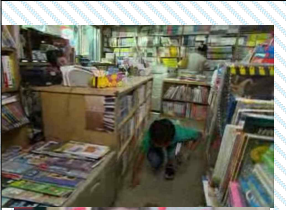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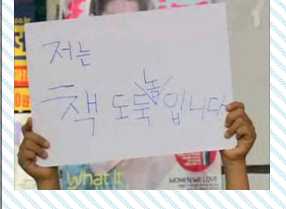
	장면 해석	‘비빔국수’ নিয়ে 놀린다. - 화가나 하나를 때려 태식에게 혼나던 국수는 “나 아프리카 사람 아니예요! 나 비빔국수 아니예요!” 라며 울며 소리친다. 까만 얼굴을 표현하는 ‘아프리카’ 와 혼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비빔국수’ 라는 단어의 사용. 까만 것을 항상 아프리카에 연결시키고, 혼혈을 항상 ‘비빔 음식’ 으로 상징화하는 우리 사회의 오랜 언어적 관습과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언어와 상징적 관습들이 후속 세대들에게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임.
	장면 제시	병원에 혼자 앉아있던 국수에게 다가온 또래 아이가 국수를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놀리는 장면 - 국수 옆에 앉은 아이는 국수에게 ‘아프리카’ 라고 놀리며 발로 찬다. - 화가 난 국수가 아이를 밀치자 아이 엄마와 의사, 간호사들이 다가와 국수를 다그친다. - 국수의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국수에게 한국말 못하냐며 거듭 묻는다.
	장면 해석	국수의 겉모습 때문에 국수는 폭력적인 아이일 것이고, 또한 한국 말을 하지 못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보여줌
	장면 제시	태식이 일하는 병원 의사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며 짜증부리는 장면 - 의사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데 매우 귀찮아하며 시종일관 짜증스럽게 묻는다. - ‘많이’ 아프다는 외국인 환자에게 ‘많이’ 가 얼마나냐며, 말을 똑바로 하라고 화낸다. - 태식이 대신 봐주던 외국인 환자의 아이가 울자 “환자를 가려서 받던지 해야지” 라고 말하며 짜증난다.
	장면 해석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권력화된 배제나 차별의식을 담고 있는 장면임. 이주자나 다문화 구성원들이 동등한 시민적 주체가 아닌 언제든지 ‘가려받고’, ‘차별적 대접’ 이 가능한 대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
	장면	옆집 친구인 하나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국수가 쉽게 풀어내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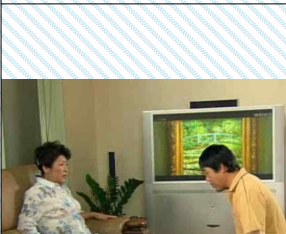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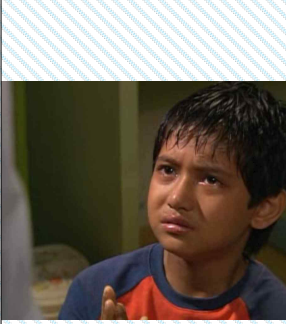
	제시	면 - 하나는 자신이 어려워하던 문제를 국수가 쉽게 풀자 놀라며 문제의 답을 계속 물어본다.
	장면 해석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공부를 못 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장면
	장면 제시	학교에 입학한 국수가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 - 국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부가 까만 이유는 한국아빠와 필리핀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며, 피부색은 달라도 자신도 한국인이라며 당당히 이야기한다. - 국수의 자기소개에 반 친구들은 모두 박수치며, 많은 아이들이 국수와 짝꿍이 되고 싶다는 손을 든다.
	장면 해석	국수 본인이 혼혈임을 당당히 설명하고, 혼혈을 차별하지 않는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긍정적인 학교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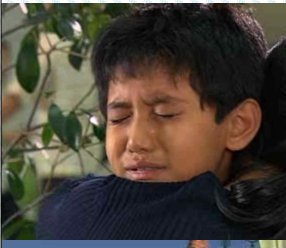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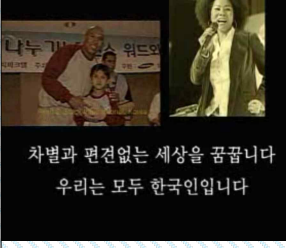
〈깜근이 엄마〉 분석표

개요	제목	깜근이 엄마
	방송채널	SBS
	등급 및 장르	12세 이상, 추석특집드라마
	주요 출연진 (다문화 관련 인물)	김지한 (조명근, 별명 깜근이, 상목과 필리핀 출신 페레시따의 아들) 견미리 (이도순, 깜근이의 새엄마) 이원종 (조상목, 깜근이의 아빠, 이도순의 남편)
	방영일자	2006년 10월 7일
	작품 요약	나이가 먹도록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도순은 비슷한 처지인 상목을 만나 결혼을 결심한다. 상목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도순은 상목의 아들이 혼혈아임을 알고 경악한다. 이 때문에 도순은 상목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지만 결국 상목을 사랑하는 도순은 상목과 결혼한다. 상목의 아들 명근. 일명 깜근이라 불리는 명근은 새엄마인 도순을 못 마땅해 하며 도순을 괴롭힌다. 도순과 깜근이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지고 결국 도순은 상목에게 깜근이를 친엄마가 있는 필리핀으

			로 보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선언한다. 상목은 감근이를 친엄마에게 보내기위해 필리핀으로 떠나고, 도순과 감근이는 둘이서의 생활을 통해 점점 오해를 풀어가며 화해한다. 마침내 도순은 감근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결말을 맞는다.
모 니 터 링 분 석		장면 제시	도순이 처음 감근이를 만나는 장면 - 상목의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 피자까지 손수 준비한 도순은 혼혈아인 상목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당황하며 표정이 굳는다.
		장면 해석	상목에게 아들이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혼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도순의 모습이자, 혼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 배척을 드러내는 장면임.
	 	장면 제시	결혼 후 첫 외출로 간 놀이공원에서 감근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도순의 모습 - 도순은 감근이와 함께 있을 때 받는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이 부끄럽고 당황스럽기만 하다.
		장면 해석	아들이 까만 얼굴을 가진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도순을 보며 수군 댈. 이 역시 피부색에 민감한, 특히 까무잡잡하고 까만 피부색에 대해 민감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증상을 보여주는 장면임.
	 	장면 제시	놀이공원 사파리 체험에서 가이드가 라이거를 설명하는 장면 - 가이드는 라이거를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1세대라고 표현한다. - 잡종인 라이거는 성격이 매우 포악하다고 설명하자 감근이는 가이드를 노려본다.
		장면 해석	혼혈을 음식의 섞임이나 동물의 이종교배와 연관된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한국 사회의 언어 및 상징적 관습을 드러내는 장면임.
		장면 제시	감근이의 괴롭힘에 지친 도순이 꿈속에서 악마의 모습을 한 감근이의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 - 악마의 모습을 하고 도순을 위협하고 있는 감근이가 꿈속에 등장하자 도순은 놀라며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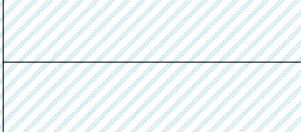
	장면 해석	혼혈인 감근이에게 악마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 보여줌. 피부색과 범죄, 피부색과 인간의 악함과 같은 차원들과 언제든지 연결되어 인식되고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임.
 	장면 제시	감근이가 서울로 이사온 후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해 반 친구들에게 소개되는 장면 - 전학생인 감근이를 소개하자 반 친구들은 “한국말은 할 줄 알아요?”, “감둥이가 어떻게 한국사람 이예요?” 라고 의아해한다. - 선생님은 “명근이는 다니엘 헤니, 하인즈 워드 아저씨처럼 혼혈이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한국 사람이 아닌 건 절대아니야.” 라고 이야기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근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물어보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 감근이와 짝이 된 친구는 감근이와 책상도 붙어 있는 것이 싫어 책상을 서로 떼어놓으려 한다.
	장면 해석	학교 내의 또래 집단 안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괴롭히는 등의 편견과 차별을 보여줌. 한국인은 까만 피부색을 가질 수 없다는 자연과학적 지식에 가까운 집단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장면임과 동시에 이러한 집단적 무의식인 계속해서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재생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임.
	장면 제시	감근이가 만화책을 몰래 훔치고 벌을 받는 장면 - 축구를 좋아하는 감근이는 만화책을 훔쳐오면 함께 축구를 하게 해주겠다는 친구들의 거짓말에 속아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 위해 만화책을 훔친다.
	장면 해석	이주자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집단적인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 나쁘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임.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음.
	장면 제시	학교에서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감근이의 모습 - 친구들은 감근이의 얼굴이 까맣다고 놀리는 것도 모자라 얼굴이 하얘지라는 조롱섞인 말과 함께 감근이에게 우유를 던진다. -

		- 축구를 하고 싶다는 감근이에게 “누가 혼혈을 축구선수 시켜주나? 용병이야? 아프리카 팀이랑 경기하면 웃기겠다.” 라는 친구들의 말이 쏟아진다.
	장면 해석	학교 내의 또래 집단 안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괴롭히는 등의 편견과 차별을 보여줌. ‘하얀 것’에 대한 숭상과 ‘까만 것’에 대한 배척의 의식이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임.
	장면 제시	집을 빼달라는 집주인에게 상목이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 - 집주인은 “감근이 때문에 집 값 떨어진다”라며 혼혈자인 감근이와 같은 집에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장면 해석	감근이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사회 안에 만연한 편견을 보여주고자 함. 이주자가 모여사는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편견과도 관련지을 수 있는 장면임.
	장면 제시	감근이를 우유가 담긴 욕조에 밀어놓고 하해지라면서 감근이를 괴롭히는 장면
	장면 해석	학교 내의 또래 집단 안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괴롭히는 등의 편견과 차별을 보여줌. 이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시되는 혼혈은 바로 ‘까만 것’과의 섞임임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임.
	장면 제시	필리핀으로 자신을 보내려는 도순에게 보내지 말라며 감근이가 울며 사정하는 장면 - “생긴 건 우유 많이 먹고 하얘질게”라며 도순에게 자신을 보내지 말라고 부탁한다.
	장면 해석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까만 것’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근이의 대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하얀 색’에 대한 무의식적 숭배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면임.
	장면 제시	감근이의 전학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모습 - 학교를 흐려져서 감근이와 같이 공부 못 시킨다고 말하면서, 학

	장면 해석	부모들은 감근이의 전학을 요청한다.
	장면 제시	감근이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도순이 공항에서 감근이와 재회하는 장면 - 감근이를 보내고 가던 도순은 마음을 바꾸고 공항으로 돌아와 감근이와 재회한다. - 나는 너의 친엄마는 되어 줄 수 없어. 그렇지만 영원히 니 편이 될게. “ - 다정한 감근이네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차별과 편견없는 세상을 꿈꿨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입니다	장면 해석	엔딩을 하인즈 워드와 인순이, 그 외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의 결합과 인간의 관계가 피부색이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임. 다만 문구에서 등장하는 “우리 모두는 한국인입니다”는 표현은 실제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 제도적 장치들이 이주자나 다문화 가정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치게 감정적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미우나 고우나〉 분석표

개요	제목	미우나 고우나
	방송채널	KBS 1TV
	등급 및 장르	15세 이상, 일일가족드라마
	주요 출연진 (다문화 관련 인물)	에바 (쏘냐,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 김찬우 (오달현, 쏘냐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싱글대디) 박준목 (오찬, 달현과 미애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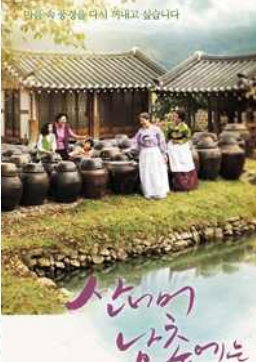
		이지영 (황미애, 달현의 전부인이자 쓰나와 한 집에 사는 사이)
	방영일자	2007년 9월 3일 ~ 2008년 5월 2일
		작품 요약 카자흐스탄 출신의 쓰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단칸방에 세들어 살며 이벤트 회사에 다니는 쓰나는 한 푼 두 푼 잔돈까지 모으며 고국의 가족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부치는 지독한 짚순이 이다. 고국에 계신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욱 독하게 일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지만 언제나 긍정적이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싱글대디 달현과 사랑에 빠지고, 여러 장애물을 만나지만 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한다.
모 니 터 링 분 석		장면 제시 쓰나가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 타국에서 어렵게 생활하지만 성실히 일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쓰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장면 해석 외국인 노동자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성실히 일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쓰나를 표현함
		장면 제시 물을 낭비하는 미애를 보며 쓰나가 물을 아껴 쓰라며 충고하는 장면 - “카자흐스탄은 석회질 때문에 마실 물이 귀해요.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라며 물을 아껴 쓸 것을 충고한다.
		장면 해석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나 집단의 역사, 특성, 문화적 차이들을 보여줌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는 장면임.
		장면 제시 전화를 잘 못 받은 쓰나에게 이벤트 회사 사장이 화를 내는 장면 - 쓰나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손님들이 답답해하고 주문이 잘 못 된다며 사장은 쓰나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화를 낸다.
		장면 해석 평소에 성실히 일하는 쓰나의 모습을 칭찬하던 사장이 전화를 잘 못 받은 쓰나를 무시하며 한국말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드러냄
		장면 제시 추석날 한복을 입고 일하던 쓰나가 고국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장면 - 고향 가고 싶고, 가족 보고 싶어요 “
		장면 추석날 한복을 입은 쓰나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통해 외

	해석	국민 노동자의 외로움 삶을 표현함
	장면 제시	추석날 집주인 식구들과 식사하는 장면 - 송편을 설명하는 식구들에게 “송편 알아요, 카자흐스탄에 고려인 많이 살아요 고려인 친구 덕분에 송편 먹어봤고, 한국말도 많이 배웠어요.” 라고 답하는 쏘냐를 보여준다. - 고려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고려인 문화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돕는다.
	장면 해석	고려인에 대한 역사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긍정적인 장면
	장면 제시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하면서 쏘냐가 슬퍼하는 장면 - 아빠 병원비 걱정 때문에 울며 통화하는 쏘냐의 모습을 보여 준다. - 가족을 위해 타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장면 해석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가난한 가족 부양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온)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공통된 현실을 느끼게 해줌
	장면 제시	힘들게 일하지만 긍정적인 쏘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 “주변에 좋은 사람 많아서 괜찮아요. 쏘냐 행복해요.”
	장면 해석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쏘냐의 모습을 표현함
	장면 제시	달현이 감기에 걸린 쏘냐를 걱정하는 장면 - 감기약을 사주며 아는 방법이 소주에 고춧가루 타먹는 것 밖에 없어서 도움이 못된다며 미안해하는 달현에게 쏘냐는 보드카에 후추를 타먹는 고국의 민간요법을 소개한다. - 비슷한 각자의 고국의 문화를 공유하면 즐거워한다.
	장면 해석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면서 나라는 달라도 비슷한 문화를 지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
	장면 제시	쏘냐가 다니던 식당 주인이 두 달째 월급을 주지 않자 달현이 대신 돈을 받아주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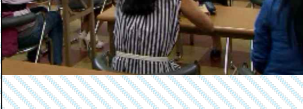
 	장면 해석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을 무상으로 갈취하는 이부 악덕 사장의 횡포를 보여준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은 채 일만 시키는 일부 악덕 사장들의 횡포를 묘사함
	장면 제시	아한 옷을 입고 클럽에서 일하는 쏘냐가 달현과 마주치는 장면 - 아빠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많이 필요한 쏘냐는 결국 클럽에서까지 일하게 된다. - 초라한 쏘냐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면 해석	돈벌이를 위해 아한 옷까지 입고 일하는 쏘냐의 모습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아픈 현실을 표현함

〈산 너머 남촌에는〉 분석표

개요	제목	산 너머 남촌에는 (시즌1)
	방송채널	KBS 1TV
	등급 및 장르	12세 이상, 농촌드라마
	주요 출연진 (다문화 관련 인물)	하이엔 (하이엔, 순호의 베트남 신부)
	방영일자	2007년 10월 24일 ~ 2012년 2년 26일

	내용 요약	농촌의 현실을 그림 전원드라마이다. 하이옌은 한국으로 시집온 순호의 베트남 신부다. 낯선 환경과 문화 차이로 순호와 갈등을 겪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적응한 하이옌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지만, 농촌생활에 잘 적응해내며 어엿한 대흥리 주민으로 거듭난다. 한국에 시집온 지 7년이 넘자 다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은근히 부녀회장 자리도 넘보지만 딸 보배가 혹시 차별을 당하지나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다.
모 니 터 링 분 석	장면 제시	하이옌이 선녀가 되어 사라지는 꿈을 꾸는 나무꾼 순호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 - 어리고 예쁜 베트남 신부 하이옌이 온 이후에 순호는 하이옌이 도망가 버릴까 늘 노심초사한다. - 동네 사람들은 하이옌이 도망가지 않게 조심하라며 순호에게 너 도나도 충고하고, 하이옌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에 있지 않으면 절망하며 여권부터 확인하는 순호의 모습이 그려진다. - 하이옌을 믿지 못하는 순호의 모습을 보면서 “오빠 나빠요! 오빠 나 안 믿어요!” 라는 말을 거듭한다.
	장면 해석	하이옌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믿지 않는 순호의 모습을 통해 외국인 신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줌. 외국인 신부들은 한국 남성들의 재산을 넘보고 결혼을 한다든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다른 문화적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이 장면 또한 외국인 신부에 대한 매우 강한 편견을 보여주는 장면임.
	장면 제시	놀라운 하이옌의 베트남 친구를 못마땅해 하고 경계하는 순호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 - 외국인 신부들끼리 어울려 다니다가 단체로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은 순호는 베트남에서 온 하이옌의 친구를 대놓고 못마땅해 한다. - 순호의 눈총에 못 이겨 나가버린 하이옌의 친구는 하이옌에게 “한국 남편들은 돈 들어서 결혼했다고 외국인 신부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속상해한다.
	장면 해석	‘외국인 신부 = 돈 주고 사온 신부’ 라는 차별과 편견이 있음을 보여줌
	장면 제시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결연식을 통해 하이옌이 한국인 친정엄마를 만나는 장면

		-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결연식을 통해 하이옌은 한국인 친정엄마가 생긴다. - 한국 친정엄마는 하이옌의 집에 놀러도 오고 음식도 가르쳐주며 농촌 결혼이민자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보여준다.
	장면 해석	외국인 신부들의 커뮤니티나 새롭게 창조된 문화 등을 소개하며, 외국인 신부들의 삶을 그림
	장면 제시	- 하이옌이 만든 베트남 음식을 맛본 시아버지와 순호는 맛이 이상하다며 음식이 상했다고 하는 장면 - 감기에 걸려 몸이 아픈 하이옌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대접한다. - 하이옌이 한 음식을 보고 신선로로 오해한 가족들은 감탄하지만, 향신료 맛이 나는 음식을 맛본 가족들은 음식 맛이 이상하고 상한 것 같다며 실망한다. - 서러운 하이옌은 밤에 몰래 부엌에 나와 울며 혼자 베트남 음식을 먹는다.
	장면 해석	외국인 신부가 타국에서 겪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음
	장면 제시	- 하이옌이 만든 베트남 음식을 상한 음식으로 오해해 버린 동서와 남편 순호를 향해 서러움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 - “나한테는 한국문화 배우라면서 왜 베트남문화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 “내가 한국말 못하면 놀리면서, 당신은 베트남어 할 줄 알아요?”
	장면 해석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외국인 신부에게 한국문화만을 강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줌
	장면 제시	- 다 같이 베트남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베트남문화를 배우려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 -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힘들었을 하이옌을 위해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베트남말로 된 인사법을 배우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다 함께 하이옌을 위로한다.
	장면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이해하려는 긍정적인 장면으로 생각됨

	해석	
	장면 제시	뱃속 아기의 태교 문제로 하이옌과 순호가 다투는 장면 - 베트남의 영웅인 호치민의 사진을 보면 태교를 하는 하이옌을 보며 순호는 못마땅해 한다. - 호치민 대신 세종대왕을 보라면 순호는 호치민의 사진을 치워버린다. - 순호는 아기가 한국 사람을 닮아야 한다고 하자 하이옌은 서운한 마음을 내비친다. - “하이옌은 얼핏 보면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라고 말하는 순호에게 하이옌은 “나는 한국사람 닮았다는 말 듣기 싫어요! 나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친다.
	장면 해석	하이옌에게 ‘한국사람 닮아서 괜찮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외국인 신부가 가질 수 있는 기대나 꿈, 바람들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부정해 버림과 동시에 외국인 신부들을 한국인 남성들의 욕망을 위한 기계적 존재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무의식을 보여줌.
	장면 제시	유치원에서 보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며 놀림 받는 장면 - “보배 너는 한국사람 아니잖아”
	장면 해석	훈혈은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보여줌
	장면 제시	하이옌이 보배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장면 - 하이옌은 보배에게 엄마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 베트남어를 가르친다.
	장면 해석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것이 두려운 보배에게 엄마의 나라를 알려줌으로서 딸이 엄마를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표현된 장면
	장면 제시	하이옌이 다문화센터에서 강의하는 모습 - 하이옌은 다문화센터에서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다. - 학대받는 외국인 신부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강의도 열심히 하는 하이옌이 그려지는 장면이다.
	장면 해석	집에서 무시만 받는 외국인 신부의 모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외국인 신부의 모습을 보여줌

	장면 제시	하이엔이 한 요리가 쥐고기 요리라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경악하는 모습 - 중풍에 걸릴 것을 걱정하는 시아버지에게 하이엔은 베트남 보양식인 쥐고기 요리를 만들어 대접한다. - 쥐고기 요리의 정체를 안 가족들은 어떻게 쥐를 먹을 수가 있냐며 경악한다. - 곧이어 산낙지를 먹는 할머니를 야만인이라고 말하는 필리핀에서 온 손주의 모습을 보여주며 문화의 차이를 그린다.
	장면 해석	쥐고기를 먹는 베트남사람을 야만인 취급하는 장면에 이어 산낙지를 먹는 한국 사람들을 연달아 보여주면서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장면
	장면 제시	연극에서 주인공인 백설공주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보배가 걱정하는 모습 - 백설공주를 하고 싶은 보배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걱정한다. - “보배가 어떻게 백설공주를 하니? 얼굴도 까만데!” 라는 친구의 말에 보배는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굶고 때밀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장면 해석	‘얼굴이 까만 보배는 백설공주를 할 수 없어’ 라는 편견을 보여줌. 피부색이 어떤 한 인간의 평가기준이 되고, 모든 가능성들을 피부색에 맞춰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무의식이 드러남.
	장면 제시	학교에서 놀림 받는 보배를 위해 하이엔이 직접 일일교사가 되어 베트남을 소개하는 장면 - 혼혈이라는 이유로 보배는 친구들에게 놀림 받고 싸운다. - 하이엔은 일일교사로서 보배와 보배 친구들에게 베트남을 소개하며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장면 해석	딸이 차별받을까봐 숨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나라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서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하이엔의 소망을 드러냄

④ 총평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문화 재현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루어지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분석은 다른 문화적 텍스트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나 분석 틀과 차이를 가져야 한다. 즉, 텔레비전 드라마는 단순히 어떤 인물이나 대사,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 의미를 읽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전체 서사구조나, 인물 분석(역할, 직업, 극중 비중, 다른 인물과의 관계, sexuality 등), 주요 대사, 이미지, 신화나 잠재적 이데올로기 분석이 필요하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자들이 외국인이나 이주자,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와 차별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드라마를 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드라마들이 보이고있는 경향을 보자면, 다문화 사회의 특성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한국에서 드라마를 통한 이주자나 외국인, 다문화 구성원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외국인과 이주자, 다문화 구성원들과 한국인들이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들이나 이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과 편견, 차별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내부의 성찰을 유도하는 측면도 많다. 실제 앞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텔레비전 드라마가 외국인과 이주자,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편견 조장, 차별의식을 조장하기 위해 해당 장면들을 구성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앞의 분석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랜 배제와 차별적 무의식/의식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분석의 과정에서 보자면, 우리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좋은 재현’과 ‘나쁜 재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 하다. 즉, 표면상으로 보기에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외국인이나 이주자,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재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드러내 주며, 이의 문제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표면상의 재현 보다는 이것이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읽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앞으로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문화 재현의 주제는 재현상의 차원이 아닌 제작상의 차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장면 하나 하나의 문제보다 텔레비전의 화면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외국인, 이주자, 다문화 구성원들이 실제 출연할 수 있으며, 이들의 극중 비중이 보다 다양해지고 중요해지도록 만드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 다문화 구성원들의 거의 노동자나 시집 온 신부, 홀대받는 비천한 존재 정도로 취급되면서 동정심의 대상이 되도록 위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더 많은 출연자들을 만들어내고 더 큰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출연’ 그 자체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 텔레비전의 역할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한다.

(4) TV 교양프로그램 모니터링 분석

① 분석 개요

각 프로그램에 나타난 영상과 내용을 통해 다문화 제작에서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문화, 다양성 국제 이해적 관점의 긍정적 유형에서는 이해, 소통 평등, 갈등 해소, 공존의 하위영역을 살피고 부정적 유형에서는 차별, 왜곡, 편견, 비하 등의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다문화의 주체와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이야기 소재와 표현 방식을 분석한다.

영상제작에 있어 텍스트에 의한 ‘재현’ 과 제작방식으로 도출되는 의미 생성 단계인 ‘해석’ 두 개의 분석틀을 활용한다. 결과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바람직한 제작가이드와 함의를 모색한다.

② 분석대상

가. 분석 목록

KBS <러브인아시아>의 2005년 11월 첫 회편부터 2012년 방송 중인 모든 프로그램 중 차별경험, 적응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성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주제 뿐 아니라 언론, 학술지 등에 국제 이해적 관점과 문화적 다양성이 반영되었다고 논의 된 10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Ⅲ-3〉 <러브인아시아> 분석 목록

번호	제목	주인공(국적)	방송일(회차)
1	부산의 네팔댁, 유쾌한 두루가	두루가 (네팔)	2006.11.11(49)
2	제주 아줌마 아니타의 생활백서	아니타(헝가리)	2007.9.13(91)
3	필리핀 엄마, 엠마의 '행복 극장'	엠마(필리핀)	2008.7.15(130)
4	나영이네 가족의 4대가 함께 사는 법	판나영(베트남)	2008.9.9(136)
5	하빌우딘의 나의사랑 나의가족	하빌우딘, 이경선	2008.10.14(141)
6	가우살리아 가족의 두 번째 꿈	가우살리아 (스리랑카)	2008.12.02(148)
7	가족 애(愛)발견	띠엔(베트남)	2009.1.13(154)

8	3년간의 다문화실험 아시아공동체학교	아시아공동체 학교어린이	2009.5.26(173)
9	싱글맘의 홀로아리랑	정완(태국) 다문화싱글맘	2011.5.17(270)
10	제주의 흑진주자매	현진 윤지 스리랑카 엄마, 한국인 아빠	2012.1.10(301)

나. 구성형식

KBS의 <러브 인 아시아>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들을 주인공으로 한 휴먼 다큐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이웃들의 소통을 통한 문화 이해와 인식의 품앗이! 하나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부부와 가족, 그들의 삶 이야기!” 라는 의도로 한 지붕 아시아인들의 가족감동 프로젝트라고 소개한다. <러브 인 아시아>는 주로 결혼 이주민의 정체성을 다루며 이를 드러내기 위해 ENG로 주인공의 사는 곳을 찾아가 일상생활 에피소드, 과거재연, 주변사람들의 인터뷰, 마을 행사, 모국으로 보내는 영상 편지 등을 담고 있으며, 스튜디오에는 주인공과 결혼이주패널, 가족, 이웃들이 출연하여 토크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림Ⅲ-1] <러브 인 아시아> 프로그램 구성

영상 #	영상 #	영상 #
		
이미지	남녀 사회자	사회자와 패널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러브 인 아시아> 이미지

남녀 사회자

사회자, 주인공 결혼이주 패널들, 가족, 이웃, 방청객

<러브 인 아시아>의 포맷은 매우 짧은 시간에 수렴되는 구조이다. 이 프로그램의 테마는 중범위 (middle range) 이하의 범주에서 쟁점을 제시하고 쟁점을 해결한다. <러브 인 아시아>는 주로 해결

된 사람들이 출연하여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수렴되는 구조이다(황우섭, 2010)

〈표Ⅲ-4〉 프로그램 구성 형식과 내용

구 성 형식	내용
스튜디오	사회자, 고정 이주여성출연자, 주인공
ENG 영상 1	우리말 원정대, 우리말 퀴즈, 하고 싶은 이야기
스튜디오	영상1에 대한 보충 설명과 경험이야기
ENG 영상2(카메라 관찰)	주인공 소개
스튜디오	가족소개, 경험이야기
ENG 영상 3 (리포터 참여관찰)	주인공의 일상 소개 한국생활 백서 과거재연, 현재 활동과 주변인들의 평가
스튜디오	경험에 대한이야기
ENG 영상 4	고국에 보내는 주인공의 영상편지와 고국가족들의 화신 영상
스튜디오	고국으로부터 전달된 선물소개 가족항공권으로 고국 가족 재회 암시

출처: 이경숙(2006)

③ 분석내용

가. 유쾌한 부산댁 두루가. 2006.11.11(49회)

두루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부산에서 거주하며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격이 활발하여 한국인들과도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다. 네팔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사진교환으로 결혼이 이루어졌다. 다른 신분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신분사회에다가 그녀의 집안은 브라만 계급이라 국제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돈벌이 간다고 부모를 속여야 했고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에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한국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자녀를 키우다보니 자신의 외모와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자녀들이 차별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로 아이들의 전학을 보냈다. 두루가도 다양한 학교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취미활동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학부모 활동을 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재현방식에서는 일상의 소개와 함께 다문화가정이 겪는 차별문제를 이끌기 위한 방법이 구성되어있다. 낯선 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을 담고, 아이가 겪는 인종차별경험을 진솔하게 하거나 자녀의 정체성

을 묻는 내용, 차별을 느끼는 아이들의 속마음 드러내기의 내용을 자막 텍스트 등의 편집기법을 통해 차별받는 대상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림Ⅲ-2] 재현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타인의 시선	정체성 도출	텍스트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타인의 시선은 늘 고정되지만 익숙하지 않음
- # 학부모의 일일교사 활동으로 아이들의 정체성 도출을 유도함
- # 아이에 대한 언급 텍스트 자막 ‘왜 나는 친구들보다 피부가 검어요?’

그녀는 남편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이지만 아내를 존중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한국생활 적응에 남다른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자녀들이 남과 다른 피부로 인해 받는 차별적인 시선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아이뿐 아니라 엄마한테도 외국인 같은 외모를 보면 그런 시선이 있어요. 나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니.. 반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너희 나라에는 뭐 뭐 있니 이런 이야기할 때도 있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가 하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너는 왜 이렇게 새까맣니? 라는 질문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상처받으니 조심시켜 주세요” 라고 말한다.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남다른 피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들이 갖는 본질적인 아픔을 해결할 수 없다. 한국사람들이 가진 차별적인 인식은 인종차별로 나타나고, 국가적인 비하와 폄하언어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자국중심주의적인 의식은 현실사회에서 이주민들에게 소소한 갈등과 인권침해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다문화사회에 공존과 상생에 대한 정서적인 합의가 없으므로 나타난다.

[그림Ⅲ-3]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인종차별	국가비하와 인종차별	인종차별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

너희나라에도 00것 있어? 외국인에 대한 반말과 가난한 국가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질문

생김과 피부에 대한 질문 자녀들이 느끼는 정체성 혼란

두루가는 남편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높은 이주여성으로 나타난다. 한국 적응과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문제가 없으나 이주인을 대하는 차별적인 한국 문화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차별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하려고 한다. 자녀들을 다문화학교로 전학시키고, 일일교사, 학교활동, 다문화강사 활동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겪는 문제점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지 못하고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분리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쾌한 부산댁 부르가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두루가, 부부, 자녀, 사회자 패널
	방영/상영일자	2006.11.11(49회)
작품 요약		결혼이주로 한국에 온 네팔여성 두루가는 다문화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자녀들이 차별받는 문제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로 전학을

		보낸다. 자신의 차별적 문제는 다문화강사가 되어 공적인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남편의 존중과 지지를 받아 사적영역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면 제시	장면1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다.
	장면2	일일교사로 아이들의 속내 말하기를 유도, 다문화변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장면3	텍스트 자막 ‘왜 나는 친구들보다 피부가 검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장면 해석	장면1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통해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는 한국문화 속에서 외국인들의 적응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장면2	너희나라에도 00가 있니?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반말, 국가 비하적인 질문
	장면3	생김과 피부에 대한 질문 자녀들의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 문제는 매우 크다. 부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녀들이 또래집단에서 받는 상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합 의견	한국에 결혼이주 해 온 타인종, 특히 동남아시아권의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해결을 보여주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주로 차별을 경험하거나 일상에서의 차별문제를 드러내는 장면과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취재진이 네팔을 찾아가 두루가의 고향문화를 알리며 가족소식을 전하고 외가로 부터 받아온 선물을 전달하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다. 주인공은 남편, 지인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선주민들의 차별적 언행에 분노하면서도 인식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기보다는 시혜적인 관점과 요청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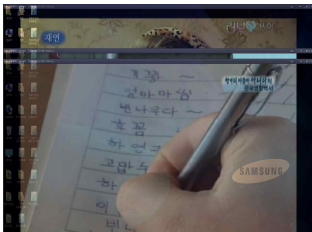
나. 헝가리에서 온 제주아줌마 아니타. 2007.9.13(91회)

아니타는 제주에 거주하는 헝가리 출신으로 세아이를 양육한다. 그녀는 88올림픽을 TV로 보면서 처음으로 본 한국에 대해 동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매우 적극적인 성격으로 스위스, 이태리 유학을 한 후 아시아문화를 배우고자 한국 유학 와 남편을 만났고 제주가 아름다워 거주를 선택했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배우며 살고 있다.

아이들과 남편은 헝가리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자녀들이 이중문화를 수용하고 언어를 활용하는데 용이한 것은 부부가 자녀양육과 돌봄 역할을 공유하고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헝가리 책을 읽어주는 역할 또한 부부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화이해적인 수평적인 시야를 갖게 된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아니타는 동양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소원을 이루었지만 결혼초기에는 동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싸움을 많이 했다. 아내가 입덧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는 남편의 질문에 자신은 먹고 싶은 헝가리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는 것과 가족의 헝가리 문화 체험 권유를 남편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를 통해 남편은 헝가리에서 보낸 3년 동안 주류 문화의 이방인 내지 소수자가 되어보고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여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게 되었다. 주인공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재현방식으로는 주인공이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의 글쓰기, 한국문화배우기, 글로벌한 경험과 꿈이 많은 성장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역을 활용한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니타 가족의 영상편지를 통해 양쪽 소식을 주고받는다.

[그림 III-4] 재현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텍스트	대역재연	영상편지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 설명

- # 지역문화를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제주도 방언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 # 글로벌 유학등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주인공을 표현하기 위해 대역으로 재연
- # 영상편지로 아니타 가족의 안부 전하기

주인공은 제주도의 어르신들은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투리를 배우기도 한다. 한국에서 기본적인 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방언을 배워 적극적인 문화향유자가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자녀들에게 이중언어를 바탕으로 문화의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가족들의 헝가리 거주는 국제 이해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는데 주요한 경험이 되었다.

[그림Ⅲ-5]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주체적인 여성	문화다양성	국제 이해적 관점

출처: KBS <러브 인 아시아>

장면 설명

- #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유학 왔고 본인의 의사대로 제주에 거주, 제주 문화 익히기
- # 자녀들에게 헝가리 책을 읽어주고 이중언어 사용으로 문화다양성을 일상화 함
- # 남편 자녀들도 헝가리에 거주하여 상호 이해가 가능해짐

주인공은 여러 나라의 유학을 경험하던 중 결혼한 사례로서 우리나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돌봄 노동역할에 배치되는 결혼이주민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띠고 있다. 남편과 이주여성은 서로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 해 주고 공유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문화적 공간에 따른 일방적 동화를 요구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거나 할 때 이를 바로 해결하려는 방식을 보인다. 남편은 헝가리에서 보낸 3년 동안 본인 이 주류 문화의 이방인, 소수자가 되어보고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여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게 되었다. 국제결혼 가정 내에서 다문화다양성이 유지되는 요인은 결혼이주자의 문화를 존중 해 주는 배우자와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황우섭(2010)은 서로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니타 부부에 대해 ‘존중적 적응구조’ 라 지칭한다. 여기에는 남편의 지지와 협력이 바탕이 되고 있어 수평한 관계가 드러난다.

<헝가리에서 온 제주아줌마> 아니타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아니타부부, 자녀, 사회자, 패널
	방영/상영일자	2007.9.13(91회)

작품 요약		헝가리 출신여성 아니타는 유학으로 한국에 와서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선택해 이주하였고 평소 동양문화를 동경하고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소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문화간의 결혼의 어려움을 느낀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국제 이해적인 입장을 갖고 이중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는 다문화의 모습을 드러낸다. 프로그램전체에서 어떤 억압구조가 발견되지 않으며 일방적인 동화가 없다. 문화의 향유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족의 생활을 통해 드러난다.
장면 제시	장면1	지역문화를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제주도 방언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텍스트 영상 활용으로 강조한다.
	장면2	글로벌 유학등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주인공을 표현하기 위해 대역으로 재연한다.
	장면3	영상편지로 아니타 가족의 안부를 전하고 외가집의 소식을 동시에 전달한다.
장면 해석	장면1	주인공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유학 왔고 본인의 의사대로 제주에 거주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다.
	장면2	이중언어 사용으로 자녀들에게 헝가리 책을 읽어주고 문화다양성을 일상화 하고 있다.
	장면3	남편 자녀들도 헝가리에 거주하여 상호 이해가 가능하며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종합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들에게 어머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전해주는 긍정적 사례로 남편이 아내나라에서 살아봄으로써 이주인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가족간의 문제해결방안 등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이다. 다문화, 문화다양성이 그대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서의 수평한 관계가 필요하며 일방적 동화를 요구하는 억압적인 구조가 없는 아니타 가족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이해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이부부의 모습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현실에서 일반화 할 수 없는 모델이지만 이주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평등한 부부관계는 추후 매해 열리는 평등부부 상 등의 추천에도 가능할 만한 유형이다.

다. 필리핀 엄마, 미소천사 엠마의 '나의사랑 나의가족'. 2008.7.15(130회)

필리핀출신 엠마는 2005년 남편 정용씨와 결혼하여 자신이 낳은 아들 재광(2)과 전처의 아이들 나영(17), 재호(11), 세 아이의 어머니이다. 재혼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들의 배려가 적응에 도움

이 되었고 한국음식에 서툰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은 음식을 만들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가사 일을 분담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사 일을 담당한다는 남편은 아내와 싸울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다문화 재혼가정이기에 어색함을 이겨내기란 자녀들과 첫 만남에서부터 어려웠다. 전처의 자녀인 큰 딸 나영이와 엠마는 불과 10살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은 처음부터 아빠의 결혼에 반대하지 않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 재광이가 태어난 것과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영이 역시 초기에는 서먹했고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새엄마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한다.

“처음엔 엄마가 안녕하세요 밖에 못했어요. 다른 건 필리핀 말로 두두두두... 당황스럽고 어색했어요. 근데 왜 하필 필리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은 안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고 하신거니까. 아빠 인생이라는 것도 있으니깐 반대 안 했어요.”

엄마를 이해하게 된 계기는 “한번은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해주셨는데 냄새가 짭~ 근데 할머니 계실 때 꼭 참고 먹다가 할머니 일어나시니까 화장실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때 엄마도 적응하려고 힘들게 애쓰는구나 싶더라고요.” 라고 말한다.

딸이 새엄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관점은 외국인이라 입맛에 맞지 않는 된장찌개를 먹으려 노력하는 점을 보았다는 것이다. 상호이해적인 관점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과 인내 등 보편적인 일상을 통해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함을 시사한다.

새엄마가 바깥활동을 있도록 딸과 아들이 어린 이복 동생을 돌봐주고 어린이집에서 안고 데려오는 일상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가족의 일상이 소개된다. 재혼과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친정 부모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과 다문화재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인종적으로 다른 남매들이 겪는 어려움을 드러낸다. 딸은 동생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지만 예쁜 내 동생일 뿐이라고 말하고 새엄마에 대한 열린 마음을 보인다. 주인공은 다문화인형극활동을 통해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활동을 드러낸다.

[그림 III-6] 재현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과거 진술	전처 딸의 인터뷰	다문화 인형극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국제결혼에 실패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걱정하는 친정부모에 대한 이야기
- # 전처 딸의 외국인 새엄마에 대한 입장은 중립적, 편견이 없는 열린 자세
- # 다문화인형극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을 드러냄

불과 열 살 차이 나는 외국인 새엄마와 전처 딸의 서먹한 관계에서 친해진 계기가 영어배우기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자리 잡은 영어담론, 세계화의 중요성을 가늠케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사회활동과 관계망 형성은 아직 초기단계로 나타난다. 주인공과 같이 다문화인형극 활동을 하는 동료가 그녀에 대해 “아직 서툴러서 철부지 동생 같다.” 평가한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는 한국인 자국문화 중심적인 의식에서 발현된다.

한편, 어린이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의 다문화인형극은 주된 내용이 자녀가 외국인 새엄마에 대한 차별적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결말은 시혜의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오히려 차별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생산한다.

[그림Ⅲ-7]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영어담론	편견	인종차별

출처: KBS<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낯선 문화로 힘들어하는 주인공에 힘이 되어준 딸과 친해진 계기는 영어배움 요청
- # 동료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엠마를 철부지 동생 같다고 표현함
- # 다문화인형극 주제는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겪는 차별과 시혜를 주제로 다룸

다문화 재혼가정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이기려는 모습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관계가 두드러졌다. 남편의 아내 존중 뿐 아니라 외국인을 엄마로 맞고 인종적으로 다른 남매를 갖게 된 아이들의 배려와 동생사랑이 강조되었다.

엠마의 사례에서 자국 문화는 희박하게 나타나는데 자기 문화에 대한 유지와 공유보다는 적극 동화하여 가족들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기특한 외국인 엄마를 전처자녀와 남편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발판을 위해 다문화인형극단에 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 동료는 ‘철부지 동생 같다’고 말한다. 이는 선주민들이 외국인들에게 갖는 일방적 동화와 한국인으로서 기대치에 준거하는 편파적인 평가로 나타난다.

〈필리핀 엄마, 미소천사 엠마의 '나의사랑 나의가족'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엠마 부부, 자녀, 사회자, 패널
	방영/상영일자	2008.7.15(130)
작품 요약		필리핀 출신의 엠마는 결혼 3년차로 전처의 두자녀와 자신의 아이를 가진 다문화재혼가정의 주부가 되었다. 현대 다문화가정들 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재혼가정 유형이지만 가족의 배려와 화합으로 적응과 공존을 하고 있다. 남매간의 인종적인 문제를 아이들 스스로가 이겨내고 있다. 다문화인형극 동료로부터 타자화 되는 평가를 듣지만 가족들의 지지와 협조로 적극적 사회활동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장면 제시	장면 1	국제결혼에 실패사례를 들어 결혼을 반대한 친정부모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다.
	장면 2	열 살차이 나는 전처딸의 외국인 새엄마에 대한 입장은 중립적이며, 인종적으로 다른 동생에게도 긍정적이다.
	장면 3	엠마는 다문화인형극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지지와 배려도 함께 얻고 있다.
장면 해석	장면 1	낮선 문화로 힘들어하는 주인공에 힘이 되어준 딸과 친해진 계기는 딸이 새엄마에게 영어 배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현대사회에서 영어담론의 흐름을 드러낸다.
	장면 2	선주민들이 이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으로 나타나는 일방적인 동화 기대이다. 인형극에 익숙하지 않은 엠마를철부지 동생 같다는 표현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취급하는 주류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장면 3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벌이는 다문화 인형극의 목표는 다

	문화수용성을 고취하기 위함이지만 극 내용이 차별과 시혜를 주제로 다루므로 차별을 공고히 하는 위험을 갖는다.
종합 의견	현대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유형 중 늘어가는 다문화재혼 가정을 통해 가족 간의 문제와 인종문제 등을 드러내었다. 극복방안으로 부부간의 수평 한 관계, 다른 인종과 이복 출신으로 구성된 자녀들 간에도 배려하며 통합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주인공을 조명함에 있어 가정에서 통합하는 모습이 강조되고 다문화의 주체로서 다른문화나 문화다양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자신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공유하려는 사례보다는 돌봄노동을 열심히 하는 새엄마로만 인정받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둘러싼 다양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함을 나타내지만 가족구성원들의 노력은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라. 나영이네 가족의 4대가 함께 사는 법. 2008.9.9(136회)

베트남에서 온 판나영(27세)의 집안은 4대가족이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 가부장 문화를 고수하며 옛날방식으로 살아간다. 한국여성들은 이러한 조건을 기피하여 남편은 15번이나 선에서 퇴자를 맞았다고 한다. 남편은 판나영을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 그녀에게 자신의 대가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모호하게 말하여 결혼을 성사시켰다.

판나영의 친구들을 불러 베트남음식을 먹는 모습이 소개된다. 그러나 베트남어로 말하는 것과 친구들의 방문이 시할머니에 의해 금지된다. 남편은 고부간의 갈등이 나타날 때 아내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결국 가부장문화 속에 묻히고 일방적으로 판나영의 동화를 요구하는 가족 속에서 함구하게 된다.

이주인의 출신국을 소개하는 ENG에서는 판나영 가족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제작진들이 베트남을 찾아가 친정식구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판나영의 일상을 보게 한다. 이 구성에서는 국제이해적인 관점과 문화다양성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판나영의 남동생은 매형이 방문했을 때 어떤 소통도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아쉬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모습이 소개된다.

[그림Ⅲ-8] 재현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베트남 지도	손주며느리 평가	현지 VCR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주인공을 소개하기위해 출신국의 지도를 활용함
- #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할아버지
- # 매형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남동생의 영상편지

집안의 어른들은 며느리의 베트남 친구들 방문을 허용하였지만 베트남어 사용에 대해 못마땅해 하여 베트남어를 사용을 금지, 한국어로 사용하라고 하고, 결국 친구들의 모임을 금지하며 한국 전통의 시집 예절을 강조한다. 그녀를 '전통적인 한국 며느리'로 만들려는 가족들의 억압이 나타나는데 남편의 어른들에 대한 설득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되려 아내를 설득하는 억압구조의 일원으로 드러난다. 식사시간에는 밥상이 남녀 분리되는 전통적 가정에서 일방적인 동화와 며느리로서 모자란다는 꾸지람을 수용해야하는 일상이다.

나영은 가족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승인해야 하며 돌봄노동, 여성의 덕목을 강요당하는 일방적 동화와 여성억압을 혼자서 감내해야하는 철저히 타자화된 모습이 보인다. 부장사회, 자국민중심적인 흐름 속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철저한 동화로 한국사회의 주변화된 결혼이민자의 현실이다.

[그림Ⅲ-9]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가부장사회	자국중심주의	동화주의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남녀분리 밥상으로 가부장전통 계승
- # 잠옷을 입고 시내에 나가 다녔다고 말하는 시아버지
- # 며느리의 친구들이 베트남어를 사용하자 사용금지를 내리는 어른들

4대가족이 모여 사는 전통적인 가부장 가족에 결혼생활을 하는 베트남출신의 판나영은 가족으로부터 상호이해적인 배려보다는 일방적인 동화요구를 수용한다. 남녀 분리된 밥상, 전통적 종부로서 덕목을 요구하는 시어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한국말을 배우라고 억압하는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아 일방적인 동화사례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사라져 가는 희생적인 여성역할이 가족의 가치로 이어지기 위해 이주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돌봄노동에 대치되기를 기대된다. 남편 가족들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적 가부장문화 계승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문화적 이질성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보수성과 문화지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생활전체가 일방적인 동화요구와 그로인한 갈등상황이 전개되는 일상으로 나타난다.

〈나영이 네 가족의 4대가 함께 사는 법〉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판나영 부부, 가족들, 사회자, 패널
	방영/상영일자	2008.9.9(136회)
작품 요약		4대가족이 모여 사는 전통적인 가부장 가족에 결혼생활을 하는 베트남출신의 판나영은 가족으로부터 전통문화를 전승 수용해야 하는 역할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다. 남녀가 분리된 밥상, 며느리의 덕목을 요구하는 시어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한국말을 배우라고 억압하거나 일방적으로 꾸지람하는 시어른들과의 관계맺음이 일방적인 동화사례로 나타난다.
장면 제시	장면 1	주인공 판나영의 출신국과 고향, 자연 환경등을 소개하기 위해 지도를 활용하였다
	장면 2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불만의 평가를 하는 시할아버지
	장면 3	모국방문 코너에서는 영상편지를 통해 판나영의 일상을 전하고 매형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남동생을 소개한다.
장면	장면 1	남녀가 분리된 밥상에서는 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 전통적인 문화를 고수

해석		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드러난다.
	장면 2	잠옷을 입고 시내에 나가 다녔다고 말하는 시아버지의 인터뷰는 대가족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며느리로 평가된다.
	장면 3	며느리의 베트남 친구들이 집안에 놀러와 베트남어를 사용하자 베트남어 사용금지를 내리는 가족들. 일방적 순응을 강요하는 동화주의가 드러난다.
종합 의견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전통 가족문화 속에서 젊은 외국여성에게 사라져가는 가족 문화를 전수하려는 입장을 조명하려 한다. 이주여성의 주체적인 입장보다는 가족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가르치고 수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정하여 가부장적인 시선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어를 금지시키고 친구들의 관계까지 금지하는 에피소드는 이주여성에게 일방적 동화를 강요하는 억압적 가부장문화이다. 대가족문화에서 며느리에게 강요되는 덕목과 가족이라는 가치가 여성에게 억압기제로 작동한다. 한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가족에서의 돌봄 전담 역할이 다른 문화권의 여성에게 요구되고 있다. 가부장사회를 고수하는 가족에게서는 그 바램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문화자체가 드러난다.	

마. 하빌우딘의 나의 사랑, 나의 가족. 2008.10.14(141회)

등장인물 하빌우딘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남성으로 결혼이주 여성을 주된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 경향에서 벗어났고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 내 이슬람 종교와 생활 등 결혼이주남성의 일상을 드러내었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인공이 외국인 남편이지만 남성의 한국문화와의 관계성 보다는 한국인 아내의 이슬람문화의 관계맺기에 집중된다. 이슬람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아내 측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 결혼 승락에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시댁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한국여성의 일상을 중점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슬람 음식점을 하면서, 이슬람 음식재료 가게를 하는 부부, 남편의 다섯 형제와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일상을 통해 이슬람 종교, 음식문화와 가족 문화 등을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가족문화 소개를 통해 가족 사랑의 공통점과 종교에 임하는 경건한 마음을 드러낸다. 시댁문화를 존중하고 그들 속에 적극적으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한국아내의 일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이슬람 문화를 드러내기 위해 의상, 종교, 음식, 음식재료 등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매우 낮은 시선으로 담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영상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선의 재현방식을 보인다.

[그림Ⅲ-10] 재현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재연	의상	종교음식 소개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과거 회상 결혼반대 상황을 재연함.

이슬람 전통의상 라마단 기간 이슬람 사원으로 기도하러 가며 율법에 대해 설명함

하빌은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 처리된 하랄 고기에 대해 설명.

한국인 여성과 이슬람권 문화의 남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분리된 문화 유지이다. 한국인 여성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결혼을 인정받지 못했기에 남편의 나라에서 결혼한 후 알렸고 결혼생활도 남편의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인공이 식품재료를 사기위해 도매상을 찾아가 물건 값을 흥정하는 과정이 소개된다. 하빌우딘은 존대말을 하는데 한국 상인은 시종일관 반말로 응하고 일방적으로 그가 값을 잘못 알았다고 대응한다.

이주남성의 입장에서 한국인가족이나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모습으로만 한국인들과 관계가 드러난다. 여성가족의 관계는 소개되지 않고 남성가족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관점으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이슬람권 문화를 고수하여 일방적인 동화가 나타난다.

[그림 III-11]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인종의 다름	다문화사회	언어차별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생김도 다르고 피부가 까매서 이상했다는 첫 느낌
- # 남편의 7형제 중 5형제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 한국 다문화사회
- # 하빌은 존댓말로, 상인은 반말로 대화. 언어차별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과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종교 제노포비아적인 발언을 쏟아내었다. 주된 내용은 이슬람문화권 가족들이 한국을 단순히 자신들만의 문화유지와 생존의 장소로 여긴다는 오해와 추측에 기반한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게시판 시청자 글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동정과 시혜적인 시야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혐오, 이슬람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모여 사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비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일었으며 이슬람문화권의 일부다처로 아내의 가족관계상에서의 지위에 대한 의혹이 개제되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나타난 한국상인의 하빌우딘에 대한 일방적 반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글이 없어 이슬람문화권에 대한 배타성이 나타난다.

〈하빌우딘의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진행자, 이주여성 패널4명 남성 주인공 하빌, 부인 , 아이들
	방영/상영일자	2008.10.14(141회)
작품 요약		방글라데시에서 음식 공부하기 위해 한국식당에 온 하빌은 이경선씨와 연애하고 결혼에 이른다. 경선씨는 부모의 반대가 심해 방글라데시로 가서 결혼 먼저하고 후에 가족에게 알리었다. 한국에서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따르고 사는 하빌과 이경선 부부의 일상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여성의 일방적 동화, 가족이라는 동질성을 드러낸다.
장면 제시	장면 1	과거 회상 결혼반대 상황 재연한다. 아내는 이슬람권의 남성과 결혼이 가족으로부터 강금 당할 수 있어 방글라데시로 가서 결혼 한 후 아버지에게는 전화로 알렸다.
	장면 2	이슬람 전통의상을 입고 라마단 기간 이슬람 사원으로 기도하러 가며 율법에 대해 설명함 이슬람 기도에서는 남녀가 분리되는 것이 기도예절이다.

	장면 3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하랄 고기에 대한 종교적인 설명을 하는 하빌,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장면 해석	장면 1	남편과의 첫인상은 생김도 다르고 피부가 까매서 이상했다고 피부색을 다름으로 들었다
	장면 2	남편의 7형제 중 5형제 가족모두가 한국으로 이주하지만 분리된 다문화사회 현상을 나타낸다.
	장면 3	주인공이 단골로 가는 식재료 상점에서 구매를 위해 상인에게 존댓말로 가격을 질문하고 있으나 반말로 대답, 언어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 의견	이슬람권에 대한 낯설음과 거부감이 작동하는 시야로 한국 내 이슬람문화를 소개한다. 종교 의식을 소개하고 의상과 율법과 관련한 소재를 다루었다. 이슬람 종교의식과 음식, 가족문화 등,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한국으로 와서 함께 사는 다섯 형제 가족들의 일상소개와 이슬람가족을 방문한 문화소개는 가족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동질성과 일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100건이 넘는 시청자 게시글이 올려졌고 일부 이슈는 기사화 되었다. 시청자의 주된 반응은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들이었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의혹과 많은 가족들이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의혹으로 시청자가 출입국관리소에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작진은 혼인과 가족의 입국에 대한 사실 확인까지 이어졌다. 문화다양성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무색하게 시청자로 하여금 종교 노포비아가 투영되고 문화의 폐쇄성을 공론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내용이나 언어적 문제 보다는 이슬람 문화권에 동화되어 사는 한국여성에 대한 편치 않은 감정과 한국문화에서 분리된 하빌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시청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인들이 이슬람 문화권에 작동하는 폐쇄적인 수용성을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이다.	

바. 스리랑카 가우살리아 가족의 두 번째 꿈. 2008.12.2(148회)

가우살리아는 남편 도수현씨와 스리랑카의 직장에서 만나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도수현씨는 아내와 결혼을 반대했던 장모에게 스리랑카에서만 살기로 약속한 바였고 재혼으로 결혼 6개월 만에 전처의 자녀를 스리랑카에 데려와 함께 지냈다. 그러나 회사가 문을 닫고, 자영업으로 시작한 사업도 직원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2006년 빈손으로 온가족이 한국에 와야 했다.

이주 당시, 집안에 내려오던 60년 된 오래된 시골집을 고쳐 살아야 했기에 주인공 가우살리아는 재래식 화장실이 두려워 많이 울었고, 낮에는 화장실을 갈수 없었다. 아이들 또한 한국 적응이 어려웠다. 친구들 사귀기가 힘들었고 한국에 대한 두려움, 열악한 집안 구조에 실망하는 등 아이들도 적응에 어

려움을 겪었다. 한국에서 시작한 정착생활이 쉽지 않았으나 참외농사를 지어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도 회복중이다.

가우살리아는 교육 기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어 독학으로 한국 음식을 터득했고 참외농사에 재미를 느끼고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한국어솜씨와 절약하는 자세에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야기구조를 위해 스리랑카에서의 10년 결혼생활을 통한 외가와의 긴밀한 정신적 연결망이 형성된 상황을 설명하며 사진, 인터뷰, 자신들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부모들의 행위 등을 담아 재현하고 있다.

고향코너에서는 ENG로 외동딸을 그리워하며 딸 가족의 모든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외갓집 부모의 일상을 소개하고 남편은 전처의 딸 은진이를 예뻐 해 주었던 장모님에 대해 감사 해하고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전한다.

[그림Ⅲ-12] 재현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스리랑카 노래	사진	고향소식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참외작목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스리랑카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 # 스리랑카에서 신혼 때 전처의 딸을 맞아 가우살리아와 가족들은 정성으로 키웠다.
- # 딸의 물건 뿐 아니라 사위가 가져온 책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 그리움을 나타낸다.

가우살리아가 한국살이에서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익숙하지 않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 등 소소한 어려움이 많았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도 학교생활의 적응에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한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한국친구들의 피부에 대한 놀림이었다. 그러나 피부 차별은 한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전처의 딸 은진이는 여섯 살에 스리랑카로 와서 새엄마와 살았는데 당시 학교친구들로부터 피부로 인해 놀림을 받아 힘들었다고 한다. 다름에 대한 차별은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어디고 존재하는 문제로 드러난다.

[그림 Ⅲ-13]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두려운 한국	문화의 이질성	차별의 존재

출처: KBS <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큰아들은 한국이 이상한 나라같다는 막연한 불안감, 학교 친구들이 놀렸으나 지금은 적응되었다.
- # 한국의 재래식 화장실이 너무 무서워 많이 울었고 제대로 일을 볼 수 없었다.
- #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전처의 딸을 스리랑카로 데려와 키우는 과정에 아이가 학교에서 피부색으로 놀림을 받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가우살리아는 자신부모의 소원대로 스리랑카를 떠나지 않고 살기로 결혼하였고, 전처의 아이를 결혼 6개월 만에 스리랑카로 불러들여 정성스레 키웠고 두 아이를 더 낳았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한국에 와서 적응하며 사는 겪는 어려움은 일반적인 이주인들의 초기 적응단계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거주 문화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학교적응과 놀림문제 등이 있지만 가족 간의 억압과 갈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남편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처갓집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딸을 사랑으로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가우살리아는 세명의 자녀와 한국생활에 적응하며 살지만 이미 본국에서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가족들과 그 나라에서 살겠다고 했던 남편의 약속, 친정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보다는 한국은 본인들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임시 거주 의미처럼 나타난다.

〈스리랑카 가우살리아 가족의 두 번째 꿈〉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가우스리아, 부부, 자녀, 사회자, 패널
	방영/상영일자	2008.12.2(148회)
작품 요약		가우스리아는 스리랑카의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10년간 살다 온 재혼가정의 이주여성이다. 본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 한국으로 온 후 5명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린다. 가족이 함께 겪는 이주의 어려운 문제를 드러낸다. 한국의 주거문화에 대한 두려움, 아들은 한국에 대한 불안감과 놀림 등이 있었으나 즐겁게 생활하며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린다.
장면 제시	장면1	이웃들과 참외작목을 하면서 스리랑카 노래를 불러 자신의 문화를 알린다.
	장면2	스리랑카에서 전처의 딸을 맞은 가우스리아와 가족들은 사랑으로 정성스레 키운 외가의 배려를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힘이 되었다
	장면3	고향소식으로 가우스리아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리움을 전한다. 딸의 물건, 손주들의 흔적, 사위가 가져온 책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장면 해석	장면1	큰아들은 한국이 이상한 나라 같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비행기만 보면 어머니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초기에는 학교 친구들과로부터 인종차별과 놀림을 경험했다.
	장면2	주인공이 한국에서 겪은 큰 어려움 중에 한국의 재래식 화장실로 상이한 문화가 힘들었다. 사회자와 남편은 한국의 시골화장실은 다 그렇다고 일반화하였다. 스리랑카의 삶보다 질적으로 떨어진 열악한 삶을 산다.
	장면3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전처의 딸을 스리랑카로 데려와 키우는 과정에 아이가 학교에서 피부색으로 놀림을 받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아들은 한국에서 놀림을 받는다고 하여 차별은 주류와 '다름'으로 나타난다.
종합 의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나타내지만 국제결혼에서 연애결혼이 갖는 긍정성, 처가집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통한 가족사랑이 빛난다. 한국살이의 적응상황을 가족들의 개개인 입장에서 조명하였다. 남편은 외국에서 사기를 당했으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고, 아내는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의 불편함을 이겨나가며 가족의 사랑을 키운다. 특히

자녀들은 중도입국자녀로서 각자 차별을 경험했으나 가족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이주를 통해 경험한다. 다문화가정이 갖는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과 단순히 화장실 같은 물리적인 문제로 접근하였다. 문화의 이질감과 적응의 어려움은 실제로 접촉하고 경험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주인공은 한국사회와 잦은 일상적 접촉이 없이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어 다문화의 주체이지만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비교 관점에서 차별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다.

사. 가족애 발견. 띠엔 2009.1.13(154회)

결혼 3년차의 베트남 출신 여성 띠엔(22)은 남편(37)과 시어머니, 아기(2살),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이야기다. 한류열풍으로 한국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남자를 만났는데 그의 첫인상이 배용준처럼 잘생겨 결혼을 결심했다. 띠엔은 보건소에서 베트남출신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 일을 한다. 주된 업무로는 산전예비 모자교육이나 서비스사업 관련하여 통역 일을 담당하는데 인사성이 밝아 보건소직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육아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산모 교실의 통역사로 일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즐겁게 활동한다. 그녀는 본국에서 한국어를 배워 와서 글을 쓰며 소통했고 어려움이 없었지만 모르는 글은 어머니가 사전을 찾아가며 보여주고 글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아기를 시어머니가 돌봐 주시므로 맘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한글학교까지 따라와 옆에서 가르쳐 줄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자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억압을 하는 괴로운 대상이기도 하다. 한자 한자 가르쳐 주려는 어머니의 태도는 매우 강압적이다 “쌀! 발음해 봐”, “쌀” “아니 쌀 쌀쌀!” . “엄마 무서워 안 배울래” 너무 강압적으로 가르치려는 시어머니가 무서워 중도에 어머니로부터 배우던 한국어학습을 그만두었다. 또한 몇 달 전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 코성형 수술을 받은 사건이후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고 가족들의 대화 또한 냉랭해졌다. 이러한 고부간 갈등 에피소드를 강조하기 위해 재연과 텍스트를 활용한다. 성형수술 사건으로 어머니와 갈등상태를 맞고, 제사 때는 친척집에 가서 형님에게 주의를 듣는다. 가족이기 때문에 마냥 자기하고 싶은 대로 둘 수 없다는 이야기로 시댁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고 시어머니께 외국인며느리를 봐주지 말고 일을 가르치고 시키라고 요구한다. 제사준비를 할 때 천덕꾸러기 처럼 되었다는 표현을 하며 그녀의 칼 쓰는 방식에 대해 불안하게 조명한다.

[그림Ⅳ-14] 재현분석



출처: KBS <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가르침이 무서워 배우기를 그만두었다는 사건 재연
- # 칼 쓰는 방식에 대한 불안한 클로즈업과 사회자의 멘트, 심장에서 멀리 사용하는 동남아권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몰이해
- # 띠엔은 베트남출신의 예비산모를 위해 열리는 산모교실에서 통역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TV보는 모습에 불만스러워하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콧대가 세서 그런지 영 말을 안 듣는 거야”. 아기가 말썽을 피자 “누구 닮았어! 아빠 안 닮고..” 라며 며느리에게 불편한 말을 서슴치 않는다. “식달 전 코 수술하기 전 이쁘는데” 사진을 가리키며 말하고 맘대로 성형수술을 한 며느리를 혼내주려고 며느리가 벌어 만든 통장을 빼앗아 숨긴다. 가부장문화에 일방적 동화를 요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보건소 통역요원 활동으로 상을 받아 모국방문을 하게 되어 양가 어른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한다. 시어머니는 베트남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어하면서도 자식을 위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 사돈에게 감동한다. 베트남가족의 제사에 참여한 남편을 보며 아내는 자신만이 한국 제사에 참여하는 게 아님을 깨닫고 감동한다. 또한 시어머니는 철없는 며느리로만 여겼지만 베트남가족들이 명랑하고 집 앞 강물에 친척들과 함께 뛰어들어 수영하는 며느리를 보고 자라온 환경과 며느리를 많이 이해하게 되어 국제 이해적인 관점은 결국 접촉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Ⅳ-15]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강압적 시택문화	동화주의	문화이해

출처: KBS <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며느리의 성형사건으로 통장을 빼앗아 숨기는 시어머니.
- # 시택의 제사 참여는 매우 힘들다. 노동과 가족들로부터 잔소리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일할 때의 밝은 표정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침울하다.
- # 시어머니는 사돈을 만나고 며느리가 살던 곳, 친척 환경을 경험한 후 며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큰 조력자이자 가장 직접적인 억압기제인 시어머니와의 관계, 사건 등이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가족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주초기 여성들의 현실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사회생활을 지지하고 집안일 양육 등의 돌봄노동을 도와주고 있으나 며느리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권을 박탈하여 타자화 한다. 친척들도 발랄한 외국며느리를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여 철저한 동화주의의 관점이 나타난다.

〈가족애 발견. 띠엔〉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띠엔 부부, 시어머니, 사회자, 패널
	방영/상영일자	2009.1.13(154회)
작품 요약	베트남출신의 띠엔(22)은 결혼 3년차로 15살 차이의 남편과 시어머니, 아들 네 가족이 살고 있다. 어린나이에 결혼 해 와서 시어머니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지만 통역할	

		동은 평판이 좋으며 즐겁게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시댁가족과 마음대로 하고픈 자신으로 인해 충돌이 생기지만 자녀양육과 사회생활을 지지해주는 시어머니와 전폭 지지해주는 남편으로 인해 깊은 갈등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소에서 상을 받아 가족이 베트남 나들이에서 시어머니는 첫 상견례를 통해 며느리의 가족, 성격과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장면 제시	장면 1	한글교육을 받을 때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가르침이 무서워 배우기를 그만두었다.
	장면 2	한국살이에서의 어려움중 하나가 제사문화이다. 익숙하지 않은 제사음식 준비의 노동과 가족들로부터 잔소리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영역에서 일할 때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장면 3	베트남출신의 예비산모를 위해 열리는 산모교실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드러낸다.
장면 해석	장면 1	며느리의 성형사건으로 통장을 빼앗고 숨기는 시어머니. 한국의 시어머니는 대다수 이주여성에게 억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자리하는 일반적인 현실을 나타낸다.
	장면 2	타문화권에 대한 몰이해로 조명하여 비교 관점이 배제되었다. 동남아권의 칼 쓰는 방식에 대한 불안한 클로즈업과 사회자의 멘트, 심장에서 멀리 쓰러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장면 3	며느리의 직장에서 상훈 덕에 베트남에 가게 된 시어머니는 사돈을 만나고 나서 며느리가 살던 곳, 친척과 환경을 경험한 후 며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종합 의견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이주여성의 발랄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관계를 중심으로 갈등의 이야기구조를 갖는다. 재현방식에서는 불안한 시야로 조명하기 위해 여성이 칼질하는 장면의 클로즈업과 사회자의 불안해하는 멘트는 한국인의 일방적 관점으로 드러난다. 특히 이주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성과 주체성이 타자화되어 시댁식구들의 여성성형에 대한 집단적 질타, 제사에서 주눅들어있는 모습 등을 소재로 하고 있어 재현에서 여성을 타자화하고 불안정한 주체로 강조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한국시댁 문화로의 동화요구는 이주여성을 억압하는 틀로 나타난다. 다문화가정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지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는 다문화가정에 매우 좋은 모델로 그려진다. 그러나 동시에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이주여성에게 적응을 돕지만 동시에 억압의 기재이기도 하다.

아. 3년간의 다문화 실험, 아시아공동체 학교, 2009. 5.26(173회)

전교생 47명으로 이루어진 아시아공동체 학교 학생들 중에 다섯 명의 다문화 가정아동과 한명의 한국인 아동의 이야기로 이루어져있다. 한국 여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다문화가정 친구 다섯 명의 생활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내레이션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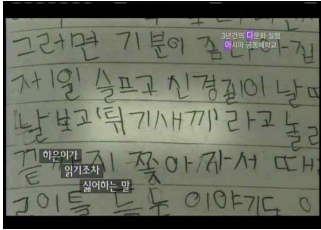
다문화아동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이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극기의 사례를 조명하고자 그들이 겪은 차별경험을 주된 소재로 한다.

아시아공동체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학교에서 차별을 견디지 못하여 전학 왔다. 말썽꾸러기로 소개되는 하은이는 러시아 엄마를 가졌고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 년 전부터 부모 같이 살지 않고 엄마 혼자 키우고 있다. 진옥이는 인도네시아 엄마, 한국인 아버지를 두었고 일반학교에 적응 못하고 전학 왔다.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 노만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부모를 가졌고 차별과 놀림 등을 견디기 힘들어 가출사건으로 언론에 소개 된 적이 있다. 철민이는 필리핀 엄마, 한국인 아버지를 가졌는데 일반학교에서 견디지 못하고 있으나 일반학교를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집에 의해 방황중이다. 선호는 네팔인 엄마(두루가), 한국인 아버지를 가졌으며 일반학교에서 차별에 상처 받아 전학 온 후 점차 밝아지고 있다. 주인공 다섯 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생활이나 가정에서 적응에 문제를 가졌으나, 학교생활을 통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긍정적 사례로 소개된다.

교사들은 아시아공동체 학교학생들이 가진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과 다문화교육의 방향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부모는 다문화가정이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에 대해 호소하는 진술자 역할을 한다.

재현방식은 주로 차별경험을 강조하는 영상과 텍스트 및 편집을 활용한다. ‘튀기새끼’, ‘더럽다’, ‘냄새난다’, ‘까맣다’ 등의 인종차별적 언어와 일방적인 반말 경험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하은이의 차별을 강조하기 위해 상담실에 보관중인 일기를 꺼내 아이가 읽기조차 싫어하는 단어를 직접 읽게 하는 모습을 재현하거나, 피부색을 강조하기 위해 목욕탕과 수돗가에서 벗고 씻는 장면, 차별경험을 진술하는 재현방식을 활용한다.

[그림Ⅲ-16] 재현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텍스트와 명암	피부색 강조	차별경험 진술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텍스트와 명암 사용하여 인종차별을 강조한다. 상담실에 보관된 하은이의 일기로 “제일 슬프고 신경질 날 때가 날보고 ‘튀기새끼’ 라고 놀릴 때다”.
- # 철민과 아빠의 목욕탕사진, 아이의 다른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에 아버지는 매우 불안하다.
- # 진우엄마는 젊은 상인으로부터 일방적인 반말을 들었고 같이 있던 남편이 매우 분개했다.

국내 최초의 다문화대안 초등학교로 설립된 아시아공동체학교는 다름이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대다수가 한국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다양한 언어문화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 문제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어려움도 심각하게 드러나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중층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극기 훈련을 통해 이들의 정신을 강건하게 하려는 시도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교육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Ⅲ-17]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다문화사회	가족문제	인종차별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다문화사회의 지향점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아시아공동체 대안초등학교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곳이다.

하은이는 한부모로 자신들을 키워주는 러시아출신 엄마의 한국어가 미숙해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노만은 친구들로부터 까맣고 몸냄새가 난다는 놀림에 정체성혼란으로 가출한 적이 있고 늘 씻고 다니지만 여전히 사회로부터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다.

주인공 다섯 명의 다문화가정 부모는 사회적 차별 뿐 아니라, 빈곤,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어려움 등 중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외국인 어머니는 서툰 한국어로 인해 자녀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인종적으로 차별당하는 자녀들로 인해 자책감을 갖거나 사회의 차별에 대해 불평등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주체로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맞서기보다는 자녀의 차별경험을 확인하거나 강조하며 주류의 시혜를 바라는 힘없는 소외계층 내지 사회적 약자의 표상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피부색이나 혼혈에 관한 차이를 통해 그들을 차별하는 언행으로 드러났는데 그들이 경험한 인종적 차별은 주로 선주민들이 가진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비롯된다.

〈3년간의 다문화 실험, 아시아공동체 학교〉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아시아공동체 학교어린이, 교사, 부모
	방영/상영일자	2009.5.26(173회)
작품 요약		아시아공동체 학교 학생들 중에 다섯 명의 다문화 가정아동이 겪는 차별과 극기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있다. 한국 여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내레이션을 통해 다문화 가정 친구 다섯 명의 생활을 소개한다. 일반학교에서 겪는 차별로 인해 아시아공동체 학교로 전학 온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가진 문제를 제기하고 이겨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장면 제시	장면1	텍스트와 어두운 명암을 사용하여 인종차별을 강조한다. 상담실에 보관된 하은이의 일기로 “제일 슬프고 신경질 날 때가 날보고 ‘튀기새끼’ 라고 놀릴 때다” .
	장면2	아이가 한국에서 겪은 인종차별경험 사례 중 하나로 철민과 아빠의 목욕탕장면을 보여준다. 아이의 피부색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아버지는 매우 불안하다.

장면 해석	장면3	이주여성이 겪는 인종차별 진우엄마는 젊은 상인으로부터 일방적인 반말을 들었고 같이 있던 남편이 매우 분개했다.
	장면1	다문화사회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자 다문화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장면2	다문화가정 내에 존재하는 어려움과 갈등이 조명되었다. 한부모의 어려움, 외국인 엄마의 한국어가 미숙해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족 간의 대화단절로 이어져 이주가정이 처한 어려움 중 하나이다.
	장면3	노만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이 드러난다. 친구들로부터 까말고 몸냄새가 난다는 놀림에 정체성 혼란으로 가출한 적이 있고 늘 씻고 다니지만 여전히 사회로부터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다.
종합 의견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다문화대안학교의 교육적 목표를 조명하여 다문화사회의 전반적인 현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로 아이들이 겪은 차별경험, 일기텍스트, 목욕탕장면과 부모의 진술 등 재현방식을 활용한다. 한국인 대 이주인 혹은 우리 대 그들로 이항대립하고 한국인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비판적 시야보다는 차별경험이 강조된다. 이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강조하고자 목욕탕에서 씻는 장면, 수돗가에서 씻는 장면으로 필요이상의 노출장면을 통해 피부를 강조하는데 이 또한 인종차별적인 접근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시선이다. 피해자관점에 집중하여 어린이들의 평범한 일상과 생각이 드러나지 않으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사례로 구성되었다. 차별을 공고히 하는 단어와 낙인집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시청을 통한 차별 학습을 경험하게 하여 또 다른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자. 싱글맘의 홀로 아리랑. 2011.5.17(27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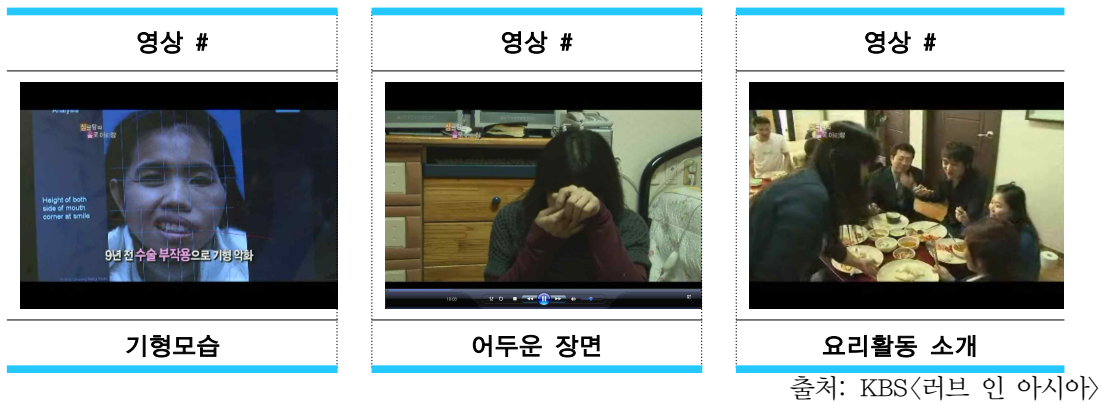
안면기형 장애를 가진 태국출신의 정완은 2003년 한국남자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8개월만인 임신 6개월에 남편과 사별하고 딸 혜인을 낳게 되었다. 아파나라에서 살자고 용기를 주는 딸 이가 있어 곳 곳하게 살아가려 노력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로 자녀를 키우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음식솜씨를 칭찬하고 교회에서도 그녀의 솜씨를 활용해 음식점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말이 선뜻데다 선천적으로 안면기형까지 있는 정완 씨에게 한국 생활은 막막하고 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지 못함을 어려워한다.

한부모 얼굴장애 여성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면기형 사진, 성형외과의 도움으로 변한 모습,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받는 소재를 재현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모국 방문코너에서는 태국의 세계적인 쿠킹 클래스에서 전문 요리 강습,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한국의 입맛과 재료구입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도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이지만 이혼, 사별 등으로 한 부모들이 늘어난다. ‘다문화’와 ‘싱글맘’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사는 다문화 한부모 패널이 등장하여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언어 문제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경험을 다룬다.

[그림Ⅲ-18] 재현분석



장면설명

- # 선천성 안면기형인 정완은 병원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는다.
- # 어린 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하지만 힘들어 울면서 사는 일상이다
- # 태국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음식솜씨 좋다는 평가와 음식점을 내도 좋겠다는 권유를 받는다.

다문화싱글맘 패널들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은 경제적인 어려움, 차별의 어려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겠네(자스민), 자녀로부터 비하(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다른 남자와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자녀 사례를 든다. 이것은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자신의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타자화되는 이주여성의 주변화 된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

다문화 싱글맘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찾아가서 같은 처지의 다문화 싱글맘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조명한다. 지원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싱글 맘들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치판단이 남성중심적이고 자국민 중심적인 사회임을 드러낸다.

[그림 Ⅲ-19]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자녀와 단절 경험	이방인 취급	불평등한 국제결혼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다문화 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 자녀로부터의 단절과 차별을 이야기한다.
- # 사별 후 주변에서는 이방인 취급하거나 필리핀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 #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다문화싱글맘 공동체모임의 여성사례. 결혼당시 들인 비용에 대한 불만을 가진 남편으로부터 폭력, 이혼 후 자녀를 시설에서 혼자 키우는 사례

주인공은 장애와 사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어린 딸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결혼이주 싱글맘으로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당당한 엄마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드러낸다. 또한 같은 처지에 놓인 이주 여성 패널과 다문화 싱글맘 공동체를 찾아 사례를 이야기하고 문제의식을 논의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증가와 사별 등으로 문화적인 배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양육에서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층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싱글맘을 돌아보는 메시지를 전한다.

〈싱글맘의 홀로 아리랑〉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정완, 사회자, 다문화싱글맘 패널, 다문화싱글맘 공동체회원
	방영/상영일자	2011.5.17(270회)
작품 요약		한국사회에서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이지만 이혼, 사별 등으로 한 부모들이 늘어난다. '다문화'와 '싱글맘'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사는 다문화 한부모 패널이 등장하여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언어 문제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장면 제시	장면1	선천성 안면기형인 정완은 다문화싱글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얼굴로 인해 사람들 앞에 나서기 어려웠다. 병원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다
	장면2	우는 모습과 어두운 장면을 통해 어린 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하지만 힘들게 사는 일상을 강조한다.
	장면3	태국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음식 솜씨 좋다는 평가와 음식점을 내도 좋겠다는 권유를 받는다.
장면 해석	장면1	다문화 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 자녀로부터의 단절과 차별을 이야기한다.
	장면2	사별 후 주변에서는 이방인 취급하거나 필리핀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장면3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다문화 싱글맘 공동체모임의 여성사례. 매매성 결혼 비용으로 인한 남편폭력으로 이혼 후 자녀를 시설에서 혼자 키운다.
종합 의견	다문화 싱글맘으로 사는 어려움을 조명하여 다문화가정의 해체에 따른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과 자녀문제를 드러낸다. 가정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냉대, 불평등한 결혼 구조, 폭력, 이주여성에게 불리한 법제 등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불평등한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해체 사례를 통해 한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 논의가 나타난다. 한국 땅에서 다문화 싱글맘으로 사는 사회적 어려움을 조명하기보다는 사적영역(얼굴장애)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안면기형 강조와 시혜적인 경제활동,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주변부 인생, 타자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차. 제주의 흑진주자매. 다문화 2세의 꿈. 2012.1.10(301회)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바라본 <다문화2세의 꿈>편에서는 제주에 거주하는 김현진(13) 윤주(10)세와 스리랑카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를 다루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한국거주 6년 된 두 자매는 문화적 취향과 식성도 달라 큰아이는 스리랑카 음

식을, 동생은 한식을 좋아하기에 식사시간에는 두 나라의 음식이 올려진다. 큰아이는 엄마와 대화에서 주로 스리랑카어를 사용하고 둘째는 한국어를 쓴다. 이중문화와 언어를 드러내기 위해 엄마와 딸의 대화 장면, 식탁에 올려진 두나라 음식을 보여주는 카메라 작업, 차별경험을 재연하고 진술하여 텍스트를 삽입하는 편집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림 Ⅲ-20] 재현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이중언어	카메라위치	차별언어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큰딸과 스리랑카어로 이야기하여 문화를 유지 한다
- # 큰딸과 엄마는 엄마문화를 아빠와 작은딸은 한국문화와 음식을 선호한다.
- # 아프리카 사람이라며 학교 친구들이 피부색을 지칭한다

두 아이는 한국에서 피부색으로 인한 놀림을 경험하는데 동생은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차별을 이겨내고 있으나 언니 현진이는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한국 적응이 어려워 스리랑카문화를 더욱 유지하려 한다. 엄마는 딸의 학교 친구들로부터 “아프리카 엄마” 라고 지칭되며 딸들이 친구로부터 듣고 있는 인종차별적 언어는 ‘피부가 까만 아프리카인’으로 드러난다. 이는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인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어두운 피부색= 아프리카인으로 왜곡된 고정관념이 팽배해있음을 알 수 있다.

큰 아이가 동생에 비해 적응이 어려운 것은 어린 시절을 엄마나라에서 더 많이 거주한 이유도 있지만 소심한 성격에 피부놀림은 매우 큰 충격이라 많이 울며 지냈다. 스리랑카의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스리랑카 인으로 고착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엄마나라 언어를 사용한 덕에 엄마와 함께 집근처의 소금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과 고용주간의 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봉사를 하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고용주는 현진이의 통역이 도움이 되고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하면서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애네들의 마음속 뜻까지 알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 고 성인들을 아이들로 지칭한다.

다문화자녀들의 꿈을 조명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리랑카의 사회부장관 면담을 통해 자매들의 미

래희망을 이야기한다. 큰딸은 한국과 스리랑카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부장관은 아이의 희망을 지지한다.

[그림 Ⅲ-21] 의미분석

영상 #	영상 #	영상 #
		
인종차별	인종차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미래

출처: KBS<러브 인 아시아>

장면설명

- # “애네들의 마음속 뜻까지 알 수 없어” 인근 소금공장업주의 비하 발언. 성인노동자들을 어린이처럼 폄하한다.
- # 큰아이의 한국 적응이 어려운 것은 친구들의 놀림, 아프리카엄마라는 인종차별적 인식
- # 아이들은 고향을 방문하여 스리랑카 사회부장관을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외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동으로서 미래 본국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직업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 프로그램은 늘어가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의 미래의 꿈을 다루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한국어에서 자라는 자매는 각기 적응의 모습이 다르고 한국에서 일상과 친구관계 맺기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 중 문화와 언어를 통해 건강한 정체성과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을 나타내는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과 언어차별 등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에 차별이 만연함을 알게 하였다.

〈제주의 흑진주자매. 다문화 2세의 꿈〉 분석표

개요	제목	러브인아시아 <다문화2세의 꿈>
	등급 및 장르	교양
	주요 출연진	김현진 윤지 스리랑카 엄마, 한국인 아빠
	방영/상영일자	12. 1. 10.(301회)

작품 요약		늘어가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였다. 제주에 거주하는 김현진(13) 윤주(10)세의 스리랑카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를 가진 자매 아동을 다루었다 이 어린이들은 스리랑카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온지 6년 된다. 두 자매는 문화적 취향과 식성도 달라 큰아이는 스리랑카 음식과 언어를, 동생은 한식과 한국어를 고수하여 가족의 식사시간에는 두 나라의 음식이 올려지고 일상에서 이중언어가 사용된다. 두자매의 한국 적응은 달리 나타나는데 부모는 이중문화를 유지해주고 이를 토대로 정체성과 자신의 미래를 찾고자 한다.
장면 제시	장면1	이중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가정을 소개하기 위해 스리랑카어로 이야기하는 엄마
	장면2	가정에 이중문화가 공존하는 사례제시. 매끼 두나라 음식 소개. 큰딸과 엄마는 엄마 문화를 아빠와 작은딸은 한국문화와 음식을 선호한다.
	장면3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인종차별적인 놀림언어 “까만 피부색” “아프리카인”
장면 해석	장면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하이다. 현진과 엄마가 통역봉사활동을 하는 인근 공장의 업주가 현진의 봉사활동에 감사해하며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애네들”이라고 지칭하는 언어차별은 우리사회에 무감각할 정도로 만연하다.
	장면2	친구로부터 “너의 아프리카 엄마 “ 라는 차별적 언어에 상처받아 적응이 어려운 자녀의 고통은 인종차별이 만연한 사회를 의미한다.
	장면3	아이들은 고향에 방문하여 스리랑카 사회부장관을 만나 외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아동으로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미래의 직업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종합 의견	다문화자녀들의 정체성, 문화적 경험 등 다문화가정의 희망과 그들의 정체성이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한 미래비전 제시 차원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중언어, 이중 문화, 음식 등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그러한 꿈을 실현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제시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관계,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자라나서 이로온 점을 찾고 어머니나라를 찾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화차이를 이해하며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인식개선의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구성에서조차도 외국인에 대한 편하, 부정확한 인종개념과 편견이 드러나고 있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확인한다.	

④ 총평

가. <러브 인 아시아>의 재현과 의미 해석

10편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매회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이주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동일한 구성형식으로 재현되고 있고 동일한 주제를 전달한다. 주인공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란 공통적인 메시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매주 다른 인물들을 동일한 틀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자, 패널, 이야기 소재 등이 스튜디오에 출연한 가족이나 이웃에게 칭찬과 지지를 받는 형식을 통해 한국살이에 잘 적응하는 이주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하여 가족 속의 한 사람이라는 보편적 위치로 놓고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일상들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핵가족과 대가족 속에 위치한 이주인의 일상과 그들의 가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결혼 이주인들 중에는 배우자의 지지를 받고 문화다양성을 담보하며 살고 있는 사례(아니타 91회, 제주의 흑진주 자매 301회), 가족의 지지를 받지만 사회적 편견을 겪는 사례(두루가49회, 130회엠마, 아시아공동체학교 173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우살리아, 148회), 한부모로 살아가며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홀로아리랑, 270회)등이 나타난다.

대가족의 모델은 시댁과 함께 사는 사례(판나영136회, 띠엔154회)와 외국인 남성 자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례(하빌우딘141회)로 구분되는데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동화주의 모습은 시댁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구조가 드러난다.

이주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제작방식은 사진, 어두운 조명, 슬픈음악, 영상편지, 텍스트활용 등으로 우는 장면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내용구성은 편견, 차별적 사례 등을 통해 주변화 된 인물임을 강조하는 고정적인 제작 관행의 틀이 부여된다.

이주인들이 진술하는 주요 차별경험은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두루가 49회, 하빌우딘 141회, 가우살리아 148회, 아시아공동체학교 173회, 싱글맘의 홀로아리랑 270회, 제주의 흑진주 자매 301회)과 반말 등 언어비하의 차별(하빌우딘 141회, 가우살리아 148회, 아시아공동체학교 173회, 제주의 흑진주자매 301회)로 나타났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소구하는 방식은 차별경험의 재연이다. 두루가(49회), 아시아공동체학교(173회), 싱글맘의 홀로아리랑(207회), 제주의 흑진주 자매(301회)에서 그들이 경험한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그들 자신과 가족, 혹은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게 한다. 아울러 ‘제주의 흑진주자매라는’ 주제어가 피부색에 의한 인종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을 통해 다루어진 내용과 재현방식은 문화다양성과 동화, 차별과 국제 이해적관점 등으로 범주화되어 의미가 전달된다.

〈표 Ⅲ-5〉 재현을 통한 의미 전달 범주

번호	제목	의미전달 범주
1	부산의 네팔덱, 유쾌한 두루가	문화다양성/ 차별
2	제주 아줌마 아니타의 생활백서	문화다양성
3	필리핀 엄마, 엠마의 '행복 극장'	국제이해적 관점/차별
4	나영이네 가족의 4대가 함께 사는 법	동화/차별
5	하빌우딘의 나의사랑 나의가족	문화다양성/ 차별
6	가우살리아 가족의 두 번째 꿈	동화/차별
7	가족에 발견	국제이해적 관점/차별
8	3년간의 다문화실험 아시아공동체학교	문화다양성/차별
9	상글맘의 홀로아리랑	동화/차별
10	제주의 흑진주 자매	문화다양성/차별

나. 다문화 제작을 위한 논의

다문화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며 다문화주체로 살아가는 결혼이주민을 다루는 프로그램 KBS <러브 인 아시아>의 분석을 통해 재현방식과 의미전달의 범주를 살펴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늘어가는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자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수차례 대표적 공익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시청자들의 지속적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주변화 된 이주민으로 규정하는 고정된 틀이 드러난다. 이주민 주체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상선정에서 고정된 역할 이미지와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정한 틀을 소구한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차별받는 이주민이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 사례로 선정하여 시혜적인 시야로 접근하여 동정심을 일게 하는 ‘일정한 소구적 틀’을 갖는다.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드러내고 차별경험을 나타내기 위한 재현방식은 다분히 양면성을 지녀, 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청을 통한 차별을 전달하게 되는 우려를 띤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담되 소수자들을 타자화하지 않으려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 제작현장에 인권차원의 다문화 감수성이 요구된다. 즉, 주변인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한 사실을 알리되 ‘이미지’와 ‘언어’는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이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는 메시지 전달 관점에서 제작현장에서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작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제선정과 재현방식일 것이다.

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은 ‘고향 찾아가기’ 코너를 통해 타문화 이해 도모와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언어 비하의 인터뷰를 제작에서 이를 바로잡은 사례(제주의 흑진주자매, 301회)가 있다. 공장주의 ‘애네들의 마음속까지 잘 모르거든’이란 인터뷰를 자막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마음속 뜻까지 ..’라는 수정 문구로 방송한 것을 들 수 있다.

몰이해의 시각도 나타난다. 예컨대 동남아여성들이 우리와 달리 사용하는 칼질 장면(띠엔, 154회), 며느리가 잠옷으로 나다녔다는 시아버지의 인터뷰 사례(판나영, 136회)에서 나타난다. 출신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덜 개화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희화화하는 제작 태도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비교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제작에서 개선되어야 할 관점은 크게 두가지 이다. 첫 번째는 인종적으로 ‘타자 요인’을 부가하는 소수자 재현 관행에서 탈피하기이다. 다른 하나는 이주민을 시혜의 대상, 주변부 집단 등 부정적 사회집단으로 고정하는 인식으로부터 개선과 다문화구성원을 수평한 관계로 인식하는 다문화감수성이 필요하다.

(5) 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사례 분석

① 분석 개요

본 절에서는 TV 오락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영상에 대한 재현 분석과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를 분석한다.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가 다문화 내용을 다룬 것이 있는가 하면, 특정 회차 혹은 에피소드식의 다문화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오락프로그램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던 것들을 대상으로 중점 분석을 시도했다. 기본적으로 다문화 제작에서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긍정적 유형에서는 이해, 소통, 평등, 갈등해소, 공존의 하위영역을 살피고 부정적 유형에서는 차별, 왜곡, 편견, 비하 등의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다문화의 주제와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이야기 소재와 표현 방식을 분석한다.

② 분석대상

가. 분석 목록

KBS <미녀들의 수다>의 2006년 11월 26일 정규방송 시작하면서 방송 초반에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외국인 여성 16명, 한국인 남성 5명의 패널이 참석해서 주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적응과정, 문화적 이질성 등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다. 그 중 다문화적 관점에서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장면을 선택해서 분석하였다.

[표 Ⅲ-8] <미녀들의 수다> 분석 목록

번호	내용	쟁점	방송일
1	이슬람권의 일부다처제	MC의 발언	2006.12.03
2	인종차별	한국인 남성패널의 퍼포먼스	2006.12.10
3	이중국적	출연진 이중국적 논란	2008.07.15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는 2009년 4월 4일 정규코너로 편성되면서 주말 오락프로그램 중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세 명의 MC가 진행하면서 고정 출연자와 특별 출연자가 함께 어울려 다양한 퀴즈를 풀어가면서 중간마다 이벤트를 가미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다문화적 관점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택해서 분석했다.

[표 Ⅲ-9]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 분석 목록

번호	내용	쟁점	방송일
1	인종차별	흑인 분장 패러디	2012.01.21

[표 Ⅲ-10] <1박2일> 분석 목록

번호	내용	쟁점	방송일
1	시청자게시판 논란	불법체류/강제추방	2012.01.02
2	외모에 대한 편견	국적 추정	2012.01.09
3	사회적 분위기	외국인범죄	2012.01.16

나. 구성 형식

여기서는 <1박2일>과 <세바퀴>는 제외하고 ‘다문화’를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국한해서 구성 형식을 다룬다.

<미녀들의 수다>는 한국에 거주하는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출연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나 문화체험을 전하거나 자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스튜디오에는 한국인 남성 패널 5명이 함께 출연해서 16명의 외국인 여성들의 발언에 대한 ‘리액션’을 담당한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편견, 왜곡 등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러한 부분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그러한 논란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혹은 다문화적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다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출연진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2006년 11월 26일 정규방송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 1월 4일 ‘시즌 2’로 개편되었으나 시청률의 저조로 인해 2010년

5월 3일자로 종영되었다.

〈미녀들의 수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토크쇼’라는 명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문화적 특징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출연진 구성에 있어서 출신국가와 인종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젊은 여성으로 출연진을 배치하다 보니 직업 분포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회사원, 모델, 영어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담아내려고 했다. 국내 체류 기간 역시 1년 이하에서 5년 이상에 이르는 분포를 고루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실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남녀관계나 여성외모, 음담패설 등 섹슈얼리티 및 여성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성을 부각시키고 여성을 대상적 존재로 부각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남성 우월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백선기·황우섭, 2009)

③ 분석 내용

가. 미녀들의 수다

1) 2006년 12월 3일자 방송



[그림 Ⅲ-33] ‘미녀들의 수다’ 방송 화면 캡처

이슬람권에서 일부다처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자, 남성 진행자는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어요?” 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한국인 남성 패널들 역시 부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장면은 다문화라는 형태를 빌어 전형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서 프로그램의 성격 및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아닌 자문화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2) 2006년 12월 10일자 방송



[그림 Ⅲ-34] ‘미녀들의 수다’ 방송 화면 캡처

검은 피부의 미국인 레슬리 벤필드와 혼혈인 에바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남성 패널 가운데 한 명이 무대 위로 나와서 퍼포먼스를 했다. 남성 패널이 검은색 가발을 쓰고 나와서 “시커먼 쓰! 시커먼쓰!” 하고 연이어 외쳤는데, 이 장면은 과거 개그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그 자체로서도 흑인을 비하하는 요소가 다분했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무대 위에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점에서 매우 노골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드러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 역시 흑인 비하를 비난하면서 사과하라는 분노를 표출했다. 애초 프로그램의 의도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만큼 그 의도에 역행하는 장면으로 꼽힌다.

3) 이중국적 논란

2007년 출연했던 일본인 사오리씨의 부모님이 한국계 재일교포로서 일본과 한국의 이중국적 논란이 일어났다. 실제로는 재일교포 2세인 아버지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20세에 일본에 와서 결혼한 어머니도 한국인이다. 따라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한국인이었고, 일본에서 20세가 되었을 때 국적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했다고 한다. 본인은 ‘방송에서 한국국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편집됐다’고 하면서, 이중국적 논란은 제작진의 부주의 혹은 잘못된 의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출연자 중 채리나씨 역시 국적 논란에 휩싸였다. 시청자들은 ‘순수 중국인’ 인줄 알았다가 ‘조선족’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었다. 실제로 채리나씨는 부모 중 한 명이 조선족이며 중국 지린(吉林)성 옌벤(延邊)의 조선족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제작진은 조선족도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국적 논란은 여전히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제작진 역시 바로 그러한 구별짓기의 모순에 빠져서 사오리씨나 채리나씨의 국적을 사실대로 밝혔을 경우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지 않는 출연진이라는 오해를 살까봐 그러한 사실을 숨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순수 혈통 혹은 국적 등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단일민족 전통에 대한 뿌리깊은 향수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녀들의 수다〉 분석표

개요	제목	미녀들의 수다
	등급 및 장르	15세 관람가 / 토크쇼(오락)
	주요 출연진	남희석(진행자), 남자 패널 5명, 외국인 여성 16명이 기본 구성
	방영/상영일자	2006년 11월 26일 정규방송 시작, 2010년 5월 3일 마지막회
작품 요약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그들의 경험, 문화체험 및 자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앙케트와 토크쇼 형식. 2006년 10월 7일 추석에 첫 방송이 좋은 반응을 얻어 2006년 11월 26일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었다. 2010년 1월 4일 방송분부터 시즌 2로 개편되어 방송되었다가, 저조한 시청률 등으로 인해 2010년 봄 개편을 맞아 5월 3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장면 제시	장면 1	2006년 12월 3일 방영분에서는 이슬람권이 일부다처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자, 진행자(남희석)를 비롯한 남성 패널들이 “그런 좋은 나라가 있어요?”라며 부러운 듯 농담을 던졌다.
	장면 2	2006년 12월 10일 방송분에서 검은 피부의 미국인 레슬리 벤필드가 무대로 나와 약스의 ‘오빠’를 열창하던 중 남성 패널 중 한 명(천명훈)이 가발을 쓰고 “시커먼쓰~ 시커먼쓰~”를 연이어 외쳤다.
	장면 3	○ 2007년 출연자 사오리씨가 어머니가 한국계 재일교포로서 일본과 한국의 이중국적 논란이 일었다. ○ 2008년 여성 출연자 중 채리나씨가 순수한 중국인이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 조선족이며 조선족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실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장면 해석	장면 1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한 발언이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족,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장면 2	프로그램 전개과정의 맥락에 있어서도 전혀 이해하기 힘든 장면으로서, 흑인 비하라는 인종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다양한 국가와 인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인 만큼, 그러한 의도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면 3	타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에서도 국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순혈주의나 민족주의, 자문화중심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의견		○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편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던 영국과 미국 등 서구사회의 모습이 상대화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미녀는 주로 ‘백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미녀’는 더 이상 백인에게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출연진 외국인 여성의 국적과 직업의 다양성 역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라는 대칭적 구도는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여성의 대상화 혹은 성애화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출연진의 외모와 복장, 좌석 배치 등에 있어서 외국인 여성들을 시각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출연진들이 '미모'를 갖춘 이들로 포진시키고, 카메라는 끊임없이 그들의 신체 구성 구석을 담아내는 것이다.

○ 외국인 여성이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친근성이 높은 사람들을 출연시킨 측면이 강하다. 이는 자국중심주의로 그를 위험성이 있는데, 결국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자국의 우수성이나 우월성의 논리를 재생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나. 세상을 바꾸는 퀴즈



[그림 Ⅲ-35] 세.바.퀴 방송 화면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내용 캡처

2012년 1월 21일 설특집 방영분에서 고정 출연자인 두 명의 여성개그맨이 만화캐릭터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해당 만화는 <아기공룡 둘리>라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만화였고, 이 만화에 등장하는 '마이콜'이라는 흑인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우 코믹한 요소들로 채워지면서, 흑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그림 위)

이에 대해 한 흑인 여성은 'MBC는 대체 무슨 생각이냐'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항의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욕설을 사용하며 "한국인들은 다른 인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림 아래) 또 다른 백인 여성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상을 올려 "이는 흑인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다.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식 사과를 했으며,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장면은 〈미녀들의 수다〉에서 흑인비하, 인종차별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통해 항의 영상까지 게시되는 등 사회적, 국제적 여파에 의해 파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다시보기’를 삭제함으로써 제작진의 사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세바퀴〉 분석표

개요	제목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
	등급 및 장르	15세 이상 관람가 / 버라이어티쇼(오락)
	주요 출연진	김구라, 박미선, 이휘재 진행
	방영/상영일자	2012.01.21[설 특집]
작품 요약		2008년 5월 25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로 편성되었으나, 2009년 4월 4일부터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모니터링 분석	장면	2012년 1월 21일 설특집으로 진행된 방영분에서 이경실과 김지선이 〈아기공룡 둘리〉의 캐릭터인 마이콜을 패러디한 흑인 분장을 하고 나왔다. 이것을 본 한 흑인 여성이 항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놓았고, 또 다른 백인 여성도 영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쟁점분석	장면	이 장면은 지극히 자문화중심주의를 드러낸 부분이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한다고 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떤 기준과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종합의견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시청자 등 외부적 시선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작진에게 근본적으로 다문화 인식의 부재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시청자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해결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울러 국내 시청자들의 경우 〈아기공룡 둘리〉의 마이콜의 패러디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주로 ‘유튜브’를 통해 본 해외 시청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사회에서 인종적 관점에 대해 객관화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된다.

다. 해피선데이-1박2일(시즌1) ‘외국인근로자 특집’ 편

1) 불법체류자 논란

‘외국인근로자 특집’ 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시청자들이 있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도대체 정신 있는 방송인가. 외국인 범죄율 증가와 불체 증가로 인해 자국서민들은 그들과 밥그릇 경쟁하고 있는 걸 저들은 보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일종의 박탈감을 토론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도 ‘불법체류자’ 로 낙인찍힌 이들에게 더 가혹한 화살을 겨누기 마련이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과정에서 출연진 가운데 한 명이 강제추방된 적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이 올라오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차별적 시선이 논란이 되었다. 설령 출연진이 그러한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불법적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2) 외모에 대한 편견

[그림 Ⅲ-36] KBS ‘1박2일’ 방송 화면 캡처



1월 9일 방영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출연자 한 명이 김종민씨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는 물음을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외모를 통해 상대방의 국적을 추정하는 편견을 드러내는 장면인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 장면에서 만약 한국인이 질문을 하는 것과 외국인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외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외모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국적을 표현하는 것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3) 외국인 범죄

일부 시청자들은 게시판에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게시판에는 “진짜 갑갑하다. 외(국인)노(동)자 특집이라니...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범죄율 너무 심한지는 아시나? 알고보면 불체자나 외노자나 다 거기서 거기인데 말이지. 오늘 1박보다가 최초로 채널 돌렸다.” 이러한 글은 외국인근로자 범죄율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검증하지 않은 채 뉴스에 나오는 사건만으로 추정하고 말하는 것이다.

〈해피선데이-1박2일(시즌1)〉 분석표

개요	제목	해피선데이-1박2일(시즌1)
	등급 및 장르	12세 이상 관람가 / 버라이어티 쇼(오락)
	주요 출연진	강호동, 이수근, 이승기, 김종민, 김C, 은지원/ 네팔 출신 까르끼, 방글라데시 출신 칸, 캄보디아 출신 쏘완, 파키스탄 출신 아길, 미얀마 출신 예양
	방영/상영일자	2012.01.02/09/16[외국인근로자 특집 ‘아시아의 친구들’ 1부, 2부, 3부]
작품 요약		1박 2일은 2007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 한국방송공사 2TV에서 방송된 버라이어티 쇼로,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를 모토로 대한민국 각지를 돌아 다니면서 1박 2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즌2’ 가 진행중이다.
장면 제시	장면1	외국인근로자 특집이 방송되면서, 시청자게시판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생기는 범죄의 심각성을 기만하고 이들을 미화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게다가 이날 출연한 외국인 근로자 중 한 명이 과거 강제 추방된 적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면2	9일 방송분에서 강호동의 외국인 친구 까르끼(네팔)가 김종민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매우 당황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면3	외국인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점에 외국인근로자 특집을 한 것에 대해 방송

		게시판을 통해 시청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장면 해석	장면1	외국인불법체류 문제와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별개의 것임에도 사람들은 그 관계를 같은 문제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결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면2	외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역설적으로 외모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장면3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그들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범죄 비율이 국내인의 범죄 비율보다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일부 외국인'의 범죄로 인해 '모든 외국인'을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다.
종합의견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근로자'와의 정서적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한 장치로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라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부각시킴으로써 감동을 자아내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나 불법 체류 등 객관적 사실만을 강조하는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획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가 전제된 것은 아닌가 하는 혐의를 둔 것이다.

④ 총론

가. 오락프로그램의 재현과 의미 해석

TV 오락프로그램은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 프로그램이 다문화를 어떻게 재현하는가에 따라 동시대적 다문화의 이해와 감수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녀들의 수다〉와 〈세바퀴〉, 〈1박2일〉에서 재현되는 다문화 이해도는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미녀들의 수다〉의 경우에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출연시키면서도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드러내는가 하면, 국적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 등은 애초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들이다. 〈세바퀴〉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외국인이나 다른 인종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인종에 대한 무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고보다는 일정한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반문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1박2일〉의 경우에는

나. 다문화 제작을 위한 논의

지금까지 한국인의 정체성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문화적 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이해와 학습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뿐만 아니라 성별과 세대, 직업의 분포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라고 해서 인종과 국적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 다문화를 통해 특정한 계층이나 성별, 세대를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 중심의 가십이 아니라 좀 더 생활 속에서의 갈등과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의 제작은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 성별, 세대, 직업, 학력 등 다양한 차이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어느 정도 갈등 과정을 거치더라도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오락프로그램은 그러한 장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인종이나 국적, 학력, 직업 등을 기준으로 다문화 출연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는 이들을 섭외하는 것도 필요하다.

(6) 광고 모니터링 분석

① 분석개요

광고는 기본적으로 상징성이 강한 영상 텍스트와 압축적인 서사 구조의 언어(자막과 내레이션) 텍스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광고 분야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제작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제작 의도에 비중을 두고 분석한다.

광고에서 소구하는 다문화에 대한 관점은 크게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공감, 소통, 평등, 갈등해소, 공존 등의 긍정적 유형과 차별, 왜곡, 편견, 비하, 몰이해 등의 부정적 유형으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전반적으로 TV교양프로그램의 분석 양식과 동일하게 텍스트에 의한 ‘재현’과 제작방식으로 도출되는 의미 생성 단계인 ‘해석’ 두 개의 분석틀을 활용한다. 분석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광고 소재로 활용함에 있어 광고의 제작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분석대상

가. 분석 목록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중파 방송(KBS1, KBS2, MBC, SBS, EBS)를 통해 송출된 공익광고¹⁵⁾

를 1차 대상으로 한다. 영상광고(TVCF) 형태의 공익광고 중에서 시청자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소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고를 선별하여 이 중 제작 의도에 반하는 내용으로 표현된 8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Ⅲ- 2〉 다문화 주제 광고 분석 목록

번호	제목	광고주	방송시기
1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MBC/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2008년 5월
2	당신처럼 1	하나금융그룹	2008년 11월
3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09년 2월
4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10년 2월
5	다문화 가정 모국어 도서지원	아시아나항공	2010년 5월
6	당신처럼 2	하나금융그룹	2010년 11월
7	함께하는 어울림을 배웁니다	NH농협	2011년 7월
8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	NH농협	2011년 11월

나. 구성형식

광고는 40초 내외 길이의 압축적인 서사로 진행되며 영상과 자막, 내레이션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분석 대상은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자막과 내레이션은 ‘언어 텍스트’로 재현된 영상은 ‘영상 텍스트’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림Ⅲ-37] 다문화 광고 기본 포맷

영상	언어
	아직 우리글이 서툰 준호 엄마를 위해 날다마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자랍니다. “언니, 고마워요.”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시혜 대상인 결혼이주여성	호칭의 차별을 통한 사회적 계층 분리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5) 공익광고는 상업적 접근이 아닌 공공의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일반 공중에게 인지도시키고, 그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설득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다. 국제광고협회(IAA)는 공익광고를 ‘광고의 한 형태로서 일반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 또는 일을 지원, 실행하거나 실행할 것을 권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에서 공익광구의 범주는 공익성 기업광고, 공익성 정부 정책홍보 광고 등을 포함한다.

③ 분석내용

가.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2008년 5월(MBC/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 외국인 엄마를 둔 광준이가 크레파스로 엄마의 얼굴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엄마가 오신 후 그림 속 엄마의 얼굴을 갈색 크레파스로 칠해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같은 반 여자 친구의 내레이션으로 ‘남들은 광준이 엄마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우리 엄마와 똑같은 엄마’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림Ⅲ-38] 의미 해석

영상 텍스트	언어 텍스트
	오늘은 엄마 아빠들이 오시는 날. 아직 엄마의 얼굴을 완성하지 못한 제 짝꿍 광준이. 오늘따라 광준이 엄마가 늦으시나 봅니다. 남들은 광준이 엄마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우리 엄마와 똑같은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사랑 캠페인은 유한양행과 유한가족이 함께합니다.
남루한 다문화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의 무조건적 수용을 유도하는 내레이션

장면설명

영상 : 덩수룩한 머리에 혼자만 철지난 겨울 옷을 입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인 광준이

NARR. : 남들은 광준이 엄마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우리 엄마와 똑같은 엄마입니다.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시청자에게 동정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반의 친구들은 모두 밝고 가벼운 옷을 입은 것에 반해 광준이만은 어두운 색상의 두터운 스웨터를 입고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동정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광준이가 엄마의 얼굴을 칠하기 위해 집어 든 살구색 크레파스의 손잡이 부분 중이가 사선으로 벗겨져 있는데 압축적인 영상인 광고가 재현하는 각각의 컷이 모두 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루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연출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언어 텍스트에서는 ‘대한민국은 한가족’이라는 마지막 멘트를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한 가족의 범주 안에 동화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다름과 같음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빠진 채 무조건적인 동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이 광고의 제작 의도에 동화주의가 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분석표

개요	제 목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광 고 주	MBC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요 출연진	다문화 가정의 일가족 3명, 초등학교 학생들
	방영/상영일자	2008년 5월
작품 요약		학부모 참관수업이 있는 초등학교 교실. 외국인 엄마를 둔 광준이가 크레파스로 엄마의 얼굴을 완성하지 못하다가 엄마가 오신 후 갈색 크레파스로 얼굴색을 칠하는 모습. <i>narr</i> 오늘은 엄마 아빠들이 오시는 날. 아직 엄마의 얼굴을 완성하지 못한 제 짝꿍 광준이. 오늘따라 광준이 엄마가 늦으시나 봅니다. 남들은 광준이 엄마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우리 엄마와 똑같은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사랑 캠페인은 유한양행과 유한가족이 함께합니다.
장면 제시	분석 1 (언어 텍스트)	① 남들은 광준이 엄마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우리 엄마와 똑같은 엄마입니다. ② 대한민국은 한가족입니다.
	분석 2 (영상 텍스트)	① 덩수룩한 머리에 혼자만 유독 겨울옷을 입은 광준이 ② 광준이가 천 크레파스의 남은 종이를 클로즈 업 편집
장면 해석	분석 1 (언어 텍스트)	① ‘엄마’ 라는 사회 통념적 기준으로 보면 결혼이주여성도 ‘똑같은 엄마’ 라고 아이의 입을 통해 말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의 변화를 유도한다기보다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도하는 단순한 호소에 지나지 않음. ② 대한민국은 한가족이라는 말은 가족주의를 국가주의까지 확장시키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로의 일방적인 동화를 자연화시키고 있음.
	분석 2 (영상 텍스트)	① 친구들은 모두 밝고 가벼운 옷을 입었는데 광준이만 어둡고 두터운 스웨터를 입고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동정을 유발시킴. ② 옷차림 뿐만 아니라 소품까지 남은 모습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남루한 모습으로 그려 이들을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종합 의견	주위 친구들에 비해 어두운 색상의 두터운 스웨터를 입은 모습과 덩수룩한 머리 등 단정하지 못한 외모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보여주고 주요 소품으로 등장하는 크레파스도 남은 모습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닌 한국 선주민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구성 역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수동적인 인물형으로 규정하고 주변화하는 한편 광고 수용자에게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태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도록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다문화 논의가 시작된 초창기 미디어의 입장이 동화주의적 입장을 당연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광고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남루한 모습으로 그려 이들에 대한 연민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그러나 일부에게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무조건적 시혜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으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가족 구성에 대해 왜 동정을 느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광고는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힘들다.

나. <당신처럼 1> 2008년 11월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의 <당신처럼 1>은 다양한 광고주들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던 2008년에 등장한 광고이다.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초기에는 잘 만들어진 광고로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일부에서 동화주의적 시각을 지적하기도 했다.

광고의 구성은 흑백 화면의 스틸 컷으로 연속 구성된 형식과 내레이션 내용이 자막으로 함께 처리된다. 베트남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한국의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한국적인 요소를 언급해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림 Ⅲ-39] 의미 해석

영상	언어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땅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스무 살이 넘으면 군대에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우리사회에 행복하나 더하기 (자막)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일, 내일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흑백 화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소재를 통한 동화주의

장면 설명

영상 : 김치와 밥을 먹고, 축구를 보며 대한민국을 외치며, 군화를 신은 모습의 다문화 가정 아동

NARR. :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땅이라 생각합니다.

스무살이 넘으면 군대에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자막 :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일, 내일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김치, 세종대왕, 독도, 축구, 군대 등 한국적인 것들의 나열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우리와 정

서적 동질감을 가진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은 또한 민족주의적 요소들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의 입장이 아닌 아버지 나라의 문화가 우월하고 지배적인 문화라는 논리를 함의하고 있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시키는 이런 소재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한 화합을 유도한다는 것은 타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화다양성을 인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영상이 전반적으로 흑백으로 처리된 점은 대상을 전형적으로 타자화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 광고에서는 흑백 화면 처리를 통해 이주민이나 혼혈인의 피부색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종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피부색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장치로 읽힌다. 분명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서 구성된 가정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라의 문화를 주요한(또는 중요한) 문화로 습득하게 되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동화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른다. 어쩌면 이들 가정의 약자인 결혼이주여성 역시 동화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들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이 아닌 다른 국적, 다른 인종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아버지 나라(또는 거주하는 나라의 개념으로써 한국)의 문화만을 습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 가족도 있다. 광고가 아닌 TV 다큐멘터리에서 방송된 다문화 가정의 사례를 보면 일부 서구 유럽의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경우 동일한 비중의, 최소한 이중 문화에 대한 수용의 차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포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를 통한 동화주의적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자막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 내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 인권 존중의 차원이 아닌 군대를 가고 세금을 내는 국가 구성원으로 보는 국가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이미 합법적인 국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세금이라는 국민의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책무 이행을 단서로 조건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당신처럼1〉 분석표

개요	제 목	당신처럼 1
	광 고 주	하니금융그룹
	주요 출연진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자녀
	방영/상영일자	2008년 11월
작품 요약		베트남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한국의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김치, 세종대왕, 독도 등의 기호를 통해 호소함. <i>narr)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땅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i>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스무 살이 넘으면 군대에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우리사회에 행복하나 더하기 (자막)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일, 내일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장면 제시	분석 1 (언어 텍스트)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 각하고,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스무 살이 넘으면 군대를 가고 세금 을 내고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신과 같은 한국인이다.
	분석 2 (영상 텍스트)	흑백화면으로 진행되는 영상
장면 해석	분석 1 (언어 텍스트)	김치, 세종대왕, 독도, 축구, 군대 등 한국적인 것들의 나열을 통해 다문화 가 정의 아이가 우리와 정서적 동질감을 가진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호소하고 있 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아버 지의 나라 문화가 우월하고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분석 2 (영상 텍스트)	어두운 톤이나 흑백의 화면 모두 광고의 소구 내용과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진실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광고의 경우 흑백 화면의 처리가 피부색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인종 차별주의적인 시선을 은폐하고 있음.
종합 의견	김치, 세종대왕, 독도, 축구, 군대 등의 한국적인 요소들은 1차적으로 광고 수용자가 한국의 선주민이 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민족주의적 요소들로 작용한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은 흑백 화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민/혼혈인과의 피부색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동 화와 은폐를 통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우리’로 만드는 동화주의적 태도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동화는 향후 다음 세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공간이 크다. 자국 내에서도 다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키우지 못한 이들에게 세계 무대에서의 글로벌 수용성은 요원하다. 압축적 미 디어인 광고에서 먼저 차이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화합을 모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2008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의 학업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에서 온 알림장을 읽어주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이웃의 따뜻한 모습을 통해 이웃의 도움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Ⅲ-40] 의미 해석

영상	언어
	아직 우리글이 서툰 준호 엄마를 위해 날마다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자랍니다. “언니, 고마워요.”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어두운 톤의 화면	차별적 호칭의 사용

장면 설명

영상 : 어두운 톤의 화면, 옷차림의 변화가 없는 이주여성에 비해 옷이 바뀌는 이웃 사람

NARR. : 우리글이 서툰 준호 엄마를 위해 날마다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가장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호칭의 문제이다. 내레이션에서는 분명히 우리글이 서툰 준호 ‘엄마’를 위해 알림장을 읽어주는 사람이 민지 ‘어머니’라고 언급되어 있다. 김혜순(2009)은 현재 미디어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불쌍하고 어린 부녀자’로 ‘타자화’ 시키고 ‘유아화’ 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상황을 지적했는데 극단적으로 호칭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세분화된 한국어의 체계로 본다면 존칭의 당사자는 시혜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결과적으로 계급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준호 엄마가 한글에 서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은 없고 이 문제를 ‘이웃’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광고에서도 역시 화면 톤을 조절하여 피부색의 차이를 은폐하고 있다. 순혈주의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다름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완화시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므로 인종주의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엽적이기는 하나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옷차림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인 준호 엄마는 시종일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데 반해 민지 엄마는 총 세 차례 의상이 바뀐다. 이제까지 확인한 것처럼 대체로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동정적으로 대상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라하게 그려왔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지 엄마의 옷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준호 엄마의 의상 역시 제작 의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분석표

개요	제 목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광 고 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요 출연진	리사 수고르(준호 엄마), 민지 엄마
	방영/상영일자	2008년
작품 요약		농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돌봄에 있어 알림장을 읽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 <i>narr) 아직 우리글이 서툰 준호 엄마를 위해 날다마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자랍니다. “언니, 고마워요.”</i> <i>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i>
장면 제시	장면 1 (언어 텍스트)	① 민지 ‘어머니’ 와 준호 ‘엄마’ 의 차별적 호칭 ② 우리글이 서툰 준호 엄마는 ‘당신’ 의 사랑이 있어 힘이 된다.
	장면 2 (영상 텍스트)	①의도적으로 어둡게 처리한 전체적인 화면 톤. ②민지 엄마의 옷은 세 번 바뀌고 준호 어머니는 같은 복장에 남루한 모습으로 그려짐.
장면 해석	장면 1 (언어 텍스트)	① 내레이션에서 알림장을 읽어주는 이를 ‘어머니’ 라는 존칭으로, 도움을 받는 이를 ‘엄마’ 라고 칭함으로써 결혼이민자 여성을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함. 호칭이 세분화된 한국어에서 존칭의 당사자는 시혜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결과적으로 계급적 우위를 점하게 됨. ② 준호엄마가 한글에 서툰 이유는 무엇인지,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이 문제를 ‘이웃’ 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장면 2 (영상 텍스트)	① 광고 속의 시간적 배경이 겨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된 어두운 톤의 화면은 등장인물들의 피부색을 구분할 수 없게 함. 광고의 소구 내용이 긍정적임에도 이 어두운 톤의 화면이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라앉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피부색의 차이를 은폐하고 또한 차이에 대한 인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읽힘. ② 같은 시골에 살면서도 민지 엄마는 컷마다 옷이 바뀌는데 비해 이주여성의 한 번도 바뀌지 않음. 이는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전달하는 압축적인 광고

	의 특성상 이주 여성의 남루함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임.
종합 의견	한글이 서툰 아이의 학업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이웃의 긍정적인 모습에 제작 의도는 충분히 반영되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주민에 대한 호칭의 문제는 한글이 서툰 준호 '엄마' 와 이를 돕는 민지 '어머니' 라고 칭함으로써 내재적 차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호칭을 통한 계급 설정이야말로 이주민에 대한 가장 손쉬운 폭력이고 이렇게 설정된 계급의식이 이주민들을 원치 않는 사회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광고에서 화면 톤으로 피부색의 차이를 은폐하는 것은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순혈주의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다름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완화시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므로 화면 톤 다운은 차이 인식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4.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한국을 빛낼 축구선수가 되고 싶고,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되고 싶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 레인보우 합창단(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과 객석에서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주민 여성을 보여 준다.

[그림 III-41] 의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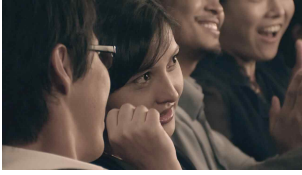
영상	언어
	sov) 한국을 빛낼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될 거예요. narr) 꿈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함께하면 더 빛나는 하모니처럼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각국 전통 의상을 입은 합창단	'하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장면 설명: 영상 :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아리랑을 부르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

NARR. : 한국을 빛낼 축구 선수,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성공 신화를 동경한다. 광고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장래 희망에 대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익숙한 이 담론은 세계 일류, 최고 등 능력주의와 국가주의적 태도를 자연화시키고 있다. 더 큰 대한민국이 함의하는 바 역시 최고가 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Ⅲ-42] 의미 해석

영상	언어
 합창단의 노래에 눈물 흘리는 이주여성	M) '아리랑' 합창곡 ' - 레인보우 합창단 narr)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 대한민국에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 듭니다. 합창곡 '아리랑'

장면 설명: 영상 :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장 객석에서 이주민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눈물을 닦는 모습
NARR. : '아리랑' 을 부르는 레인보우 합창단

국내 최초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합창단인 레인보우 합창단은 각자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의 전통 복장을 입고 '아리랑' 을 부른다. 세계 각국의 민속 의상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문화의 상징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시각적인 다양성만을 충족시키는 '타자 소비하기' 에 다름 아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정통 의상을 입은 것이겠지만 왜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리랑' 인가. 다수자들로 하여금 소수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 어떻게 문화 다양성을 담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석에서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을 보는 관객들 중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다. 이들 중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광고의 수용자 입장에서 이주민을 - 여기에서는 레인보우 합창단원들 이든, 객석에서 울고 있는 이 여성이든 -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온정주의를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의도적인 제작 방향으로 인해 이주민을 소극적이고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각인시키게 되면, 이차적인 차별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분석표

개요	제 목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광 고 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주요 출연진	다문화 가정의 2세대, 레인보우 합창단원들
	방영/상영일자	2010년
작품 요약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인터뷰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으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줌. sov) 한국을 빛낼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 세계최고의 피겨 선수가 될 거예요

 		요 narr) 꿈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함께하면 더 빛나는 하모니처럼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M) '아리랑 합창곡' - 레인보우 합창단 narr)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 대한민국에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장면 제시	장면 1 (언어 텍스트)	한국을 빛낼 축구선수,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
	장면 2 (영상 텍스트)	① 각국의 전통복장을 입고 합창하는 아이들의 모습 ② 합창단의 모습을 객석에서 보고 눈물 닦는 이주여성의 모습
장면 해석	장면 1 (언어 텍스트)	다문화 자녀들만이 아닌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성공 신화를 동경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세계 일류의, 최고의 등 능력주의와 국가주의적 태도를 자연화시킨다.
	장면 2 (영상 텍스트)	① 합창단 아이들이 각국의 전통 옷을 입고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보다는 한국적 민족주의 안으로 흡수통합하는 동화주의적 이미지가 강함. ② 이를 보고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주여성의 이미지는 영상의 수용자로 하여금 이주민을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온정주의를 강화함.
종합 의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레인보우 합창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 광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인터뷰와 이 아이들이 어머니(또는 아버지) 나라의 전통 복장을 입고 합창단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으로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 광고에서 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유독 전통의상을 입고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적으로는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타자 소비하기'와 다르지 않다. 이런 형식이 다수자들로 하여 소수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면에서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객석의 우는 이주민의 영상을 도입한 것 역시 온정주의에 호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데 이주민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영상의 수용자는 이주민에 대한 연민을 1차적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마. <다문화 가정 모국어 도서지원> 2010년 5월(아시아나항공)

비현실적으로 재현된 공간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인다. 기다림 끝에 입장한 곳은 푸른 초원 한가운데 지구본처럼 지어진 책으로 만든 건조물. 그 위에서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즐겁게 어울리고 있다.

[그림Ⅲ-43] 의미 해석

영상	언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가고 싶은 엄마의 나라, 책으로 먼저 여행합니다. 아시아나의 꼬마 고객들은 엄마 나라로 여행 중. 자막) 12만 꼬마 고객들을 모시자./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국어 도서지원
인종적 다양성이 드러나는 아이들의 모습	모국어 도서 지원

장면 설명: 영상 :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인종적 다양성이 담김

자막 : ‘모국어’ 도서 지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중에 아프리카계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통계상 12만 명 이상이라고 자막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영상에는 아시아계나 백인계 혼혈 아동들만이 보이는데 아마도 피부색이 짙은 인종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종에 따른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공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한국형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모국어’의 모호한 개념 때문에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혼란이 온다. 광고에서 사용한 ‘모국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사전적 의미와 어머니 나라의 언어라는 중의적 의미로 읽힌다. 이 둘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자녀가 과연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이중 언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라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국어 도서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지 않을까 싶다. 독서와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연결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제작 의도와 기업의 방향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외국어 도서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당위성을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모국어 도서지원〉 분석표

개요	제 목	다문화 가정 모국어 도서지원
	광 고 주	아시아나항공
	주요 출연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아시아나 승무원들
	방영/상영일자	2010년 5월
작품 요약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외국어로 된 책을 읽으며 밝게 웃는 모습. <i>nar)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가고 싶은 엄마의 나라, 책으로 먼저 여행합니다. 아시아나의 꼬마 고객들은 엄마 나라로 여행 중</i> <i>자막) 12만 꼬마 고객들을 모시자/다문화를 위한 모국어 도서지원</i>
장면 제시	분석 1 (언어 텍스트)	(자막) '모국어' 도서지원
	분석 2 (영상 텍스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수많은 아이들이 등장하지만 아프리카계 아동은 없음.
장면 해석	분석 1 (언어 텍스트)	광고에서 쓰인 '모국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사전적 의미와 어머니 나라의 글이라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됨. 그러나 이 둘은 정반대의 뜻이고 또한 결혼이주 여성이 일방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과연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운 것인지, 이중 언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현 다문화 가정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분석 2 (영상 텍스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통계상 12만 명 이상이나 되는데도 영상에는 아시아계나 백인계 혼혈아동들만 보임. 아프리카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피부색이 짙은 인종을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임.
종합 의견	독서와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연결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제작 의도는 긍정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도서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당위성을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한국의 현 상황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다문화를 말하면서 영상에 아프리카계 인물이 등장하	

지 않는 것은 인종에 따른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공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한국형 인종주의를 강화하게 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바. <당신처럼 2> 2010년 11월(하나금융그룹)

동일 광고주의 2년 전 광고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광고이다. 흑백 스틸컷 영상에 내레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이점을 부각시켜 이들을 미래를 위한 인재로서 긍정하고 있다.

[그림 Ⅲ-44] 의미 해석

영상	언어
	베트남 엄마를 둔 이 아이는 재능이 참 많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는 통역사, 친구들 앞에선 선생님, 친척들에게는 가이드, 미래의 꿈은 외교관.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이 땅의 인재입니다. 당신처럼. 우리 사회에 희망 하나 더하기. 이 캠페인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합니다. (자막)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일입니다.
흑백 영상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이 땅의 인재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일

장면 설명: 영상 :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는 교실 학습 분위기

NARR. :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이 땅의 인재입니다.

자막 : 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일입니다.

동일한 광고주가 시리즈로 제작한 광고이기 때문인지 동일한 콘셉트의 흑백화면으로,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등장한다. 여전히 피부색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으며 이전과 같은 방식의 광고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광고에서처럼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고, 친구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고, 베트남에서 온 친척들에게 도시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혼혈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만 가능한 일이며, 그 사회가 문화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이중 문화에 호의적인 것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부끄러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위와 같은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가 되는 언어 텍스트 중 자막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이 인권의 차원이 아닌 국가주의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내레이션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이 땅의 인재라는 설정으로 개인을 국가의 발전에 일조하는 도구로 보는 인식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국가와 민족, 개인을 동일시 경향이 강하다. 한국 출신의 배우가 헐리우드의 영화에 출연을 하면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하고 한국 국적의 스포츠 선수가 유명 해외팀에 스카웃되어 경기를 할 때면 시차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지켜보는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조승희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에 연대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국가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전후 경제 복구를 주도한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역시 이러한 동일시 경향이 강한데 이런 영향으로 국가는 국민을 국가를 위해 충성할 도구로 호명하고 국민은 내재된 의식 속에서 이에 응한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은 세대와 이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당신처럼 2〉 분석표

개요	제 목	당신처럼 2
	광 고 주	하나금융그룹
	주요 출연진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자녀
	방영/상영일자	2010년 11월
작품 요약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미래를 위한 인재라는 메시지.
		<i>narr) 베트남 엄마를 둔 이 아이는 재능이 참 많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는 통역사, 친구들 앞에선 선생님, 친척들에게는 가이드, 미래의 꿈은 외교관.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이 땅의 인재입니다. 당신처럼, 우리 사회에 희망 하나 더하기. 이 캠페인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합니다.</i> <i>(자막)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일입니다.</i>
장면 제시	분석 1 (언어 텍스트)	① 통역사, 선생님, 가이드, 외교관 ②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이 땅의 인재,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일
	분석 2 (영상 텍스트)	흑백 영상
장면 해석	분석 1 (언어 텍스트)	①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고, 친구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설명하고, 친척들에게 도시 안내를 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이 아

		이가 자신이 혼혈인임을 자랑스러워할 때임. ②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을 위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국가주의 담론이 팽배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 역시 개인의 행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음.
	분석 2 (영상 텍스트)	2년 전 동일한 광고주의 시리즈로 제작되었기 때문인지 동일하게 흑백화면으로,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등장함. 여전히 피부색을 통한 차이를 은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없어 보임.
종합 의견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부각시켜 ‘당신처럼’ 이 아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 광고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미래 한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지만 개인을 국가의 도구로 보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태생적으로 많은 재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이는 그 사회가 문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만 가능하다. 한국 문화를 지배적 문화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의 재능은 무용지물일 뿐이며 또한 국가를 위해 이들의 재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고는 극단적인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사. <함께하는 어울림을 배웁니다> 2011년 7월(NH농협)

부모의 사진을 보며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임신한 결혼이주여성의 모습, 남편과 외면한 채 소외된 이주 여성, 가족과 함께 하는 농사일에서 제외된 채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주 여성 등의 모습을 차례차례 보여주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농협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Ⅲ-45] 의미 해석

영상	언어
	엄마가 너무 그리웁습니다.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친정부모 인연맺기 1200쌍, 다문화 여성대학 운영,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지원 1:1 맞춤 농업 교육, 함께 가겠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어울림을 배웁니다.
동화주의적 통합의 메시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한국 문화에 적응을 돕는 방법으로 제시됨.

장면 설명: 영상: 소극적이고 유아적으로 보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습

NARR. :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가장 먼저 결혼이주여성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농촌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농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NH농협에서 2011년 이 되어서야 첫 다문화 관련 영상 광고가 제작된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광고의 소구 목적이 광고주의 홍보에 초점이 맞춰진 탓인지 광고의 내용에서 살펴본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단순 소비자로 인식하는 일반 기업의 내용보다 진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엄마가 그림고, 마음을 전하고 싶고,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방법은 친절부모 인연맺기와 다문화 여성대학, 그리고 농업 교육이다. 말이 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다른 한국인을 친절 부모로 인연을 맺게 해주고 여성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며, 농업 기술을 습득해 가족의 노동에 보탬이 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광고는 소비자들과 손쉽게 소통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적 신념체계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광고는 일종의 사회에 대한 묘사로서 상업적 실재(Commercial realism)를 구성하므로 광고에 나타나는 이주민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선호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Williamson 1978; Pollay 1986, 김은혜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방송광고에 묘사된 이주민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 표현의 특징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념체계에 내재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보여주는데 이 광고에서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사진을 보면서 우는 모습이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 외면당하고, 노동 현장에서조차 소외되는 모습으로 재현되는 모습이 미디어의 스테레오 타입화 측면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광고에서 제시된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이라 해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아닌 한국 생활로의 적응 뿐이라는 것은 동화주의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마지막 장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야말로 한국 문화로 완벽히 동화되는 것을 당연시하여 이주민들 스스로에게 자국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의 문화를 따를 것을 은연 중에 강요하고 있다.

〈함께하는 어울림을 배웁니다〉 분석표

개요	제 목	함께하는 어울림을 배웁니다.
	광 고 주	NH농협
	주요 출연진	결혼이주여성
	방영/상영일자	2011년 7월
작품 요약		임신과 농촌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농협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겠다는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음.
		narr) 엄마가 너무 그립습니다.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친정부도 인연맺기 1200쌍, 다문화 여성대학 운영,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지원 1:1 맞춤 농업 교육, 함께 가겠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어려움을 배웁니다.
장면 제시	분석 1 (언어 텍스트)	엄마가 그립고, 마음을 전하고,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친정부도 인연맺기, 다문화여성대학, 농업교육.
	분석 2 (영상 텍스트)	부모의 사진을 보고 우는 모습,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답답해하는 모습, 농사일에 소외된 모습, 모두 한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모습
장면 해석	분석 1 (언어 텍스트)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피상적임. 말이 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다른 한국인을 친정부도의 인연을 맺게 해주고, 여성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며,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정말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의문임.
	분석 2 (영상 텍스트)	광고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이라고 해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동남아 여성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아닌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한 방법뿐이다. 마지막에 모두 한복을 입고 나와 손을 흔드는 장면은 동화주의의 정점을 보여준다.
종합 의견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고주(농협)차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 생활에 안정된 이주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이 광고는 다문화를 소재로 한 광고 중에 유일하게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은 거주지를 한옥으로 제시하지만 하고 농촌 생활을 다루지는 않음)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이 실제 농촌의 현실일 수는 있으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공감이나 이해가 아닌 한국 문화로의 흡수로 인한 동화정책이라는 것은 문화다양성 추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다. 이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포기한 채 타 문화로의 강제 동화는 미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다.	

아.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 2011년 11월(NH농협)

이 광고는 결혼 5년차인 이주여성 안나 씨가 처음 왔을 때를 회상하면서 시작한다. 시부모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해 남편 뒤에 숨어서 눈치를 보던 그녀를 바꿔 놓은 건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었다. 개

명 무료 지원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농기구 다루는 법을 배우고, 김장하는 법을 배우며 적응한 한국 생활에 시어머님도 만족감을 표시한다.

[그림 Ⅲ-46] 의미 해석

영상	언어
 남편 뒤에 숨는 소극적인 결혼이주여성	한국에 시집은 지 5년.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를 바꿔놓은 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저와 우리 가족을 보듬어준 사람들. 저도 이제 어엿한 한국인입니다. 다 문화 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준 건 가족이 아닌 외부인

장면 설명: 영상 : 시부모 앞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신혼 초 결혼이주여성의 소극적인 모습
NARR. : 낯설고 어려운 저를 바꿔 놓은 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모든 것이 낯설었던 결혼이주여성의 소극적인 모습이 시부모 앞에도 혼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한국 생활이 어려울 때 그녀를 도와준 건 그녀의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그녀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도 보듬어 준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이제 어엿한 한국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결혼이주여성과 그녀를 받아들이는 가족은 외부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가. 이들은 동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왜 그녀의 가족은 도와주지 않는 걸까.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당사자들은 가족 관계 내부인데도 가족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외부의 도움으로 이주여성이 일방적인 한국 문화 복종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림 Ⅲ-47] 의미 해석

영상	언어
 며느리 볼에 입맞추는 시어머니	(자막)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무료지원 / 전국 20개소 여성 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 / 다문화가정 희망송아지 100마리 전달 / 한국인 친정 부모 결연 지원 한국 문화로 동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소개

장면 설명: 영상 : 한국 생활에 적응한 며느리의 볼에 입맞춤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자막 : 개명무료지원, 기초농업교육, 한국인 친정부도 결연지원

더구나 이 여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자 이에 대한 만족의 표시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볼에 뽀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 시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정서적인 관습도 아닌 시어른의 입맞춤이 연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적응이 시부모를 기쁘게 하는 요소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표Ⅲ-8〉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 분석표

개요	제 목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
	광 고 주	NH농협
	주요 출연진	다문화 가정
	방영/상영일자	2011년 11월
작품 요약		결혼5년차의 이주여성이 다양한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어엿한 한국인으로 자리잡는다는 내용
장면 제시		<i>nam) 한국에 시집온 지 5년.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를 바꿔놓은 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저와 우리 가족을 보듬어준 사람들. 저도 이제 어엿한 한국인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i> <i>(자막) 결혼이민자 성문 창설 및 개명무료지원 / 전국 20개소 여성결혼이민자 기초농업교육 / 다문화가정 희망송아지 100마리 전달 / 한국인 친정 부모 결연 지원</i>
		① 따뜻한 시선으로 저와 우리 가족을 보듬어준 사람들. ② 결혼이민자 개명, 한국인 친정 부모 결연
장면 해석	분석 1 (언어 텍스트)	다문화가정은 외부로부터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대상인가. 동정의 시선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고 또 다른 한국인들과 친정 부모라는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인지 생각해 볼 문제임.
	분석 2 (영상 텍스트)	결혼 초에 시부모를 대하기 어려워서인지 남편 뒤로 숨는 이주 여성을 위해 시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하는 대상은 대부분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해의 모습이 아닌 이주 여성의 일방적인 한국문화 복종을 당연시하고 있음. 더구나 이주 여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후에 이에 대한 만족의 표시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볼에 뽀뽀를 하는 장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 시혜를 상징함.
종합 의견	이 광고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광고주의 사업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한 이주 여성들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광고주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활동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광고주의 이해 수준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도시보다 시골이 더 심한데 비해 광고의 내용은 이웃의 이해나 편견의 불식보다는 광고주의 일방적인 지원이 다문화 가정을 돕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가장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은 가족 내에서 보이는데 가족의 구성원이 이주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은 없고 단지 공적 영역에서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최선이고 이들의 도움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④ 총평

가. 다문화 광고의 재현과 의미 해석

현재까지 제작된 공익적 성격의 다문화 관련 광고주는 크게 영리 기업 측과 비영리 정부기관 측으로 양분되나 광고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자 잠재적 소비자가 될 이주민들을 포용하는 것을 공통 주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기관과 공기업,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수용적인 공익성 광고의 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앞에서 분석한 8편의 광고 영상은 서로 다른 광고주의 의뢰로 제작되어 제작 의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주제에 있어서는 시청 대상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목표로 함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들 광고주의 제작 의도와는 달리 광고에서 표현된 내용들 주제와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듯 판단될 정도이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광고에서 다루는 이주민에 대한 표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광고의 소구 역시 동화주의와 온정주의, 국가주의가 혼합된 양상을 이어오고 있다.

분석된 광고의 의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동화주의로 8편 중 1편(다문화 가정 모국어 도서 지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었다. 이는 아마도 분석 대상의 광고가 결혼이주여성과의 이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추측된다.

공익성 광고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주민의 43.7%(행정안전부 2011년 통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잠정적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불어 함께 미래로’ 같 ‘한 가족’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국적 취득자의 55.1%(행정안전부 2011년 통계)가 중국 국적자임에도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외모의 차이가 뚜렷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시도별 분포도를 보면 경기(30.1%), 인천(5.5%), 서울(29.0%) 등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공간으로 재현되는 곳이 시골 등 농촌이라는 점도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외모가 다른 외국인을 타자화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의 일원인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면서도 수용해야 하는 복합적 양면성을 띤다. 이런 양면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디어는 이들을 온정적, 시혜적인 대상으로 대상화하면서 멀리 두는 것, 즉 타자화를 선택해 왔다(김혜순 2009). 이렇듯 인종주의에 대한 복합적 감정은 광고에서 때로는 은폐하거나 (<당신처럼 1,2>,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외면하는 것(<다문화 가정 모국어 도서지원>)으로 드러난다. 그 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감정적 소구로는 이들이 미래 한국의 인재가 될 것(<당신처럼1, 2>,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국가주의적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을 통해 다루어진 내용과 재현방식은 동화, 차별(인종주의), 국가주의, 감정적 소구(온정, 연민) 등으로 그 의미가 전달되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재현을 통한 의미 전달 범주

번호	제목	의미전달 범주
1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동화 / 차별 / 감정적 소구
2	당신처럼 1	동화 / 차별 / 국가주의
3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동화 / 차별 / 감정적 소구
4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동화 / 차별 / 감정적 소구 / 국가주의
5	다문화 가정 모국어 도서지원	차별

6	당신처럼 2	동화 / 차별 / 국가주의
7	함께하는 어울림을 배웁니다	동화 / 차별
8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	동화 / 차별

나. 다문화 제작을 위한 논의

광고는 매우 짧고 함축적인 텍스트이지만 그 파급력에 있어서는 여타의 문학이나 대중문화 텍스트보다 강력하다. 따라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강한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광고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공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김은혜 2012)

고프만(Goffman 1979)은 광고를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일종의 재현이라고 지적하였다. 광고는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광고주들은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사회적 신념체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폴레이(Pollay 1986)에 따르면, 광고주들이 사회적 신념체계를 이용할 때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념체계들을 모두 반영하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신념체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은혜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광고들이 먼저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답습하지 않도록 그들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알리는 전개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며, 자연스러운 이웃의 모습을 담은 동등하고 열린 광고메시지가 필요할 것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여성들의 인식은 동화주의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문화에 동화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에서 이들의 모습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과연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이슈화보다는 실제 광고주(또는 제작자)의 설득 대상이었던 국민들에게 한국의 다문화적 현실을 전달하고 그 현실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설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익광고를 통한 대국민 설득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잠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혜, 온정, 연민 등 감정적으로 소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온 다문화 광고는 제작 당시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계획된 것이었으나 김은혜(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이 자립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광고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긍정적이고 높게 나타났다. 설득적인 광고 효과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이주민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타자화 되고 유아화된 표현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보다

독립적인 인격체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이제 미디어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주 외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대한 연구(윤정로 2012)에서는 이주 외국인들이 한국 TV에서 인종(백인, 흑인, 황인, 자국인)에 따라 묘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백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황인도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편이지만, 흑인과 자국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장르에서는 자국인이 흑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결과에서처럼 방송 제작자의 내재된 인종주의가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만 할 것이다.

IV.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안내서 제작의 조건

1. 대중매체에서 표현의 자유와 안내서 지침의 공존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제작 원칙 중의 하나가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창작자들의 고유한 문화적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창작자들의 기본 권리로서 그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다문화와 관련된 미디어의 재현에서 대립적인 관계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재현의 안내서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다문화의 객관적, 중립적 재현을 위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제작자(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다문화 미디어 재현 시 안내서가 상호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내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의 심의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 정보 제공이라는 취지를 가져야 한다. 안내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보이지 규제를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안내서의 필요성이 서로 존중되기 위해서는 제작자들이 다문화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과 맥락에서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작자가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정보 없이 제작하여 제작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실제 방송이나 상영과정에서 수용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도적인 다문화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문제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다문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안내서를 통한 충분한 사전 정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의 가치들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내서의 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안내서의 기준이 표면적이고 일차원적일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심층적인 의미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의 부조리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내국인이 결혼 이주 여성에게 심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욕설을 하는 장면을 그렸을 때, 안내서가 그 표현의 심층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라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화적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내서의 기준 자체가 일면적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안내서는 미디어를 제작하는 당사자에게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다문화의 특수한 가치들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다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문화의 보편적 가치는 다양한 인종, 종족, 종교, 국가의 문화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 이해와 공존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다문화의 특수한 가치는 특정한 집단과 종족이 역사적으로 구성한 그들만의 문화적, 종교적 관습을 의미한다. 가령 이슬람 국가에서 특수하게 간주하는 여성에 대한 강압적이고 차별적인 관리들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문화의 음식 문화가 갖는 특수한 차이와 관습에 대한 인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문화의 보편적인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그 나름의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다면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편적 인권과 보편적 행위에 대한 고려도 안내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제작하는 제작진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다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다문화에 대한 제작진들의 이해와 인식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문화적 이해는 다문화의 역사적, 문화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다문화를 재현하는 시점이 한국인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당사자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서는 제작자들의 다문화 지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 시에 고려되는 심의 제도·법령 현황:

국내외 방송 미디어 가이드라인 사례

(1) 해외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

① 일본

항목	내용
현황	일본에는 방송의 ‘다문화 표현’ 관련 구체적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나 심의규정은 없음. 다만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기준, 방송가이드라인 등에서 인권, 인종 및 종교, 차별, 가정 및 결혼생활, 국제관계 등을 규정 이들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모니터링이나 심의에 한계가 있음.
구체사례	(NHK방송가이드라인2011) NHK는 방송의 기본적 자세로 인권존중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 차별, 종교 등에 관해 규정 차별의 경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견해차·출신국·사회적 지위·직업이나 재산의 유무 등을 차별적으로 다루면 안된다’고 규정. ● 인종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언급하는 것도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인종이나 민족, 국가, 풍속과 습관, 언어 등을 멸시하거나 차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 금지
	(NHK국내방송기준) NHK는 인종적·민족적 편견을 갖게 하거나 국제 친선을 저해할 수 있는 방송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NHK국제방송기준’에서도 각 지역의 정치체제, 민족, 종교, 풍속·습관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다(제2장약)고 규정
	(민간방송연합 방송기준) 인권과 관련해 인종차별 문제와 민족감정과 관련된 조항을 다룸 ● ‘방송기준 해설서’에서는 인종과 관련해서 우연한 표현이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모욕 혹은 차별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어도 모욕 혹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해설서’에서는 외국인의 생활이나 풍습 등을 다룬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은 표현이 외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언급

평가	일본에서 '다문화' 와 관련된 구체적인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나 심의규정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준을 준용한다고 할 수 있음
----	---

② 영국

항목	내용
현황	영국의 방송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언어 묘사와 인물의 재현에 있어 조심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구체사례	(BBC 제작가이드라인: 인물묘사) 방송제작에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하여 거친 언어(strong language) 사용과 동시에 차별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규제 제시 ● 성적 욕설 ● 인종차별적이거나 민족차별적인 말 ● 성적이거나 성차별적인 혹은 성정체성(sexuality)에 관한 욕설 ●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경멸적인 말 ● 성스러운 이름이나 종교적 단어를 부주의하게 또는 경멸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히 다른 거친 언어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
	(BBC 제작가이드라인: 인물묘사) 영국 사람과 영국 문화의 모든 것을 충분히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 제시 ● 콘텐츠에 따라서 영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단점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영속화하는 것은 금지 ● 필요에 따라 장애 · 연령 · 성정체성 · 신념, 인종 등에 대한 언급이 인물 묘사에 필요할 때도 고정관념적인 가정을 피해야 하며, 편집상 정당화될 때만 해당 방식으로 인물 묘사 가능 ● 시청자 기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코믹한 효과를 위해 스테레오타입을 과장하여 묘사하는 경우에도 부주의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스테레오타입에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지
	(방송출현자의 다원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 3인 이상의 어린이가 출연할 경우 반드시 소수인종의 어린이를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의 경우 인종적 구성을 배려하도록 규정

평가	미디어의 표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유롭지만, 종족, 신체, 성정체성에 관한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경멸하는 것은 주의하도록 하며, 특정한 인물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함.
----	---

③ 독일

항목	내용
현황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독일 사회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표현 ● 이주민을 독일사회의 독특한 개체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지침 ● 이주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보도
구체사례	● ARD에 가입된 지역공영방송인 WDR(서독독일방송)은 TV영화 ‘희망의 시간(2005년 제작)’에서는 이미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이주민의 눈으로 본 이주·정책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드라마로 제작 ● ‘초보자를 위한 터키어’ 도 터키청소년과 독일청소년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각자의 눈으로 동시에 조망 ● ARD의 일요수사드라마인 ‘현장(Tatort)’의 경우 NDR(북독공영방송)이 제작하는 에피소드에서 수사관역에 터키계 영화배우인 Mehmet Kurtulus가 캐스팅되어 유능한 수사관으로 등장. 터키계 수사관이 주연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상징성이 큼 ● 이주민출신의 청년제작인력 양성을 위해 ‘Creating heroe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인력 교육 및 실전 배치 ● 이밖에 정기적으로 이주민들의 방송수용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용역을 맡기고 있으며 이를 방송제작과 편성에 반영
평가	독일의 다문화 미디어 재현은 다문화 주체들을 재현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금지뿐 아니라 다문화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방송과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④ 프랑스

항목	내용
현황	프랑스텔레비전의 '내부 규약(Charte de l'antenne)'은 문화적, 종족적 다양성에 관련 조항 포함 ● 개별 집단의 이해보다 전체 사회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핵심 원리 반영
구체사례	(텔레비전의 내부규약) 프랑스텔레비전의 '내부 규약(Charte de l'antenne)'은 문화적, 종족적 다양성에 관련 조항 포함 ● 개별 집단의 이해보다 전체 사회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핵심 원리 반영 ● 공영방송은 모든 시민, 모든 집단이 포함되는 시청자들의 텔레비전이고, 따라서 공영방송은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집단의 특수한 이해보다 공통의 이해를 우선시함을 천명. ● 헌법에 언급된 원칙으로서 사회문화적 표현에 대한 다원주의 (통합및다양성위원회)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텔레비전이 사내에 '통합 및 다양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이 계획에는 "프로그램", "인적자본", "윤리"의 3가지 요소 포함 ● 프로그램: 프랑스 텔레비전에 속한 채널들 각각에 설치된 "프로그램" 팀이 7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편람에 의거해 담당 ※피부색 등 화면에 비추어지는 외형적인 면과 함께 프로그램의 내용의 개선, 픽션이나 논픽션에 통합 개념을 포함시키는 시도, 문화 교류의 증진도 이 플랜의 관심사항임 ● 인적자본: '인적 자본 팀'은 직원의 인종적 다양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TV 부문에 이민 후손들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 ● 윤리: 콜로키움,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원이나 외부 협력기관의 직원들을 현실에서의 종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홍보하고 훈련시키는 임무를 수행
평가	프랑스는 다문화 존중과 인종차별에 대한 헌법의 가치를 미디어 재현에서 중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프로그램이나 다문화 표현 자유를 위한 다양한 후속작업을 병행하고 있음.

(2) 국내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현황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방송사는 구체적인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KBS는 방송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199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1998년에 마련된 첫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과다한 연출이나 인위적인 조작 지양", "불가피한 인위적 연출일 경우 자막 표시" 등 23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 중에서는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했는데, "균형 잡힌 관점, 북한주민 이익고려, 언론사간 과다경쟁 회피" 등도 포함되어 있다. 성 표현에서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성관계 표현에 대한 프로그램 예고 금지" 등 1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주되게 설명되고 있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고 골이 깊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수적인 다소(多少)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소수계층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이단시하는 편견을 갖기 쉽다...(중략)...많은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불법체류나 범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이나 편견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재미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문화적 적응과 상호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23~25쪽)고 명시되어 있다.

① 방송심의규정

방송심의규정에도 인종적 차별 금지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한 신중한 접근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존재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방송심의규정 제9조 5항)"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방송심의규정 제21조 2항)

② 인종차별적 표현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은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 실태 발견했다.

- 혼혈인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시키자는 순혈주의

- 중동 등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
- 특정 국가 출신 및 특정 피부색을 이유로 비하·차별적인 편견 조장

〈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

유형	내용
인종적 우월성 (순혈주의)	• 순혈주의 관점에서 혼혈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 시켜야 한다는 비난성 주장 • 한국사회의 뿌리 은 순혈주의 인식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로 구체화될 우려
위협적 존재로서 외국인에 대한 증오감 표출	• 중동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테러리즘과 관련된 위험대상으로 묘사하며 이를 합리화하고 강조하는 표현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며, 범죄자나 질병을 퍼뜨리는 대상으로 구체화 • 외국인을 '우리' 와 다른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불법과 사회적 혼란의 중심으로 이미지화하는 경향
인종을 근거로 외국인 비하 또는 희화화	• 외국인의 빈곤 현상을 이미지화하여 비하하거나 희화화 • 아직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 • 특정 국가 출신 또는 특정 피부색을 이유로 비하하고, 차별적 편견을 조장하는 사례는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멸적 태도를 형성하여 외국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고착화시킬 우려
인종차별의 정당화 또는 조장	• 국내 체류 외국인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선동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하고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조장 • 특정 이슬람 국가 이주민들의 국내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글과 국내 체류 화교에 대한 테러를 가해야 한다는 선동적 문구

③ 다문화 차별 판단근거

방송·영화 등 미디어의 문화다양성 저해 표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방송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법률과 인권관련 국제조약에 근거

〈 인종차별 판단 근거〉

근거	내용
「헌법」 제6조 및 제10조	-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제5조 제1호 및	- 제5조(국제평화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 집단학살,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3호 바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

V.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안내서(가이드 북) 제작

1. 안내서 구성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안내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안내서가 제작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 미디어 재현 모니터링 사례, 제작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작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더불어서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의 관점들을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되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제공하는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안내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목차와 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 보고서 본문의 내용을 중복해서 설명하지 않고 안내서의 목차와 각 목차별로 담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미디어 안내서에 포함될 주요 목차와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목차	주요 수록 내용
다문화 안내서 제작의 필요성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시대 대중매체의 역할과 가치 안내서 제작의 기본 방향과 원칙 안내서 제작의 필요성
용어의 이해: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무엇인가 다문화와 다문화주의는 무엇인가? 다문화 용어의 문제점과 새로운 이해의 관점
다문화 관련 미디어의 재현 현황 소개	미디어에서 다문화가 재현되는 현재 상황과 수준 다문화 정책의 변화와 미디어 재현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교 다문화 관련 미디어의 방송 제작 기준에 대한 검토
다문화 관련 미디어 재현 모니터링 분석 사례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TV오락교양 프로그램, 광고 등에서 다문화를 소재나 주제로 하여 제작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분석
다문화 미디어 재현 따른 고려사항	국가, 인종, 언어, 문화, 역사, 종교, 인간관계, 신체, 노동, 성, 인권, 라이프스타일 등의 분야에서 미디어재현이 어떤 점을 고려할 지에 대

	한 내용
다문화 미디어 재현의 유형별 모델 제시	긍정적인 모델제시 부정적인 모델제시 유형별 모델에서 고려할 관점과 시각
안내서 활용방법과 기대효과	가이드북의 활용방안 가이드북을 통한 다문화 미디어 재현 교육 가이드북의 활용에 따른 효과분석

2. 다문화 안내서 구성 목차 개요

(1). 다문화 안내서 제작의 필요성

다문화 안내서 제작에 첫 장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서 안내서 제작이 왜 필요한지를 이론적 설명과 정책적 배경을 언급한 후에 설명할 것이다.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시대에 대중매체의 역할과 가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졌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미디어도 자연스럽게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 재현은 특별한 안내 지침이나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자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한국의 미디어 환경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콘텐츠 제작 시에 필요한 안내 지침이나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따라서 1장에서는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필요한 안내서 제작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이해: 문화다양성과 다문화란 무엇인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다양성은 유네스코가 2005년 관련된 내용의 국제협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문화정책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문화다양성은 주로 국가 간 문화적 특성과 맥락을 이해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면 국가 간 문화적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다문화주의보다 나중에 정식화된 개념이지만,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다문화주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확산시키

기 위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다문화주의 연구의 전개과정, 다문화 정책의 변화 등을 언급할 것이다.

(3). 다문화 관련 미디어의 재현 현황 소개

다문화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현재 어느 정도 제작하고 재현하고 있는가? 다문화 관련 미디어 재현은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해 훨씬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는 대략 40여 편에 이르고, 드라마도 10편이 넘는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미녀들의 수다>는 2006년 10월에 시작해서 201년 5월까지 방영된 장수 프로그램이었고, <러브 인 아시아>는 2005년 시작한 이래 2012년 12월 말까지 347회가 방영되고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케이블 TV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 공익광고 10여 편이 넘게 제작되었다. 3장에서는 미디어에서 다문화가 재현되는 현재 상황과 수준, 다문화 정책의 변화와 미디어 재현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교, 다문화 관련 미디어의 방송 제작 기준에 대한 검토 등을 다룰 것이다.

(4). 다문화 관련 미디어 재현 모니터링 분석 사례

4장은 본 연구에서 주되게 분석한 다문화 미디어 재현 관련 모니터링 분석 사례들을 대중음악, 영화, TV, 광고 등 네 가지 영역에 걸쳐서 제시할 것이다. 안내서는 주로 방송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미디어 재현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영역에서의 분석 사례들을 모두 제시할 것이다. 모니터링 분석 사례는 주로 미디어 제작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니터링의 객관적 분석 양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별로 다문화가 어떻게 재현되는 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문화 미디어 재현 따른 고려사항

다문화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진들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다문화는 소재로만 사용될 소지가 많고 구체적으로 다문화 국가들의 역사, 문화, 종교, 관습을 재현할 때, 실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5장에서는 국가, 인종, 언어, 문화, 역사, 종교, 인간관계, 신체, 노동, 성, 인권, 라이프스타일 등의 분야에서 미디어재현이 어떤 점을 고려할 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다.

(6).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시 유형별 모델 제시

다문화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점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제시되면 제작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장에서는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각 분류 항목별로 어떤 세부 재현 내용들이 고려해야 하는지를 표로 설명할 것이다. 먼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 시 유형은 크게 긍정적인 유형과 부정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인 유형에는 다시 '공감', '소통', '평등', '갈등해소', '공존'으로 범주화할 수 있고, 각각의 범주들은 역사, 문화, 종교, 인종, 관습 등의 토픽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부정적인 유형은 '차별', '왜곡' '편견', '비하' '몰이해'로 범주화할 수 있고, 이 각각의 범주도 '계급', '성', '인종' 등의 토픽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미디어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안내서에는 유형별 모델 제시와 관련해서 실제 사례들을 범주별-항목 별로 제시할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사례를 포함해서 각 항목의 사례로 적합한 내용들을 담을 것이다.

유형별 모델 제시와 관련된 사례를 참고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긍정적 유형과 부정적 유형이 미디어 재현에서의 제작자들의 어떤 의도와 가치와 곧바로 동일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긍정적인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제작진이 고려해야 할 일종의 안내 지침인 것이지, 반드시 모든 콘텐츠들이 그렇게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유형도 제작진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내용 자체를 재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긍정적인 유형의 재현이 다문화의 현실을 외면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지나치게 미화할 수 있다는 점과 부정적인 유형의 재현이 실제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재현이 다문화의 현실적인 갈등을 보여주려는 제작진의 의도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의 현실과 미디어 재현은 서로 모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의 유형별 모델 제시에 대한 제작진의 의도이고 이러한 유형제시도 제작진의 의도에 맞게 이해되어야 한다. 다문화 미디어 재현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유형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유형

유형	세부영역	사례예시
공감	역사적 이해	다문화 내 다양한 국가별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다문화 국가들의 역사적 특성(인종, 종족, 지리)

		● 다문화 국가들의 역사적 갈등(전쟁, 영토, 종족 분쟁)
	문화적 관습 이해	다문화 내 국가별 문화적 관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다문화 국가의 고유한 음식 습관 ● 다문화 국가의 고유한 대화 습관 등
	종교적 행동 이해	다문화 내 국가들 별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동남아시아 국가 내 종교적 차이의 공감 ● 종교로 인해 금하는 음식과 일상의 습관에 대한 공감
소통	인격적 소통	다문화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 인권의 보편적 주체로서의 다문화 구성원과의 소통
	언어적 소통	다문화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를 잘 고려하고 있는가? ● 일상에서 다문화구성원과의 언어적 소통 ● 관계와 소통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고려
평등	인종적 평등	다문화 구성원의 인종(종족)에 대해서 얼마나 평등하게 생각하는가? ● 차별이 아닌 다름과 차이로서의 인종의 재현
	젠더적 평등	젠더의 관점에서 다문화 구성원을 얼마나 평등하게 생각하는가? ● 결혼 이주여성의 여성적 위치에 대한 평등한 인식
	계급적 평등	다문화 주체의 계급에 대해 얼마나 평등하게 생각하는가? ●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계급적 차별에 대한 고려 ● 제1세계와 제3세대 외국인에 대한 계급적 편견의 고려
갈등해소	가족 갈등 해소	다문화 구성원과의 가족적 갈등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소하려하는가? ● 다문화 가정 내 식구들의 갈등해소 ● 친척과 이웃 가족들 간의 갈등해소
	문화적 갈등 해소	다문화 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갈등해소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 언어, 관습, 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해소
	인종적 갈등 해소	다문화 내 구성원들의 인종적인 갈등의 문제를 얼마나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피부색,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해소 의지
공존	사회구성원 공존	다문화 구성원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진실 된가? ● 타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공존에 대한 충분한 인식
	문화적 차이 공존	다문화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인식하는가? ● 모순이 아니라 차이로서의 일상적인 행동들에 대한 공존의식

부정적 유형

유형	세부영역	사례예시
차별	인종적 차별	다문화 구성원들의 인종, 국적 때문에 차별 ● 다른 피부색으로 특정 개인을 혐오 ● 특정한 지역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차별
	성별 차별	다문화 구성원들의 성별로 인해 차별 ● 베트남, 조선족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성 차별 발언
	계급적 차별	다문화 구성원들의 노동과 계급 때문에 차별 ● 3D 업종에 종사하는 수준 낮은 노동자로 차별 ● 가난하고 못하는 열등한 인간으로 묘사
왜곡	역사적 왜곡	다문화 국가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사실을 왜곡 ● 그 나라는 원해 못살았다, 문화도 역사도 없다는 왜곡 ● 베트남은 처음부터 중국이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왜곡
	정치적 왜곡	다문화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왜곡 ●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왜곡 ● 베트남은 독재 국가이다
	문화적 왜곡	다문화 국가들의 원 문화에 대한 왜곡 ● 조선족 문화는 없다 ● 캄보디아 문화는 후진적이다
편견	문화적 편견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 ● 다문화 국가들의 문화는 열등하다 ● 몽골은 모두 게르에서만 산다
	종교적 편견	다문화 구성원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편견 ● 라마교는 미신이다 ● 이슬람교는 아만적이다
	국가적 편견	특정한 다문화 국가들에 대한 편견 ●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은 모두 학력이 없다 ●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하다
비하	신체적 비하	다문화 구성원들의 특정한 신체를 비하 ●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작고 말랐다
	성적 비하	특정한 신체를 이용해서 비하 ● 결혼 이주 여성들은 매력이 없다
	경제적 비하	다문화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비하 ● 이주노동자들을 돈만 벌러 오는 사람들로 취급
몰이해	역사적 몰이해	다문화 구성원과 국가들에 대한 몰이해 ● 태국과 미얀마는 같은 역사에 나왔다

	문화적 몰이해	다문화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몰이해 ● 파키스탄들은 야만인이어서 손으로 밥을 먹는다
	종교적 몰이해	다문화 구성원들의 종교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 ● 이슬람 국가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여성을 모두 차별한다

8. 안내서 활용방법과 기대효과

마지막으로 안내서에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미디어제작 시에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안내서는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에서 먼저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제작진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제작진 모두에게 안내서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서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운영진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이 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안내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이다.

Ⅵ. 결론: 안내서 활용방안과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대비해서 미디어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재현할 때 제작진에서 고려하고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안내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안내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만드는 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내서가 제작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사안들과 이후의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충실한 안내서 제작과 배포

첫째, 안내서가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충실한 안내서 제작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보통 다문화 관련 연구보고서는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언어나 개념, 정책과제의 추상성의 차원에서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안내서 제작은 그런 점에서 쉽고, 이해하기 편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안내서 내용이 쉽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일상용어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하기 편하게 관련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해 사례를 많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작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안내서의 범주와 사례와 적용 방식에 대해서 제작진들과 충분한 합의를 해야 한다.

안내서는 일차적으로 방송 제작진들, 특히 공영방송 제작진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차적으로는 민영방송과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에 보급하고, 최종적으로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의 제작 인력들에게 배포되어 다문화와 관련된 미디어 재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미디어제작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

둘째, 안내서를 최종 제작하기 전에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제작담당자와 함께 하는 자문회의를 통해서 안내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연구진의 작업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점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안내서가 제작되면 각 방송사나 드라마 외주제작, 영화사, 연예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서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와 배경, 그리고 안내서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다.

3. 안내서 활용을 위한 정기적 교육과 제도적 보완

세 번째, 안내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과 관련하여 방송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 미디어 재현 교육프로그램은 각 방송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 현장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만나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열린 워크숍 같은 자리가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미디어 재현에 대한 안내서가 방송제작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KBS는 1998년에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만든 이래로, 북한보도, 자살보도, 장애인 권리보장, 음식홍보 등 세부 영역에 걸쳐 안내서를 만들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다문화의 미디어재현에 대한 KBS 차원에서의 안내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강제와 징벌 규정이 있는 법제화는 제작진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도, 적어도 제작 현장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참고해야 할 안내서 지침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 후속 연구과제

마지막으로 다문화의 미디어 재현의 안내서 제작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환경의 발전적인 조성을 위해 어떤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화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사회 문화다양성의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다양성이란 개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수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 문화산업계의 문화다양성 실질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개발과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제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현장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현장 제정은 문화다양성의 날을 제정과 함께 연동되어야 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실천을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담아야 한다.

셋째, 문화다양성의 실질적인 구성주체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 환경의 수준과 실태를 구체

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정책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에 속한 자들인지에 대한 객관적 합의도 되어 있지 못하다. 가령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아동, 노인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할 때 이들 주체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준 및 실천 사례들도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 환경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문화정책의 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담론과 정책 연구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주체들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문화정책의 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에 다루는 다문화 주체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자이지만, 다문화 주체들은 이들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 주체 안에도 조선족의 문제들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북한 새터민들에 대한 문화연구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종교적, 인종적, 지역별 관점에서 다문화 주체들을 다루는 세부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연구도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제들이 함께 병행될 때, 현재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부록 1. 다문화와 미디어 재현에 대한 다문화 구성원 심층인터뷰

일시: 2012년 9월 13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신촌 아트레온 토즈

참석자: 문민(국제노동협력원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교사, 중국)

마웅저(따비에 국제구호단체 활동가, 미얀마)

일리아스(경기도 광주 지역 이주 노동자, 키르기즈스탄)

김수현(프리랜서, 인도네시아)

장유미(YWCA 다문화 멘토, 베트남)

라티홍번(숙명여대 대학원 재학, 베트남)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연구책임자)

권금상(충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공동연구원)

이혜영(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석사과정, 보조연구원)

이동연 : 안녕하세요? 다문화의 미디어재현 가이드북 제작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현재 미디어에서 재현하고 있는 다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재현 현황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 미디어에서 객관적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제작 현장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해주시는 얘기들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평소 접하신 다양한 영화, 드라마, 광고, 교양,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다문화가 재현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직접 내용을 보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개인 소개

권금상 : 먼저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다 처음 보시죠? 한국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됐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서로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문민 선생님부터 해주세요.

문민 :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지는 17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이주동포정책연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마웅저 : 저는 버마(미얀마)에서 1994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고 현재는 따비에라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리아스 : 저는 2011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광주의 전광판 제작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지 10년 됐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통번역일 하고 방송MC도 하고요.

장유미 : 처음 뵙겠습니다. YWCA에서 다문화 멘토로 활동하는 장유미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8년 됐습니다.

권금상 : 한국에 거주하신지 오래되신 분들은 익숙한 내용들도 있겠고, 어쩌면 이제 익숙해져서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텔레비전이나 영화 보신 것들 중에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매체에서 다룬 다문화에 대한 기억들

문민 : 다문화라는 말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이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모든 것이 다문화거든요. 이주민 입장에서 다문화를 다루는 것인지, 한국인들에게는 이주민과 공동 사회가 된 지금이 다문화 사회이겠지만 원래 다문화여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권금상 :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일단 이번 연구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한국인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으니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한국인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런이런 인식을 주겠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문민 : 흔히 대표적으로 말하는 프로그램은 러브 인 아시아?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영화 시사회에서 <웨딩스캔들>이란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서 연변에서 온 쌍둥이 자매가 소재로 나와요.

김수현 : 러브 인 아시아와 미녀들의 수다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결혼 이주 여성들은 안 보긴 하지만요.

장유미 : 아, 진짜 러브 인 아시아,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진짜 많이 비교하거든요. 저 집은 저런데 너는 왜 안 그러냐, 이러면서요. 정말 싫어요.

라티홍번 : 저도 러브 인 아시아, 미녀들의 수다, 드라마는 황금 신부 봤어요.

마웅저 : 드라마에서도 꾸준히 다문화에 대한 소재가 다뤄지기도 하고, 광고에서도 간간히 보이던데요. 이슈가 돼서 본 적 있는 건 1박2일 정도?

다문화에 미디어재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

권금상 : 대체적으로 러브 인 아시아에 대한 평이 안 좋네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인종, 국가적 비하 문제도 있겠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라티홍번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좀 극단적이에요.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마웅저 : 동남아시아 쪽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말은 다문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만 보여주는 것들도 많고요.

문민 : 완전히 수박 겉핥기죠. 그냥 단시간에 잠깐 본 걸로 흥내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진정성이 부족할 수밖에요.

일리야스 : 저는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좀 걸리던데요.

이혜영 :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리야스 : 저희는 남자도 여자도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 하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보면 여자들이 한국에서는 남자들에게 크게 크게 말해요.

이혜영 :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 한국을 비롯한 유교권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 목소리가 더 커요. 이슬람권(일리야스 씨의 국적은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덜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기로는 최근 남성과 여성의 지위 변화 같은 걸 보여주려고 의도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불쾌하셨나요?

문민 :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자막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어가 문자는 한문을 쓰지만 읽을 때는 글자와 다르게 중국어로 읽는데 한국에서는 이것 그냥 음독해서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이름도 한문을 한국어로 읽으면 문민이지만 중국어로는 윈민이거든요.

이동연 : 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서도 잘 몰랐던 부분이네요.

문민 : 그것만이 아니에요. 해당 국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모르다보니까 제작자들이 알고 있는 편견으로 짜맞추더라고요. 이걸 정말 아닌데.

김수현 : 저는 피부색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불편했어요. 당연히 피부색이 다른데 그걸 굉장히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라티홍번 : 텔레비전에는 왜 그렇게 불쌍한 이주민들만 나와요? 저도 객지생활하니까 감정이입이 돼요. 한번은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이런 건 안 나오고 힘들게 산다,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마웅저 : 뉴스에서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관광과 투자의 대상으로만 알려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재현된 동남아시아는 또 어떤가요? 시끄러운 곳이라는 인상을 받게 하죠. 아까 자막 얘기 하셨는데, 실제 얘기를 그대로 자막으로 정리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권금상 : 그럼 반대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다문화 내용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김수현 : 대부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문민 : 저는 정보를 빨리 접하게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뉴스의 경우에는 중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장르별 미디어 재현에 대한 평가-드라마 분야 : KBS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이동연 :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재현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의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드라마, 오락, 영화, 대중음악, 교양, 광고 순서로 보시죠.

문민 : 외국인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감정이 호기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다른 문화를 접할 때 1차적으로는 충격을 받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갈등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다문화를 이해해 가는 한국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웅저 : 다른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교실에서 인사하는 아이의 인사말이 좀 그렇네요.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어머니 나라 문화를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해도 좋을 텐데요.

장유미 : 병원에서 이주여성이 치료받는 장면, 정말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저런 경우 있거든요. 저희가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무시당하면 기분 안 좋죠.

장르별 미디어 재현에 대한 평가-오락프로그램 분야 :
KBS <미녀들의 수다> MBC <세.바.퀴>

이동연 : 다음은 오락 부분인데요, 아까 다들 보셨다고 한 미녀들의 수다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주세요.

마웅저 : 저는 그런 프로그램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민 : 미녀들의 수다를 보면 출연자들이 한국말 어눌하게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흥내내면서 너그럽게 봐주더라고요. 저는 출연자들이 하는 말 잘 못알아들겠는데요. 그리고, 왜 ‘미녀’들의 수다만 있나요? ‘미남’들의 수다도 없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라티홍변 :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온 학생들 위주로 즐겁게 볼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세바퀴의 경우에는 흑인 입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르별 미디어 재현에 대한 평가-영화 분야 : <파이란> 외 3편

1. 영화 「파이란」 (2001) : 중국 이주여성 파이란(뎡통수만 보임, 왼쪽)이 국제결혼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선박 항해를 통해 한국 입국 심사관(오른쪽 안경 쓴 사람)과 마주한 모습.

김수현 : 이 영화 보면, 옛날 생각나요. 처음 한국 왔을 때 공항에서 문제 생겼는데 한국어와 영어 다 부족해서 4시간 잡혀있었네요.

라티홍변 : 입국 심사관은 이주 여성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봐요. 한국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마웅저 : 공항 출입국 때부터 탄압적 시선으로 차별당한다고 느낍니다. 제가 입국하는 날이 생각나네요.

이동연 : 아, 그러면 파이란을 대하는 입국 심사관의 표정이나 태도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다고요?

문민 : 그렇죠. 고압적인 자세들, 거의 똑같아요. (일동 동의)

2. 영화 「반두비」 (2009)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카림(오른쪽)이 고유의 방글라데시 음식을 준비해 상을 차려 함께 식사하고 있다. 카림은 손으로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은서(오른쪽)와 고향 애기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김수현 : 한국 문화는 여자가 부엌일 다 하는데, 저 남자는 착하네요. 밥상 차려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를 이해시키는 남자의 태도가 좋은데요.

마웅저 : 가까운 한국인에게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3. 영화 「로니를 찾아서」(2009) : 안산시 자율방범대원들의 거리 단속 장면. 이들은 로니(방글라데시 청년,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액세서리 좌판을 뒤집고 구타하고 있음. 여러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장면.

문민 : 경찰 너무 무례하네요. 법을 지켜야 하는 방범대원이 무불법행위나 하고.

장유미 : 그렇죠. 한국인에게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외국인이니까 저러는 거예요.

마웅저 : 명백한 인권 탄압입니다.

라티홍번 : 실재가 아니라 영화지만, 실재에 근거했다고 봐요. 방글라데시 남자가 너무 마음 아프네요.

김수현 : 법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한국에 온 이들에게 가르쳐주면 되지, 저건 너무해요.

장르별 미디어 재현에 대한 평가-대중음악 분야 :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

이동연 : 한국에서의 음악이 소비되는 과정을 봤을 때 다문화나 이주민에 대한 내용이 소재로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음악 분야에서는 재현의 사례를 거의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이주민으로 구성된 밴드 'Stop Crackdown'의 음악을 들어보시죠.

라티홍변 :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이 밴드의 공연이 열리면 이주민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문민 : 저는 영상의 문제 때문이었지만 가사가 잘 안 들려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중음악 분야에서 한류의 영향이 큰데 다문화를 다루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은 아쉽네요.

장르별 미디어 재현에 대한 평가-교양분야 : <러브 인 아시아>

1. 유쾌한 부산댁 두루가. 2006.11.11.(49회) :

아이들과 외출 때마다 느끼는 차별적 시선

김수현 : 저도 처음 3년 동안은 피부색 때문에 시선이 불편해서 외출할 때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한국말이 많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웅저 : 이런 시선은 정말 차별로 느껴져요. 차별하는 눈으로 보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민 :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에서 오신 분들은 참 힘들거라고 생각해요.

2. 헝가리에서 온 제주아줌마 아니타. 2007.9.13.(91회) :

자녀들에게 헝가리 책을 읽어주고 이중언어를 사용한다

라티홍변 : 와우, 부러워요. 이주여성들도 아이 교육시킬 때 이중언어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문민 : 필요하긴 한데, 가정에서 이중언어 환경을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3. 나영이네 가족의 4대가 함께 사는 법.2008.9.9.(136회)

주인공이 베트남 친구들을 초대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다, 시어른들이 베트남어 사용을 금지시킴

김수현 : 이런 집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래야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티홍변 : 베트남 사람들 모두 따로 먹는 걸 보니, 불친절한 집이라고 느껴지네요.

장유미 : 한국에 살지만 베트남 사람들끼리 베트남 말 하는게 문제인가요? 쓸 수 있게 해줘야죠.

4. 하빌우딘의 나의 사랑, 나의 가족.2008.10.14.(141회)

물건값을 물어보는 하빌에게 상인은 일방적인 반말을 하고 있다

라티홍변 :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에게는 무조건 반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웅저 : 한국인들 중에는 이주민들에게 반말하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5. 가족에 발견. 띠엔 2009.1.13.(154회)

허락없이 성형수술을 한 며느리를 혼내주기 위해 며느리의 통장을 빼앗아 숨김

문민 : 가족이라는 미명 하에 간섭이 너무 심하네요, 특히 시어머니요.

라티홍변 : 그러게요. 띠엔이 버는 돈이니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남편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수현 : 예쁘고 싶으면 성형수술 할 수 있죠. 한국사람들은 예뻐야 무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6. 가족에 발견. 띠엔 2009.1.13(154회)

동남아권의 칼 쓰는 방식에 대한 불안한 클로즈업과 사회자의 멘트(문화적 이해부족)

문민 : 사회자!! 공부 좀 합시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드러나요. 타문화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네요.

라티홍변 : 아마 시어머님은 자신과 다른 방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문화적 차이를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7. 3년간의 다문화 실험, 아시아공동체 학교, 2009. 5.26(173회)

노만은 친구들이 까맣고 몸 냄새가 난다 놀려 가출한 적이 있고 그 이후 늘 씻고 다니지만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다.

김수현 : 피부가 까맣도 깨끗하게 씻고 깔끔하게 옷 입으면 괜찮아요. 저도 때 많이 밀어봤는데, 아직 새카맣거든요. (웃음)

마웅저 : 저런 장면이 굳이 필요한가요? 필요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문민 : 피부색으로 다문화를 판단하는 건 아니죠. 더 이상 피부색이 다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장유미 : 맞아요. 피부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장르별 미디어 재현에 대한 평가-광고분야 : 하나은행<당신처럼>, 농협, LG<편견의 못>

하나은행<당신처럼> : narr)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땅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스무 살이 넘으면 군대에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이혜영 : 이 광고를 본 한국인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김수현 : 그럴 것 같은데요?

문민 : yes~

장유미 :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혜영 : 내레이션을 들어보면 김치, 세종대왕, 독도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자면 한국인이란 이런 것들을 알고 좋아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맞는 걸까요?

김수현 :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야만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라티홍변 :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사람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문민 : 저도 특별히 문제는 모르겠어요.

마웅저 :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협광고 : narr) 한국에 시집온 지 5년.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를 바꿔놓은 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저와 우리 가족을 보듬어준 사람들. 저도 이제 어엿한 한국인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

이혜영 : 한국에는 주민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요, 이주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현 :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뭘 하든지 불편하지가 않아요.

라티홍변 :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한국인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좋아요.

문민 : 정책적인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발급비용이 유료였나요?

이혜영 : 발급에는 비용이 안 드는데요, 한국식으로 이름을 고쳐서 신청하는 경우, 작명료나 이런 건 본인이 부담할 텐데, 그걸 무료로 해준다는 것 같아요.

문민 : 아, 그래요. 그런 내용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혜영 : 내용에 보면 한국인 친정부도 결혼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이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김수현, 라티홍변 : 네, 도움 돼요.

문민 : 장유미 : 아니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혜영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들 사업의 내용이 이주민들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느껴세요?

김수현 : 어차피 한국에서 살 거잖아요. 이곳 문화를 배우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라티홍변 : 네, 거의 한국문화로 동화시키는 것을 느껴요.

문민 : 저도 그렇게 느껴요.

다문화 미디어 재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조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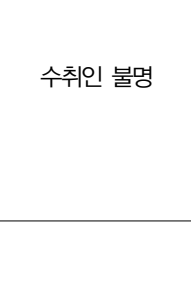
권금상 :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3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게 느껴지네요. 이제까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미디어에서 다문화를 제작할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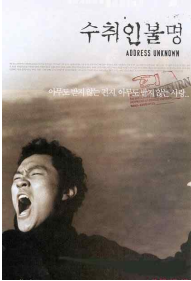
라티홍변 : 이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녀들의 수다는 한국어를 잘 해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보다는 한국어 잘 못하는 이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장유미 :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편견으로 인해 힘들게 사는 다문화 가족들 많거든요.

이동연 : 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연구에 잘 반영하고 좋은 제작 가이드라인 만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2. <다문화 영화 목록, 1999~2012.3.>

No	작품명	개 요	
1	만수야 그동안 잘 있었느냐	개봉시기	1999
		장 르	드라마/반공(분단)/가족
		감 독	오점균
		등장인물	황춘수(만수 역, 탈북 주민), 이윤희(만수 부인), 김현원(산하 역, 만수 아들)
		등 급	
		세부주제	탈북자/ 새터민
		줄 거 리	9년 전 북에 아들을 두고 탈북, 남한 여자와 결혼한 만수의 이야기
2	다섯 개의 시선 : 배낭을 멘 소년	개봉시기	2000-01-13
		장 르	드라마/옴니버스
		감 독	정지우
		등장인물	오태경(현이 역, 탈북 청소년), 이진선(진선 역, 탈북 청소년)
		등 급	12세 이상 관람가
		세부주제	탈북자/ 새터민
		줄 거 리	탈북 청소년 현이와 진선의 이야기
3	파이란	개봉시기	2001-04-28
		장 르	멜로/애정/로맨스, 드라마
		감 독	송해성
		등장인물	최민식(강재), 장백지(파이란)
		등 급	15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여성
		줄 거 리	삼류 건달 강재가 과거 위장 결혼을 해주었던 파이란에게 편지 한 통을 받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4	수취인 불명	개봉시기	2001-0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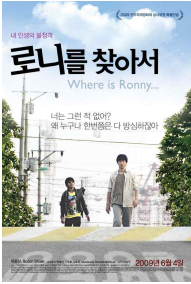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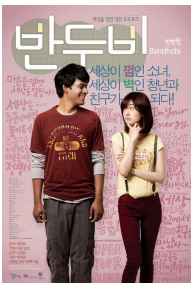
		장 르	드라마
		감 독	김기덕
		등장인물	양동근(창국), 반민정(은옥), 김영민(지흠), 조재현(개눈), 방은진(창국 모), 명계남(지흠 부), 밋츠 마렘(제임스)
		등 급	청소년 관람불가
		세부주제	다문화 혼혈
		줄 거 리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창국의 이야기
5	아랏사	개봉시기	2003
		장 르	드라마
		감 독	황원
		등장인물	앤젤 줄루에타(시찰리아 역, 필리핀 이주노동자 소녀), 이정선(카메라를 빌려주는 여공 역), 이승룡(사진을 찍어주는 남자 역)
		등 급	
		세부주제	이주여성/이주노동자
		줄 거 리	필리핀에서 온 소녀 노동자가 부모님께 보여드릴 한국생활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서 겪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그린 이야기
6	가(加)족사진	개봉시기	2003
		장 르	드라마
		감 독	한우정
		등장인물	김수현(상진 역), 이현정(정미 역, 연변 조선족 여자), 정재진(상진 아버지 역), 조한희(정미 어머니 역)
		등 급	
		세부주제	조선족
		줄 거 리	결혼에 한번 실패한 상진이 연변 조선족 여자인 정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
7	여섯 개의 시선	개봉시기	2003-11-14
		장 르	드라마/옴니버스
		감 독	박찬욱(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등장인물	라마 칸찬 마야(서울 찬드라 역), 찬드라 꾸마리 구릉(네팔 찬드라 역, 네팔 이주여성 노동자), 케이피 시토우라(네팔 사업가), 오달수(파출소장)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여성/이주노동자
		줄 거 리	1999년,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는 찬드라가 행려병자 취급을 당해,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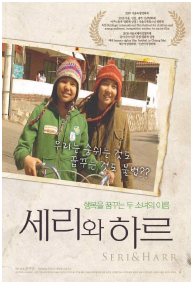
8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개봉시기	2004-01-01
		장 르	드라마
		감 독	이미랑
		등장인물	김기남(기남 역), 강민선(아미나이 역, 베트남 이주여성), 신철진(기남 아버지)
		등 급	15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여성
9		장 르	드라마
		감 독	김선민
		등장인물	이윤미(선화 역, 조선족 여자), 정선연(향미 역, 선화의 조선족 친구), 정대용(트럭아저씨 역)
		등 급	
		세부주제	조선족/이주여성/이주노동자
		줄 거 리	조선족 여성 노동자로 가리봉에서 일을 하던 선화가 회사 이전으로 가리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
10	댄서의 순정	개봉시기	2005-04-28
		장 르	멜로드라마
		감 독	박영훈
		등장인물	문근영(장채린 역, 연변 소녀), 박건형(나영새 역, 전직 댄스 스포츠 선수), 박원상(마상두 역, 영새 매니저)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조선족/이주여성
11		장 르	드라마
		감 독	김원구
		등장인물	셀 모하마트(셀 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아들), 아스리딘(셀 아빠,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홍석연(비자 브로커), 김용호(오토바이 점원)
		등 급	
		세부주제	이주노동자

		줄 거 리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즈베키스탄 소년 쉐이 아버지가 가져온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
12	바람이 분다	개봉시기	2006
		장 르	드라마
		감 독	이진우
		등장인물	양익준(기석 역), 레띠하(레띠하 역, 이주노동자), 투영반스(반스 역)
		등 급	
		세부주제	이주여성/이주노동자
		줄 거 리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레띠하를 짝사랑하게 되지만, 그녀의 약혼자가 나타나면서 아픔을 겪게 되는 기석의 이야기
13	이곳에는 쥐가 있습니다	개봉시기	2006
		장 르	드라마
		감 독	권혜민
		등장인물	윤효식(리우징 역, 조선족 이주노동자) 남수지(장리 역, 조선족 이주노동자), 최승찬(리우징과 장리의 아기 역), 나대혁(친구 역)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조선족/이주노동자
		줄 거 리	이주노동자 리우징과 장리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게 되면서 겪는 비극적인 이야기
14	망종	개봉시기	2006-03-24
		장 르	드라마
		감 독	장률
		등장인물	류연희(최순희 역, 조선족 여인), 김박(창호 역, 순희의 아들), 주광현(김씨 역), 왕동휘(왕경철 역, 순희의 단골 손님)
		등 급	18세 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세부주제	조선족/이주여성
		줄 거 리	아들과 함께 한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조선족 여인 순희의 삶을 그림
15	마야 거르쥬	개봉시기	2007
		장 르	드라마
		감 독	우보연
		등장인물	라미찬(푸르자 역, 네팔 이주노동자), 강신영(미영 역), 김덕근(민수 역)
		등 급	15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노동자
		줄 거 리	네팔인 이주노동자 푸르자가 봉제공장 동료인 미영에게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
16	불한당들	개봉시기	2007
		장 르	액션/코미디/공포(호러)/판타지
		감 독	장훈
		등장인물	샤킬(토너 역,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씨아(모모 역, 버마 이주노동자), 이루한(오사마 역, 말레이시아 이주노동자), 투영반스(관스 역, 베트남 이주노동자)
		등 급	15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노동자
		줄 거 리	월드컵 기간 캠페인 촬영을 위해 안산으로 간 성호가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한 술집으로 부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17	불을 지펴라	개봉시기	2007
		장 르	드라마
		감 독	이종필
		등장인물	유형근(리경록 역, 탈북소년), 정영기(김민수 역), 이진우(국정원 역), 이택기(하나원 역), 봄튼팜스(이주노동자 역)
		등 급	
		세부주제	탈북자/이주노동자
		줄 거 리	북한에서 록음악(짐 모리스)을 동경해 강 건너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 담을 넘어 대한민국에 오지만, 탈북자 교육기관에서 목공을 권유 받고 가구공단 노동자가 되는 탈북소년의 이야기
18	키로기	개봉시기	2007
		장 르	드라마
		감 독	이사무엘
		등장인물	한기중(반장 역, 기러기 아빠), 이재현(조선족 남자 역)
		등 급	
		세부주제	조선족
		줄 거 리	기러기 아빠인 반장과 한 조선족 남자가 은행에서 만나 우연히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
19	안녕 나마스테	개봉시기	2007-10-02
		장 르	드라마
		감 독	주성찬
		등장인물	두안 사리타(네팔 결혼 이주여성)

		등 급	
		세부주제	이주여성
		줄 거 리	네팔에서 한국 농촌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과 그녀의 한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야기
20	크로싱	개봉시기	2008-06-26
		장 르	드라마
		감 독	김태균
		등장인물	차인표(용수 역, 북한 탈주민), 신명철(준이 역, 용수 아들), 서영화(용수 처)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탈북자/ 새터민
		줄 거 리	북한 함경도 탄광마을에 사는 용수 가족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겪는 기구한 삶의 이야기
21	인도에서 온 말리	개봉시기	2009
		장 르	드라마
		감 독	장재현
		등장인물	안가모수 엘라바사란(말리 역, 인도 이주노동자), Ndnogi Shaleishi (칸단 역, 말리의 동료)
		등 급	전체관람가
		세부주제	이주노동자
		줄 거 리	인도에서 온 말리가 여권이 든 가방을 잃어버려 파출소에 가게 되고, 동료 칸단에게 비판적인 한국 경제에 대해 들으면서 낙담하게 되는 이야기
22	경적	개봉시기	2009
		장 르	드라마
		감 독	임경동
		등장인물	라경덕, 이금희, 고관재
		등 급	
		세부주제	탈북자/ 새터민
		줄 거 리	남한에 정착한지 1년이 된 탈북자가 차와 함께 실종되면서 그 아들인 철민, 탈북자 관리 담당 정보계 경찰 고형사, 보험회사 직원 영림이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23	허수아비들의 땅	개봉시기	2009-04-30

		장 르	드라마
		감 독	노경태
		등장인물	김선영(장지영 역, 트랜스젠더), 은하(레인 역,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 정두원(로이탄 역, 필리핀 입양아)
		등 급	15세 이상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여성
		줄 거 리	트랜스젠더 장지영, 그녀에 의해 필리핀에서 입양된 로이탄,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레인, 세 사람의 이야기
24		개봉시기	2009-06-04
		장 르	드라마
		감 독	심상국
		등장인물	유준상(인호 역), 로빈 쉬엑(뚜힌, 방글라데시 청년)
		등 급	15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노동자
		줄 거 리	태권도장 사범 인호와 로니의 친구인 방글라데시 청년 뚜힌의 이야기
25		개봉시기	2009-06-04
		장 르	드라마
		감 독	김동현
		등장인물	최희진(혜정 역, 탈북여성), 박인수(진욱 역, 탈북남성), 팡스(팅윤 역, 베트남 이주노동자), 주진모(박기사 역)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탈북자/이주여성/이주노동자
		줄 거 리	탈북자 진욱과 베트남 이주노동자 팡스의 우연한 동행을 그린 영화
26		개봉시기	2009-06-25
		장 르	드라마, 멜로/애정/로맨스
		감 독	신동일
		등장인물	마뽀 알엄 펄럽(카림 역,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청년), 백진혜(민서 역, 여고생), 이일화(은주 역), 박혁권(기홍 역)
		등 급	청소년 관람불가
		세부주제	이주노동자
		줄 거 리	여고생 민서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청년 카림이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27	세리와 하르	개봉시기	2009-07-23

		장 르	드라마
		감 독	장수영
		등장인물	장미지(세리, 베트남 엄마의 딸), 최세나(하르, 필리핀 불법체류자의 딸)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노동자/이주여성/다문화자녀
		줄 거 리	베트남 엄마를 둔 세리와 필리핀 불법체류자의 딸 하르의 이야기
28		개봉시기	2010
		장 르	드라마
		감 독	사라 아브레군도
		등장인물	사라 아브레군도(결혼 이주여성)
		등 급	
		세부주제	이주여성
29		개봉시기	2010-02-04
		장 르	액션/드라마
		감 독	장훈
		등장인물	송강호(이한규 역, 국정원 요원), 강동원(송지원 역, 남파 공작원)
		등 급	15세 관람가
		세부주제	탈북자/ 새터민
30		개봉시기	2010-05-06
		장 르	드라마
		감 독	문승욱
		등장인물	마뽀 알엄(마뽀 역,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출신 영화인), 유예진(예진 역, 지역방송국 리포터)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노동자
31		개봉시기	2010-09-30
		장 르	코미디
		감 독	육상호
		등장인물	김인권(방가), 김정태(용철), 신현빈(장미), 방대한(알리), 나자루딘(라자), 훌먼 피터 로널드(찰리)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노동자
		줄 거 리	동남아 이주노동자인 척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한국인 방가의 이야기

32	항해	개봉시기	2010-12-22
		장 르	스릴러
		감 독	나홍진
		등장인물	하정우(김구남 역, 연변남자), 김윤석(면정학 역, 살인청부업자), 조성하(김태원 역)
		등 급	18세 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세부주제	탈북자/조선족
33	바다를 건너 온 엄마	개봉시기	2011
		장 르	드라마
		감 독	정연경
		등장인물	함원진(조선족 여인)
		등 급	
		세부주제	조선족/이주여성
		줄 거 리	엄마를 그리워하는 한 아이와 중국에 자식을 두고 온 조선족 아줌마의 만남 이야기
34	두만강	개봉시기	2011-03-17
		장 르	드라마
		감 독	장률
		등장인물	최건(창호 역, 조선족 소년), 이경림(정진 역, 탈북 소년), 윤란(순희 역, 창호 누이)
		등 급	15세 관람가
		세부주제	탈북자/조선족
		줄 거 리	탈북 소년과 조선족 소년이 만나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
35	무산일기	개봉시기	2011-04-14
		장 르	드라마/사회물(경향)
		감 독	박정범
		등장인물	박정범(승철 역, 탈북자), 진용욱(경철 역, 탈북자), 강은진(숙영 역)
		등 급	15세 관람가
		세부주제	탈북자/새터민
		줄 거 리	'125'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탈북자의 삶과, 한국 사회의 어두움을 그린 영화
36	시선 너머	개봉시기	2011-04-28
		장 르	드라마/옴니버스
		감 독	강이관<이빨두개>, 부지영<니마>, 윤성현<바나나쉐이크>
		등장인물	이빨두개 박정욱(준영 역), 서옥별(영옥 역, 탈북 청소년)
			니마 단잔 다바안 얌(니마 역, 몽골 이주여성 노동자), 이정은(정은 역)
			바나나쉐이크 정재웅(봉주 역), 김비히르 만 슈레스타(알빈 역, 필리핀 이주노동자)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탈북자/이주여성/이주노동자	
		줄 거 리	이빨두개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남학생 준영과 탈북 청소년인 여학생 준영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음
			니마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몽골이주여성노동자 니마와 남편에게 매 맞고 사는 한국인 동료 정은이 동병상련을 느끼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이야기
			바나나쉐이크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알빈이 주인집 부부에게 도둑으로 의심받게 되고, 동료인 봉주가 알빈을 두둔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림
37	완득이	개봉시기	2011-10-20	
		장 르	드라마	
		감 독	이한	
		등장인물	김윤석(동주 역), 유아인(완득 역), 이자스민(완득 엄마)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이주여성	
		줄 거 리	가진 것 없는 고등학생 완득과 담임 동주가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	
38	너에게 간다	개봉시기	2012	
		장 르	드라마	
		감 독	신이수	
		등장인물	최용현, 황태동, 손예원	
		등 급		
		세부주제	조선족/ 이주여성	
		줄 거 리	조선족 여인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연인을 찾아 나서는, 고단한 사랑의 여정을 그린 영화	
39	파파	개봉시기	2012-02-01	
		장 르	코미디	
		감 독	한지승	
		등장인물	박용우(춘섭), 고아라(준)	
		등 급	12세 관람가	
		세부주제	다문화 입양	
		줄 거 리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6남매와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린 매니저 춘섭이 가족으로 뭉치게 되는 이야기	
40	줄탁동시	개봉시기	2012-03-01	

	장 르	드라마
	감 독	김경묵
	등장인물	이바울(준 역, 탈북 소년), 염현준(현 역, 동성애자 소년), 김새벽(순희 역, 조선족 소녀), 임형국(성훈 역, 펀드매니저)
	등 급	18세 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세부주제	탈북자/조선족
	줄 거 리	닥치는 대로 돈벌이에 몰두 중인 탈북 소년 준과, 모텔을 전전하며 몸을 파는 게이 소년 현의 이야기

부록2. <다문화 광고 목록, 2008. ~2012.8.>

No	작품명(사진첨부)	개요	
1		방송시기	2008년 5월
		광고주	MBC/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제목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줄거리	학부모 참관수업이 있는 초등학교 교실. 외국인 엄마를 둔 광준이가 크레파스로 엄마의 얼굴을 완성하지 못하다가 엄마가 오신 후 갈색 크레파스로 얼굴색을 칠하는 모습.
2		방송시기	2008년 10월
		광고주	KT&G복지재단
		제목	(자료없음_기존 분석자료 참조)
		줄거리	김치를 좋아하고 한강을 사랑하고 아이를 낳은 우리의 이웃 이주여성을 따뜻하게 대하자는 메시지를 전달.
3		방송시기	2008년 10월
		광고주	보건복지부
		제목	함께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우리
		줄거리	동남아 여성들의 흑백 스틸 컷 이후 한국에 적응해 음식을 만들고 친구를 나누는 모습들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우리의 이웃사촌임을 호소함.
4		방송시기	2008년 11월

		광고주	하나금융그룹
		제목	당신처럼 1
		줄거리	베트남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한국의 어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김치, 세종대왕, 독도 등의 관습적 기호를 통해 호소함. 흑백 스틸 컷으로 구성.
5		방송시기	2009년 2월
		광고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목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
		줄거리	농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돌봄에 있어 알림장을 읽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웃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
6		방송시기	2010년 2월
		광고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제목	하나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줄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인터뷰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으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줌.
7		방송시기	2010년 4월
		광고주	LG그룹
		제목	장원급제
		줄거리	김홍도의 풍속도 '서당'을 모티브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학문적으로 뛰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장원급제를 하는 모습을 그림, 얼굴이 아닌 가능성을 보자는 메시지를 전달.
8		방송시기	2010년 5월
		광고주	아시아나항공
		제목	다문화 가정 모국어 도서지원
		줄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외국어로 된 책을 읽

			으며 밝게 웃는 모습.
9		방송시기	2010년 8월
		광고주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제목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 피해 예방 홍보
		줄거리	곁에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밀랍인형의 모습을 한 이주여성의 모습을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
10		방송시기	2010년 9월
		광고주	LG그룹
		제목	강강술래
		줄거리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강강술래를 하다가 점차 각국의 전통 복장을 입은 아이들이 섞여 함께 강강술래를 하면서 계속 손을 잡고 돈다. 이들이 커서 경찰, 의사 등의 전문직 유니폼을 입고 강강술래를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11		방송시기	2010년 11월
		광고주	하나금융그룹
		제목	당신처럼 2
		줄거리	베트남 엄마를 둔 이 아이는 엄마야빠 사이에서 통역사, 친구들의 선생님, 친척들의 가이드를 하는 미래의 외교관을 꿈꾸는 이 땅의 인재이다.
12		방송시기	2011년
		광고주	삼성&SBS
		제목	투게더포투모로우 다문화가정편
		줄거리	다섯 편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고 이들의 꿈 속에 더 큰 대한민국이 있음을 호소함.
13		방송시기	2011년 7월
		광고주	NH농협

		제목	함께하는 어울림을 배웁니다.
		줄거리	임신과 농촌 생활에 힘든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농협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14		방송시기	2011년 9월
		광고주	LG그룹
		제목	편견의 못
		줄거리	우리말을 못하고, 친구를 못 사귀고, 수업을 못 따라가고, 우리 음식을 못 먹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하자는 내용.
15		방송시기	2011년 11월
		광고주	NH농협
		제목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미래로
		줄거리	결혼5년차의 이주여성이 개명, 기초농업교육, 한국인 친정 부모 결혼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어엿한 한국인으로 자리잡는다는 내용
16		방송시기	2012년 3월
		광고주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제목	다문화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줄거리	결혼이주여성, 운동선수, 군인의 일상을 보여주며 이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민이라고 전달함.
17		방송시기	2012년 8월
		광고주	고용노동부
		제목	외국인 고용허가제
		줄거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의 약속을 지킬 것을 호소하는 내용

18	이하 여백	방송시기	
		광고주	
		제목	
		줄거리	
19		방송시기	
		광고주	
		제목	
		줄거리	
20		방송시기	
		광고주	
		제목	
		줄거리	

참고문헌

- 강상구(20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 강수돌·남구현(1997),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현황과 정책」, 『노사관계 연구』 8(1).
- 강태영(2002),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구조와 한국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전략」, 『방송연구』 55호.
- 국가정보원(2004), 『한류의 경제적 활용실태 및 보완방안』, 국가정보원
- 권금상(2008), 「미디어에 나타난 이주가정의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교육사회학회·국제이해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 _____(2010), 『미디어에 나타난 이주아동 인권의 사회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 김미정(2009), 「미디어 속의 여성 : TV광고를 통해 본 수행적 젠더성」, 『비평문학』, 32:91-118
- 김민정(2004), 「필리핀의 국가형성과 토착민」 (『동남아시아 지역주의와 종족갈등』, 오름 2004),
- 김성준(1997), 『WTO법의 형성과 전망』, 삼성출판사.
- 김세은·김수아(2008), 「다문화사회와 미디어의 재현, 외국인근로자 보도분석」, 『다문화사회연구』 1(1).
- 장·김은이(2008),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 국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43. 385-426.
- 김은혜(2012), 「다문화 주제 공익광고에서 이주민 표현방식과 광고소구 유형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식(2012),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 프로그램 제공 수준에 대한 실증 연구 -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 김이선(2008),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교육적 함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교육사회학회·국제이해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 김창남(2003), 「한국대중문화의 정체성과 미국문화: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우리학문 속의 미국』(한술단체협의 회 편, 한울아카데미.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 김현미(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제26호.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57-78.
- 김혜성(2011), 「광고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나오키 사카이(2001), 「서문」, 『혼적: 서구의 유령과 번역의 정치』, 창간호, 문화과학사.
-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기획위원회(2003), 「비판적 지성이 만드는 동아시아」,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야리
- 하르트 뢰히(2004), 「공정과 전복 사이에서 -세계화 시스템 속에서의 대중문화」,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 리』, 한울. 마무리 신이찌, 임성모 역, 창비.
- 마정미(2010), 「TV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찰 :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2(4):223-258.
- 문화관광부(2003)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실현 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정책비전』
- 문화관광부(2004), 『문화산업백서2004』
- 문화관광부(2005), 『2004년 문화산업 백서.』
- 박자영(2995), 「1990년대 중국에서 (반)미국화의 맥락」, 아시아대중문화연구 국제세미나 서울2005 자료집.
- 박지영(2008), 『다문화 가족의 사회지원 체계, 다문화사회 복지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백선기(2004), 『대중문화 :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2007),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2007),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2010), 『광고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선가·황우섭(2009), 「다문화성 TV방송 프로그램의 패러독스: KBS-TV의 〈미녀들의 수다〉에 내재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45.
- 백영서(2004),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백원담(2003), 「和와 동아시아」, 『동아시아 문화공동체포럼』(중국북경) 자료집.
- 백지운(2005), 「인터넷 민족주의와 문화의 통합/분열」, 동아시아, 대중문화와 (탈)민족주의, 2005, 토론회 자료집.
- 설동훈·이혜장·조성남(2005), 『국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2005),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채택 환영성명서」
- 신현준(2005), 「한류(K-culture)를 넘어, ‘민족문화’와 ‘문화전쟁’을 넘어」, 아시아대중문화연구 국제세미나 서 울 자료집.
- 심광현(2005), 『홍한민국』, 현실문화연구.
- 쑨거(2004), 「아시아담론과 ‘우리들’의 딜레마」,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 아르준 아파두라이(2004), 「전지구적 문화경계에서의 탈구와 차이」, 『고비폴린 현대성』, 차원현 역, 현실문화연구.
- 아리프 딜릭(2000),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양은경(2003), 「동아시아의 트렌디 드라마 유통에 대한 문화근접성 연구」, 『방송연구』 2003년 여름호
- 양은경(2003), 「동아시아의 트렌디 드라마 유통에 대한 문화적 근접성 연구」, 『방송연구』 여름호.
- 월터 레이피버(2001), 『마이클 조던, 나이키, 지구자본주의』, 이정엽 역, 문학과지성사.
- 유봉학(2005), 『한국문화와 역사식』, 신구문화사.
- 양정혜·오창우 (2008), 미디어와 타자의 재현,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에 나타난 결혼이주 외국여성의 모습, 『사회과학논총』 27(1), 345-371.
- 오경석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상우(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
-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 _____(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 윤인진·이진복(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 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79(1), 41- 92.
- 윤정로(2012), 「다문화 이주 외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대한 연구」
- 이경숙(2006),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 러브인 아시아의 텍스트분석」, 『한국방송학보』 20(2).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 분업, 문화 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 이상길·안지현(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

- 언론학보』 51(5), 58-475.
- 이동연(2006), 『아시아문화연구를 상상하기』, 그린비.
- 이와부치 고이치(2001),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히라타 유키에?전오경 역, 또하나의문화.
- 이희은, 유경한, 안지현(2007). TV광고에 나타난 전략적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39:473-506.
- 이희은·유경한·안지현(2007). TV광고에 나타난 전략적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39, 473-505.
- 임재해(1998), 『한국의 민속예술』, 문학과지성사.
- 조만호(1995), 『전통회곡의 제식적 미학』, 태학사.
- 조혜영 외(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 조혜정(2002), 「6일 간의 시간여행, 아시아, 글로벌, 그리고...」, 『당대비평』, 여름호.
- 존 톰린슨(1991), 『문화제국주의』, 강대인 역, 나남, 1991
- 존 톰린슨(1994), 『문화제국주의』, 강대인 역, 나남.
- 존 톰린슨(2004), 『세계화와 문화』, 김승현, 정영희 공역, 나남.
- 천광신(2001), 「한류문화의 현황과 반성」, 월간 『문화연대』, 2001년 11월호 인터뷰
- 칸글리니(2004), 「세계화와 정체성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한울.
- 프란츠 파농(1978),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자들」, 김남주 역, 청하.
- 프랑수아 드 베르나르(2005), 「『문화다양성』의 재정립을 위하여」,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김창민 외 편역, 한울.
- 프랑수아 세네(2003), 『자본의 세계화』, 서익진 역, 한울.
- 피터 버거(2005), 「서문-세계화의 문화적 원동력」, 『진화하는 세계화』, 피터 버거 외 저, 김한영 역, 아이필드.
- 전규찬(2001), 「인종주의의 전지구적 형성과 미디어 연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9(4), 73-105.
- 정의철·이창호(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과 한국의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47-69.
- 조르주 페니누(1998), 「광고기호 읽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충욱(2009). 「외국 다문화교육의 동향」, 최충욱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파주: 양서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동북아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방안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동북아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방안연구』.
- 한국역사연구회(1996),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 한건수(2004),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근로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2), 157-193.
- 황정미(2007),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국제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추계 세미나 기초 발제문.
- _____(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3.

Ackbar Abbas(1997), *Hong Kong: Culture and the Politics of Disappeara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lice M. Nah(1994), "Negotiating Indigenous Identity in Postcolonial Malaysia: Beyond Being 'Not quite/Not Malay'",
- Allen Chun(2000), "Discourses of Identity in the Changing Spaces of Public Culture in Taiwan, Hongkong and Singapore, *Theory, Culture & Society*.
- Angel Lin(2005), "Constructing Cultural Self and Other in the Internet Discussion of a Korean Historical TV Drama:A Discourse Analysis of Weblog Messages of Hong Kong Viewers of 'Dae Jang Geum'"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5년 가을 콜로키엄, “동 · 동남아시아 대중문화에서 대중적 민족주의와 그 불만들” 자료집)
- Annette Hamilton(1994), "Cinema and Nation:Dilemmas of Representation in Thailand Colonialism and Nationalism in Asian Cinema" , edited by Dissanayake, Indiana University Press.
- Arif Dirlik(1996), "Global in the Loca" , *Global Local: Cultural Production and the Transnational Imaginary*, eds. by Rob Wilson and Wimal Dissanayake, Duke University Press.
- Arjun Appadurai(1996),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e Economy", in *Modernity at Large*, Verso.
- B. Ashcroft(2000), "Globalizations", in Postcolonial Studies:*The Key Concepts*(eds by B. Ashcroft et al, Routledge: London & New York.
- Buell, Frederick(1994), *National Culture and the New Global System*,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astles, S., &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Carolyn Steedman(1992). "Culture, Cultural Studies, and the Historians",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Cary Nelson, Paula A. Treichler, and Lawrence Grossberg(Ed.), Routledge.
- Coenders, M.and M. Lubbers and P.Scheepers(2003). *Major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tion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Ref. No. 2003/04/01, Report 1-4).
- Ching, Leo(1994), "Imaginations in the Empires of the Sun: Japanese Mass Culture in Asia," *boundary 2*, 21:1.
- Ching, Leo(2000), "Give me Japanand Nothing Else!": Postcoloniality, Identity, and the Traces of Colonialism,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4, Fall.
- Ching, Leo(2000), "Globalizing the Regional, Regionalizing the Global: Mass Culture and Asianism in the Age of Late Capital", *Public Culture*, 12:1
- Chun, Allen(1996), "Fuck Chineseness: On the Ambiguities of Ethnicity as Culture as Identity", *boundary 2*, Vol.23, No.2(Summer), 1996
- Collin Spark(1997), "The Evolution of cultural studies", *What is Cultural Studies? A Reader*.
- D. K. Fieldhouse(1991), *The Colonial Empire:A Compatative Survey from the Eighteenth Century*, Macmillan.
- D. P. Martinez(1998), *The World of Janpanese Popular Culture*, Cambridge UniversityPress:Cambridge.
- Dana Haraway(1992), "The Promises of Monster: A Regenerative Politics for Inappropriate", in *Cultural Studies*, eds L. Grossberg, Cary Nelson, P. A. Treichler, Routledge.

- David Desser(2003), "Consuming Asia: Chinese and Japanese Popular Culture and the American Imaginary", in *Multiple Modernities: Cinema and Popular Media in Transcultural East Asia*(Ed. by Jenny Kwok Wah Lau, Temple University Press).
- David Morley & Kevin Robinson(1995), *Spaces of Identities: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 and cultural boundaries*, London:Routledge.
- Desser, David(2003), "Consuming Asia: Chinese and Japanese Popular Culture and the American Imaginary", in *Multiple Modernities: Cinema and Popular Media in Transcultural East Asia*(Ed. by Ed. by Jenny Kwok Wah Lau, Temple University Press)
- Diana Crane(2002), "Culture and Globalization", *Global Culture:Media, Arts, Policy, and Globalizatio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Edward Said(1993), *Culture and Imperialism*, Alfred a. Knoff:New York.
- Eric Kit-wai Ma(2001), Consuming Satellite Modernities, *Cultural Studies*, 15(3/4) 2001
- Frederic Jameson(1998), "Notes on Globalization as a Philosophical Issues",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eds. by Frederic Jameson and Masao Miyoshi, Duke University Press.
- Frederick Buell(1994), *National Culture and the New Global System*, Baltimore and Lons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redric Jameson(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ke University Press:Durham.
- Gerbner, G., & Gross, L., Eleeey, M., Jeffries-Fox, S., & Signorielli, N.(1977). Violence profile no. 8, trends in network television drama and viewer conception of social reality 1967-1976. Annenberg report.
- George Soros(2002), *On Globalization*, Public Affairs:New York.
- Gu, Edward X.(1999), "Cultural Intellectuals and the Politics of the Cultural Public Space in Communist China(1979~1989): A Case Study of Three Intellectual Group",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8:2..
- Harootunian, Harry & Sakai, Naoki(1999), "Japanese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positions* 7:2.
- Jan Nederveen Pieterse(1995), "Globalization as Hybridization", in *Global Modernity*, eds by Mike Featherstone et al, Sage Publications:London.
- Janet Wolff(1992), "Excess and Inhibition: Interdisciplinarity in The Study of Art",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 John Nguyet Erni(2001), "Like a Postcolonial Culture: Honk Kong Re-Imagined", in *Cultural Studies*, 15(3/4) 2001
- Jung-Bong Choi(2003), "Mapping Japanese Imperialism onto Postcolonail Criticism", *Social Identities*, vol 9:3.
- Kang, Sangjung(2001), "Post-colonialism and Diasporic Space in Jap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2:1. April.
- Kojin Karatani(1991), "The Discursive Space of Modern Japan", *boundary 2*, 18:3.
- Leo Ching(1994), "Imaginings in the Empire of the Sun:Japanese Mass Culture in Asia", *boundary 2*, 1994,

- _____ (1994), "Imaginations in the Empire of the Sun: Japanese Mass Culture in Asia", *boundary 2*,
 _____ (1994), "Imaginations in the Empires of the Sun: Japanese Mass Culture in Asia," *boundary 2*,
 21:1, 1994
- _____ (2000), "Globalizing the Regional, Regionalizing the Global": Mass Culture and Asianism in
 the Age of Late Capital", *Public Culture*, 12:1.
- Lippmann, W.(1922). *Public opinion*, New York : Oxford.
- Marlene Cuthbert & Elizabeth Buck(1991), *Music at the Margins: Popular Music and Global Cultural
 Diversity*, Sage Publications.
- Masso Miyoshi(1993), "A Borderless World?: From Colonialism to Transnationalism and the Decline of
 the Nation-State, in *Critical Inquiry*, Summer.
- Meaghan Morris and John Frow(1993), *Australian Cultural Studies: A Reader*,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eaghan Morris(1992), "On the Beach", in *Cultural Studies*, Routledge.
- Mike Featherstone(1995), *Undoing Culture: Globalization, Postmodernism, and Identity*. London: Sage.
- Mike Featherstone(1996), "Localism, Globalism, and Cultural Identity", in *Global Local*,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 Napier, Susan (1993), "Panic Sites: The Japanese Imagination of Disaster from Godzilla to Akir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9, No. 2, Summer.
- Painter, Andrew A.(1993), "Japanese Daytime Television, Popular Culture, and Ideology",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9, No. 2, Summer.
- Rey Chow(1998), "Between Colonizers: Hong Kong's Postcolonial Self-Writing in the 1990s", *Ethics After
 Idealism: Theory-Culture-Ethnicity-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Rey Chow(1998), "King Kong in Hong Kong Watching the "Handover" from the USA", *Social Text*, 16:2.
- Richard Johnson(1997), "What is cultural studies anyway?", *What is Cultural Studies? A Reader*, N.Y.;
 Arnold.
- Roland Robertson(1995), "Globalization: Time-Space and Homogeneity-Heterogeneity", in *Global
 Modernity*, eds by Mike Featherstone et al, Sage Publications: London.
- Roland Robertson(1995),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Publications: London.

참고 사이트

KBS 러브인아시아 홈페이지 <http://www.kbs.co.kr/>
 법무부. 2012 출입통계연보. <http://www.moj.go.kr/>
 통계청. 2012 통계자료. www.nse.go.kr
 한국광고협회 광고정보센터 <http://www.kfaa.org/>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www.kobaco.c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